

2021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1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1년 및 중기 경제전망

총괄 | 이정은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 김윤기 거시경제분석과장

작성 | 김윤기 거시경제분석과장
유승선 · 황중률 · 오현희 · 박선아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

지원 | 장유진 거시경제분석과 행정실무원
설경원 거시경제분석과 자료분석지원요원

「2021년 및 중기 경제전망」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 02) 6788-3775 | macro@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0. 9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
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0. 9. 24.)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2/4분기 중 세계경제와 세계교역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를 시현하였습니다. 우리 경제 또한 코로나19 충격으로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을 보이며 경기가 급락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으로 대면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급감하고 세계교역 위축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들어 세계 주요국의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국내외 경기부진이 완화되고는 있으나, 코로나19의 전개양상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으로 가계소비와 기업투자의 회복은 더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 경제여건 하에서 금번 「2021년 및 중기경제전망」 보고서는 2021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과 2020~2024년의 중기경제전망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담았습니다.

우선 2021년 국내경제는 실질GDP 2.3%, 명목GDP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민간소비는 소비활동과 소비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 및 고용여건 개선이 지연되면서 빠른 회복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설비투자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일부 IT업종에 편중되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건설투자는 내년에도 민간건축을 중심으로 조정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올해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대외 수출은 2021년에는 세계수입수요 확대에 힘입어 증가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5년간(2020~2024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이전 5년간(2015~2019년, 2.6%) 대비 0.6%p 하락한 연평균 2.0% 수준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 전체의 효율성 저하와 투자 위축으로 총요소생산성과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각각 0.2%p와 0.4%p 하락하는 데 기인합니다. 특히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투자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예산안 심의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종후

요 약

1. 2021년 및 중기 경제전망

- 2021년 실질GDP는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며 2.3% 성장 전망
 -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급락한 후 2021년에는 서비스소비 부진 완화 등 소비활동과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반등할 전망
 - 다만 가계소득과 고용여건의 개선이 지연되며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상회하는 빠른 회복은 어려울 전망
 - 건설투자는 선행지표 개선세, 2021년 정부 SOC 예산 확대 등으로 부진이 완화되겠으나, 주택투자 부진이 지속되며 연간으로는 소폭 감소 전망
 -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IT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되겠으나, 비IT부문은 전반적인 업황 부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제한적인 투자확대에 그칠 전망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민간 R&D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수요가 늘어난 온라인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총수출(물량)은 주요국 경기회복세로 세계교역량이 확대되는 데 힘입어 반등할 전망
 - 총수입(물량)은 국내 경기회복세에 따라 재화 수입을 중심으로 증가 전망
- 2021년 우리경제의 성장 경로에는 코로나19의 전개양상과 세계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
 - 본 경제전망보고서의 기본 시나리오는 2021년부터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만일 코로나19의 재확산, 미·중 무역분쟁 격화 등 세계교역이 타격을 받을 경우 성장 경로가 달라질 가능성

2020~2024년 국내 경제전망

(단위: %, 억 달러, 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내총생산	2.0	-1.6	2.3	2.8	2.4	2.3
민간소비	1.7	-4.1	3.1	2.5	2.1	2.0
설비투자	-7.5	2.5	2.7	4.6	2.8	2.4
건설투자	-2.5	-0.6	-0.3	0.7	1.3	1.4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0	2.9	3.2	4.7	3.7	3.4
총수출	1.7	-5.5	3.6	3.4	2.4	2.1
총수입	-0.6	-4.5	4.6	4.0	2.8	2.4
경상수지(억달러)	600	540	555	520	490	470
상품수출(통관)	-10.4	-9.8	7.5	5.5	3.1	2.9
상품수입(통관)	-6.0	-9.3	7.3	4.9	3.0	2.7
실업률	4.0	4.1	4.0	3.8	3.9	3.9
소비자물가	0.6	0.5	1.0	1.2	1.2	1.3
국고채금리(3년만기)	1.5	1.0	1.3	2.0	2.3	2.2
원/달러 환율(기준환율)	1,166	1,200	1,184	1,166	1,154	1,142
GDP디플레이터	-0.9	0.6	1.1	1.1	1.1	1.3
명목국내총생산	1.1	-1.0	3.4	3.9	3.5	3.6

주: 2020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 2021년 명목GDP 성장률은 3.4%를 기록할 전망

- 2021년 명목GDP 성장률은 경기회복세와 GDP디플레이터 상승에 힘입어 2020년 역성장(-1.0% 전망)에서 3%대 중반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
 - 2021년 명목GDP 성장률(3.4%) = 실질GDP 성장률(2.3%) + GDP디플레이터 상승률(1.1%)
 - 2021년 GDP디플레이터 상승은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디플레이터 상승과 교역조건 개선에 의해 주도될 전망

- 중기 2020~2024년 기간 중 실질GDP는 연평균 1.6% 성장 전망
 - 실질GDP 성장률은 지난 5년간(2015~2019년) 연평균 2.8% 수준에서 2020~2024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1.6%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2020년 제외 시 연평균 2.5% 성장)
 - 향후 5년 기간 실질GDP 성장률 흐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2020년 역성장 한 후 2021년부터 회복세를 보여 2022년 2.8%의 성장률 고점을 형성하고 이후 둔화될 전망
 - 2020~2024년 기간 중 실질GDP 성장률에 대한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는 이전 5년(2015~2019년)과 비교하여 정부소비와 설비투자는 상승하는 반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하락할 전망
 - 성장기여도(2015~2019년 → 2020~2024년, %p): 민간소비 1.2 → 0.5, 정부소비 0.8 → 1.0, 설비투자 0.2 → 0.3, 건설투자 0.5 → 0.1
- 2021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2,023달러 수준을 기록할 전망
 - 1인당 GDP는 지난 2018년 33,429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9년(31,838달러, 원화가치 하락)에 이어 2020년(30,582달러 전망, 명목GDP 감소 및 원화가치 하락)에도 연속 감소할 전망
 - 2021년 1인당 GDP는 명목GDP(전년대비 3.4%)와 원화가치(전년대비 4.7%) 상승으로 2020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나, 2018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2020~2024년 기간 중 연평균 명목GDP 성장률(2.7%)과 원화가치 상승률(0.4%)의 전망치를 적용할 경우 2024년 1인당 GDP는 36,970달러 수준으로 시산

2. 부문별 전망

- 2021년 민간소비는 소비활동과 소비심리가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3.1% 증가할 전망
 -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크게 위축된 소비활동과 소비심리가 서서히 개선될 전망

- 2021년 중 전년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이연된 소비활동 확대 등은 민간소비 개선요인으로 작용
 -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 회복이 지체되고 기업 수익 악화로 임금상승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은 미흡할 전망
 - 2020~2024년 기간 중 민간소비는 연평균 1.1% 증가하여 지난 5년(2015~2019년)에 비해 둔화될 전망
 - 중기적으로 민간소비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부채증가,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저축성향 증가, 생산연령인구 감소, 고령층의 소득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될 전망
- 2021년 건설투자는 토목투자의 확대가 예상되나, 주택경기 위축이 지속되면서 연간 0.3% 감소할 전망
- 비주거용과 토목 건설은 공장 증설, SOC예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건설투자 위축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비주거용 건설은 민간 공장 및 창고 증설 등에 따라 공업용부동산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정부는 2021년 SOC예산을 확대하여 ‘한국판 뉴딜’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 투자를 확대할 계획
 - 반면, 주택투자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부진을 완화하는 요인이나, 민간주택 부진이 지속되면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
 - 민간주택부문은 신규 분양물량이 줄어드는 등 부진이 지속될 전망
 - 2020~2024 기간 중 건설투자는 민간주택 부진이 완화되고 공공부문 지출이 확대되면서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
 - 정부의 SOC 예산 확대(연평균 8.3% 증가)로 공공부문 투자지출이 증가하고, 민간주택투자 부진이 완화되면서 중기 2020~2024년 기간 중 연평균 0.5% 증가할 전망

- 2021년 설비투자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한 가운데 전년에 이어 반도체 등 일부 IT업종에 편중된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됨
 - 2021년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2.7% 증가하며 전년 수준의 증가폭이 유지될 전망
 - 반도체 등 IT 업종은 2020년 하반기의 일시적 부진에서 벗어나며 완만한 투자 회복이 예상되나 관련 산업을 둘러싼 미·중 갈등 심화는 투자를 지연시키는 추가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
 - 비IT부문의 설비투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업황 부진과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신규 투자가 지연되는 가운데 미래형 자동차,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확대가 예상됨
 - 2020~2024년 기간 중 설비투자는 IT 제조업과 통신서비스 등 관련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지난 5년(2015~2019년, 연평균 2.9%)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어 연평균 3.0% 증가
 -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량 증가율 둔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비IT 제조업의 업황 둔화 등의 영향으로 IT부문 중심의 투자 확대 추세가 이어질 전망
 - 설비투자가 전체 고정자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설비투자 증가율 정체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중 건설투자 부진으로 향후 5년 중 완만히 상승하여 연평균 30%에 이를 전망

- 2021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4차산업 관련 R&D투자와 기업용 소프트웨어 등을 중심으로 연간 3.2% 증가할 전망
 - 민간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4차산업 관련 투자와 기업의 비대면활동 관련 IT 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 민간 R&D투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 감소와 경기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전년도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기타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영업, 기업내 업무 관련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며 관련 소프트웨어 지출이 견실하게 증가할 전망
 - 정부부문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R&D예산규모 확대와 소프트웨어 발주 증가로 전년도(3.1%)보다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

- 2020~2024년 기간 중 지식생산물투자는 지식기반산업 비중확대와 관련 기업 지출 증가에 힘입어 연평균 3.4%의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2020~2021년 중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매출이 부진하여 R&D 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IT서비스관련 기업지출이 증가하며 기타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
 - 2022~2024년 중에는 기업 R&D투자 증가세가 확대되며 연평균 3.9%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중기적으로 ICT산업 및 4차 산업 성장 지속, 국내 지식기반산업서비스업 비중 증가 등의 영향으로 관련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2021년 수출(통관기준)은 2020년(-9.8% 전망) 급락한 후, 세계경제회복세와 세계교역량 확대 등에 힘입어 연간 7.5% 증가할 전망
 - 2021년 통관 수출은 세계 경기회복세로 기업의 생산과 투자 확대, 소비 증대 등으로 해외수입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가할 전망
 - 상품수출은 전년대비 7.5% 증가한 5,253억달러, 상품수입은 7.3% 증가한 4,902억달러를 각각 기록할 전망
 - 일평균 수출액은 2020년 전년대비 10.2% 감소한 17.9억달러 수준에서 2021년 7.1% 증가한 19.2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나 2019년(20억달러)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할 전망
 - 2021년 무역수지는 351억달러 흑자 전망
 - 무역수지는 2017년(952억달러)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후, 수출부진이 지속되며 흑자폭이 축소되었으며 2021년에는 2017년 고점 대비 37% 수준의 흑자를 보일 전망
 - 교역규모(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의 합)는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9,456억달러 전망) 축소된 후, 2021년 1조 달러대로 회복할 전망
 - 2020~2024년 기간 중 통관 수출은 연평균 1.8% 증가할 전망
 - 통관 수출은 2020~2024년 기간 중 연평균 1.8% 증가하여 이전 5년(2015~2019년, -0.6%)의 부진에서는 반등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0~2008년, 연평균 13.3% 증가)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저성장세, 미·중 무역분쟁 격화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등으로 세계교역신장률이 둔화되면서 하락세를 지속
- 2021년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늘어나지만 수출 증대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폭 확대에 연간 555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
 - 상품수지는 2020년에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수출 급감으로 2019년(769억달러)에 비해 흑자규모(650억달러)가 큰 폭으로 축소된 후, 2021년에는 해외수요증대에 따른 수출증가로 709억달러로 늘어날 전망
 -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2020년 여행·운수 등 서비스수지가 크게 개선되면서 적자폭이 축소된 후,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진정으로 해외여행이 완전히 회복세를 보이는 등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
 - 경상수지(GDP대비) 흑자비율은 2021년 3.3%를 기록한 후, 점차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2024년 2.5% 수준을 나타낼 전망

- 2021년 전체 취업자수는 완만한 경기회복과 주요 대면서비스 업종 업황의 더딘 개선세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8여만 명 증가할 전망
 - 경기여건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이 늘며 실업률은 빠르게 하락하지 않고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
 - 실업률은 2020년 4.1%에서 소폭 하락하여 2021년 4.0%를 기록할 전망
 - 서비스업 고용은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상존한 상황에서 주요 대면서비스 업종은 안전한 소비활동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업황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업종의 고용여건도 더딘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제조업은 반도체 등 IT업종 중심으로 업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주요 업종의 가동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용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R&D 예산 확대 등은 공공행정, 보건복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고용 부진을 완화할 전망

- 2020~2024년 기간 중 전체 취업자수는 연평균 14.6만명(0.5%) 증가하여 지난 5년(2015~2019년) 기간(24.5만명, 0.9%)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될 전망
 -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침체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향후 5년 기간 중 연평균 1.6%로 하락하며 노동수요 측면에서 둔화 요인으로 작용
 - 실업률은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4.1%로 상승한 이후 완만한 경기 회복으로 소폭 하락하겠지만 성장률 하락과 대면서비스업 업종의 업황 부진 등으로 이전 5년 기간(3.7%)에 비해 연평균 0.2%p 상승할 전망
 - 노동인구의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15세 이상 인구 기준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정체되며 OECD비교 기준(15~64세) 고용률과의 격차가 확대될 전망
- *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연평균, %): ('15~'19년)60.7 → ('20~'24년)60.7
- * 15~64세 고용률(OECD비교 기준)과 15세 이상 인구 기준 고용률의 갭(%p): ('15년)5.4 → ('17년)5.8 → ('19년)5.9

- 2021년 소비자물가는 2019~2020년의 저물가에 따른 기저효과, 국제유가 상승, 수요측 하락압력 완화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1.0% 상승 전망
 - 소비자물가는 2019~2020년 중 0% 대 중반의 낮은 상승률을 보인 후, 2021년에는 지난 2년 동안 지속된 저물가의 기저효과가 나타날 전망
 - 공업제품 가격은 국제유가 회복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전환,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소멸에 따른 승용차 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세를 보일 전망
 - 2021년부터 음(-)의 실질GDP 갭이 축소되면서 점차 수요측 물가 하방압력이 완화될 전망
 - 다만, 2021년 임금상승폭 둔화, 무상교육 등 정부정책, 기대인플레이션 둔화 등이 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
 - 2020~2024년 기간 중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를 하회하는 저물가 상황이 지속될 전망
 - 중기적으로 소비자물가는 최근의 공급측 물가하락 요인들의 해소와 완만한 경기회복으로 0%대에서 1%대 상승률로 높아지겠으나,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일 전망

- 2021년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국내외 실물경제의 완전한 회복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1.3%를 나타낼 전망
 - 2021년 시장금리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완만히 상승할 전망
 - 다만 2021년 실질GDP(전망)는 2019년 대비 0.7% 증가하는 수준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2.0%)에 상당 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리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전망
 - 경기침체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국제금리 안정이 2021년에도 이어져 국내금리 상승압력을 완화시킬 전망
 - 2020~2024년 기간 중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가 점차 코로나19의 충격을 극복하면서 성장세를 지속함에 따라 연평균 1.8%를 나타낼 전망
 - 국제금리도 중기적으로 완전한 상승세가 예상되어 국내금리의 상승요인으로 작용

- 2021년 원/달러 환율은 세계경제의 회복, 미달러화 약세에 따라 연평균 1,184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하락할 전망
 - 세계경제의 회복은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하여 미국 달러화에 대한 수요 집중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 회복 시 우리 경제의 안정성이 더욱 강화되며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증권시장에 대한 투자를 증대
 - 한국경제의 국가신용등급은 영국과 동일한 3번째 등급(무디스 Aa2, S&P AA, 피치 AA-)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3월 중 큰 폭으로 상승했던 외평채 CDS프리미엄은 9월 들어서는 2019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
 - 최근 원/달러 환율은 6월 평균 1,208원에서 8월 1,186원으로 하락하는 등 원화 가치가 상승 중
 - 2020~2024년 기간 중 원/달러 환율은 완전한 달러화 약세와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연평균 1,169원을 나타낼 전망
 -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세로 미 달러화 약세가 예상되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되면서 양호한 외환유동성공급이 유지될 전망

3. 잠재성장률

- 2020~2024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 충격의 영향 등으로 연평균 2.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
- 2020~2024년 기간 중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투자가 위축되면서 연평균 2.0% 수준을 기록할 전망
 - 동기간 중 생산투입요소별 잠재성장기여도(연평균, %p)는 각각 노동 0.0, 자본 1.1, 총요소생산성 0.9로 추정
 -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는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총고정투자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이전 5년(1.5%p) 기간에 비해 0.4%p 하락하여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경제 전체의 효율성 지표인 총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이전 5년(1.1%p) 기간에 비해 0.2%p 하락할 전망
 - 노동의 잠재성장기여도는 급속한 인구고령화 진전 등으로 생산인구와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되며 이전 5년 기간(0.0%p)과 동일한 수준에서 정체
 - 경기국면을 보여주는 실질GDP갭¹⁾은 2020~2024년 기간 중 실질GDP 수준이 완만하게 잠재GDP수준에 근접하며 상당 기간 음(-)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어 총수요 부진에 따른 물가하방압력이 존재할 가능성
 - 2020년 중에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민간소비부진, 수출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며 실질GDP갭이 금융위기 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
 - 2021년 이후에는 완만한 경기회복 국면을 보이며 음(-)의 실질GDP갭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겠으나, 2024년까지 상당 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됨

1) 실질GDP과 잠재GDP 추정치 간의 퍼센티지갭으로 정의되며, $\text{실질GDP갭} = (\text{실질GDP} - \text{잠재GDP}) / \text{잠재GDP} \times 100$ 으로 계산되며, 실질GDP갭이 양(+)이면 초과 총수요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이, 반대로 음(-)이면 총수요 부족에 의한 물가하락압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총노동투입은 이전 5년 기간(2015~2019년, 연평균 -0.5%)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2020년을 저점으로 증가하여 2020~2024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0.2%로 증가 전환
 - 이전 5년 기간과 비교하여 15세이상 인구증가세 둔화(0.8% → 0.5%), 실업률 상승(3.7% → 3.9%), 주당근로시간 감소(연평균 -0.3%) 등이 총노동 투입 증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여성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은 감소세를 완화
- 생산자본스톡은 2020~2024년 기간 중 고정투자 부진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어 2015~2019년 기간 중의 연평균 3.7% 증가에 비해 0.9%p 하락한 2.8% 증가에 그칠 전망
 - 2020~2024년 기간 중 총고정자본투자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설비투자 회복세 둔화,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1.9% 증가에 머물 전망

차 례

요 약

I. 대내외 경제여건 / 1

1. 세계 경제여건	3
가.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3
나. 세계교역량과 물가 전망	5
다. 세계경제의 위험요인	8
2. 국내 경제여건	11
가. 경제성장률 추이	11
나. 경기 국면 진단	13
다. 내수와 수출 여건	14
라. 고용과 물가 여건	15
3. 국제유가	17

II. 2021년 및 중기 경제전망 / 25

1. 경제성장률	27
가. 2021년 전망	27
나. 중기 전망	33
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	34
2. 민간소비	40
가. 2021년 전망	40
나. 중기 전망	45
3. 건설투자	55
가. 2021년 전망	55
나. 중기 전망	61

4. 설비투자	66
가. 2021년 전망	66
나. 중기 전망	71
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75
가. 2021년 전망	75
나. 중기 전망	79
6. 대외거래	83
가. 2021년 전망	83
나. 중기 전망	90
7. 고용	92
가. 2021년 전망	92
나. 중기 전망	96
8. 물가	101
가. 2021년 전망	101
나. 중기 전망	106
9. 금리·환율	111
가. 2021년 전망	111
나. 중기 전망	116

III. 잠재성장률 / 121

IV. 주요국 경제동향 및 전망 / 139

1. 미국	141
가. 최근 경제동향	141
나. 미국 경제전망	144
2. 중국	147
가. 최근 경제동향	147
나. 중국 경제전망	150
3. 유로지역	152
가. 최근 경제동향	152
나. 유로지역 경제전망	156

4. 일본	157
가. 최근 경제동향	157
나. 일본 경제전망	161
5. 브라질·러시아·인도	162
가. 최근 경제동향	162
나. 브라질·러시아·인도 경제전망	169

표 차례

[표 1] IMF의 세계경제전망	4
[표 2] OECD 세계경제전망	5
[표 3] 국제전망기관의 세계교역신장률 전망	6
[표 4] 2020~2024년 국내 경제전망	29
[표 5] 명목GDP 성장률 전망	31
[표 6]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2021년 실질GDP 구성항목별 전망 비교	34
[표 7] 가계 흑자율 추이	43
[표 8] 실질설비투자	66
[표 9] 최근 5년간 산업별 실질설비투자액과 비중 추이	74
[표 10] 주요 품목별 수출증감률과 비중 변화	85
[표 11] 주요 지역별 수출증감률과 비중 변화	86
[표 12] 수출입 증감률 전망(국민계정)	89
[표 13] 경상수지 전망	90
[표 14] 중기 수출 전망	91
[표 15] 주요 고용변수 중기 전망	100
[표 16]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품목별 기여도 추이	105
[표 17] S&P 기준 국가신용등급(장기외화채 등급)과 주요 등급별 국가	115
[표 18] 투입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125
[표 19] 노동투입 결정 변수 추이 및 전망	128
[표 20] 자본투입 추이 및 전망	131
[표 21]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142
[표 22] 미국 행정부의 경제전망	146
[표 23]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149
[표 24] 유로지역 주요거시경제지표 추이	155
[표 25]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158
[표 26] 주요 신흥국 경제지표 추이	169

그림 차례

[그림 1] 세계교역탄성치 전망	7
[그림 2]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8
[그림 3] 글로벌 재정수지 적자와 부채 급증	9
[그림 4] 실질GDP 성장률 추이	11
[그림 5] 내수와 총수출의 기여도 추이	12
[그림 6] 경제활동별 생산 추이	13
[그림 7] 선행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추이	13
[그림 8] 건설기성액과 설비투자지수의 추이	14
[그림 9] 취업자 수와 경제활동참가율 증감 추이	16
[그림 10] 물가상승률 추이	16
[그림 11] 국제유가 추이	17
[그림 12] 원유의 수요와 공급 추이 및 전망	19
[그림 13] 전세계 원유 수요 추이 및 전망	19
[그림 14] 미국 원유 생산량 및 WTI 가격	20
[그림 15] 미국 원유 생산량 전망	20
[그림 16] OPEC, 비OPEC 생산량 추이	21
[그림 17] 전세계 업스트림 원유와 가스 투자 추이	22
[그림 18] 실질GDP 성장률 전망	28
[그림 19]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30
[그림 20] GDP디플레이터, 소비자디플레이터, 교역조건 추이	31
[그림 21] 국내총생산과 지출부문별 증기 성장 전망(5년 단위 평균)	33
[그림 22]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명목GDP 성장률 전망 비교	35
[그림 23] 국내총생산과 민간소비 추이	40
[그림 24] 재별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40
[그림 25]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41
[그림 26] 국가별 구글 이동지수(소매 및 여가부문)	42
[그림 27] 가계의 은행예금 추이	43
[그림 28] 가계 및 시장 금리 추이	44
[그림 29] 실질 및 명목임금 상승률 추이	45

[그림 30]	민간소비 증기 전망	46
[그림 31]	예금은행 가계대출 추이	47
[그림 32]	예금은행 기업대출 추이	47
[그림 33]	생산가능인구 및 고령인구 추계	48
[그림 34]	주요 연령별 인구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48
[그림 35]	가계의 평균소비성향 추이	50
[그림 36]	가계 흑자율 추이	50
[그림 37]	OECD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소득수준	50
[그림 38]	OECD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원 중 근로소득 비중	50
[그림 39]	건설투자 추이	56
[그림 40]	주택준공실적 추이	57
[그림 41]	미분양주택 추이	57
[그림 42]	비주거용 건축수주액	58
[그림 43]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	59
[그림 44]	지식산업센터 승인 현황	59
[그림 45]	연도별 SOC 예산 추이 및 계획	60
[그림 46]	SOC투자 추이	60
[그림 47]	중기 건설투자 전망	61
[그림 48]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62
[그림 49]	공공주택공급계획	62
[그림 50]	중기 SOC 예산 투입 계획	63
[그림 51]	설비투자추계지수 및 기계류수입액 월별 추이	67
[그림 52]	업종별 2020년 설비투자계획	68
[그림 53]	반도체시장 전망	69
[그림 54]	세계 디스플레이시장 전망	69
[그림 55]	자동차 생산대수 및 수출액 추이	70
[그림 56]	중기 설비투자 전망	72
[그림 57]	정보통신부문의 수출 및 설비투자	72
[그림 58]	설비투자/고정자본투자 비중 추이 및 전망	73
[그림 59]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설비투자 비중 및 규모 추이	75
[그림 60]	자본재형태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76
[그림 61]	투자주체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76
[그림 62]	R&D 투자와 기업매출액 추이	77

[그림 63]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및 기업용 소프트웨어 지출 전망	78
[그림 64]	지식재산생산물투자 관련 서비스업 생산지수 추이	78
[그림 65]	중기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전망	79
[그림 66]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GDP대비 비중 추이	80
[그림 67]	지식재산생산물투자/총고정자본투자 비중	81
[그림 68]	지식재산생산물 및 연구개발투자의 GDP대비 비중 추이	81
[그림 69]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비중 추이	82
[그림 70]	정부 R&D예산 추이 및 계획	83
[그림 71]	수출금액, 수출단가, 수출물량 추이	84
[그림 72]	일평균수출액 추이 및 전망	85
[그림 73]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단가 추이	86
[그림 74]	무역수지 전망	87
[그림 75]	교역규모 전망	88
[그림 76]	재화 및 서비스 수출 추이	88
[그림 77]	상품수지 전망(BOP기준)	89
[그림 78]	서비스수지와 GDP대비 비중 전망	90
[그림 79]	명목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92
[그림 80]	전체 취업자 수 증감 추이	93
[그림 81]	산업별 취업자수 월별 증감 추이	93
[그림 82]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취업자수 증감 추이	94
[그림 83]	실업률 및 경제활동인구 추이	95
[그림 84]	대면서비스업종 및 제조업 고용 증감 추이	96
[그림 85]	중기 취업자수 증감 전망	97
[그림 86]	인구구조 변화 전망	98
[그림 87]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수	98
[그림 88]	재정지원 일자리 및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배분	99
[그림 89]	여성 및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추이	101
[그림 90]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102
[그림 91]	국제유가 및 석유류 가격 추이	102
[그림 92]	품목별 서비스물가 상승률 추이	102
[그림 93]	전월세가격 상승률 추이	103
[그림 94]	기대인플레이션과 임금수준전망CSI	106
[그림 95]	소비자물가 중기 전망	106

[그림 96] GDP성장률, 민간소비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107
[그림 97]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111
[그림 98] 국고채금리 추이	111
[그림 99] 국내 실물경제 전망	112
[그림 100] 한국, 미국, ECB 정책금리 추이	113
[그림 101] 한국 및 주요국 국채금리 추이	113
[그림 102] 원/달러 환율 추이	114
[그림 103] 외평채(5년 만기) CDS프리미엄 추이	115
[그림 104] 중기 국고채금리 전망	116
[그림 105] IMF의 중기 미국금리 전망	117
[그림 106] 원/달러 환율 중기 전망	117
[그림 107] 달러인덱스 추이	118
[그림 108] 원/달러 환율과 무역수지 추이와 전망	118
[그림 109] 투입요소별 잠재실질GDP성장률 기여도	125
[그림 110] 실질GDP성장률과 잠재GDP성장률	126
[그림 111] 실질GDP갭 추이 및 전망	127
[그림 112] 총노동투입 추이 및 전망	129
[그림 113] 생산인구 및 취업자수 전망	129
[그림 114]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추이 및 전망	130
[그림 115] 총고정투자 증가율 추이 및 전망	133
[그림 116] 자본재 형태별 고정투자 비중 추이 및 전망	133
[그림 117] 미국 실업률과 비농가취업자수 추이	142
[그림 118]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 추이 ...	143
[그림 119] 미국채금리 및 기간금리차 일별 추이	144
[그림 120] 주요 전망기관의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145
[그림 121] 미국의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146
[그림 122] 중국 GDP증가율 추이	147
[그림 123] 경제성장의 지출부문별 기여도	147
[그림 124] 중국 산업생산 추이	148
[그림 125] 수출입, 무역수지 추이	148
[그림 126] 소비자물가 및 식료품물가 추이	150
[그림 127] 근원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추이	150
[그림 128] 주요 국제기구의 중국경제 전망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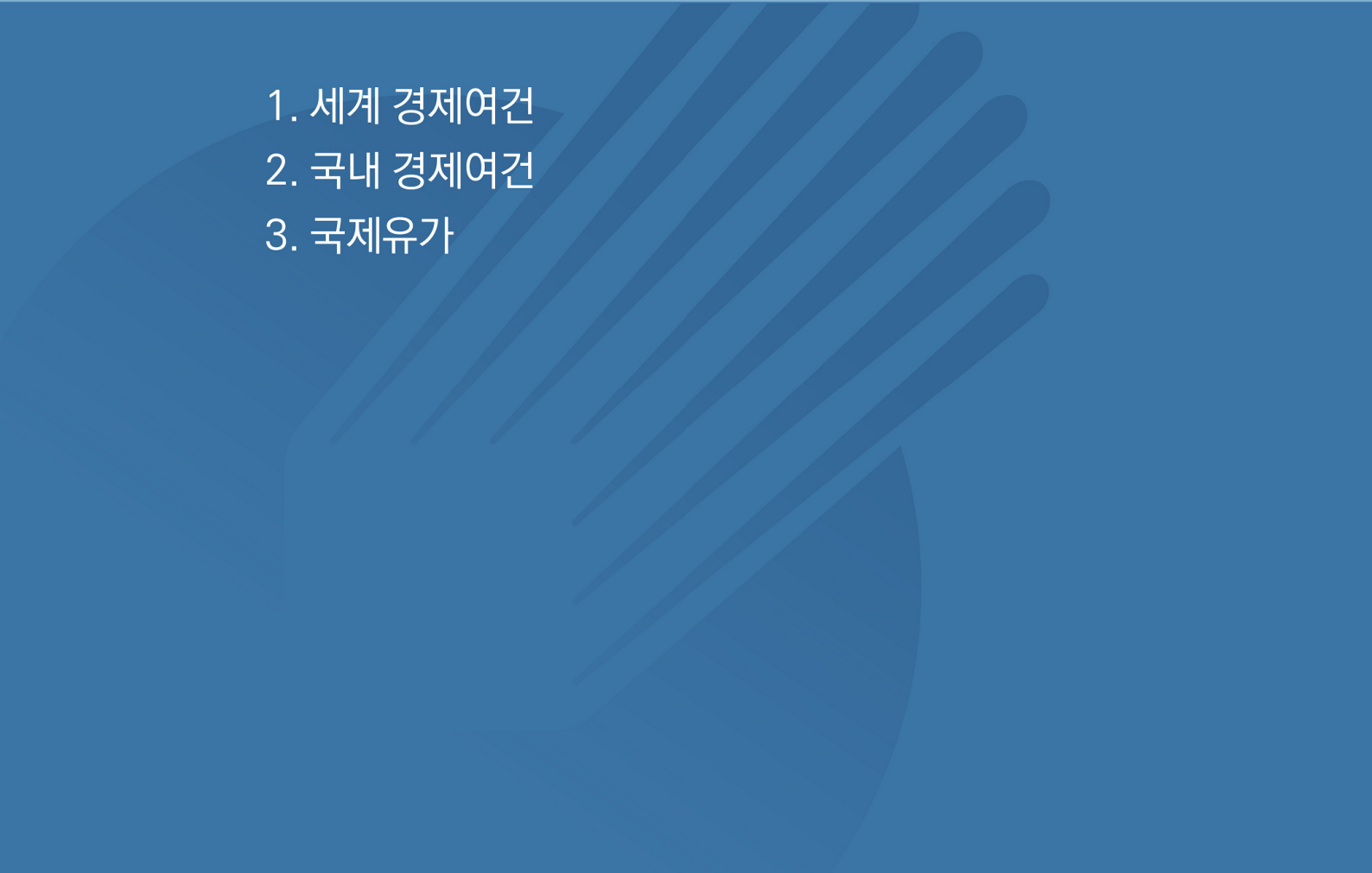
[그림 129] 유로지역 GDP성장률 추이	152
[그림 130] 유로지역 산업생산 추이	153
[그림 131] 유로지역 소매판매 추이	153
[그림 132] 유로지역 산업별 PMI 추이	154
[그림 133]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154
[그림 134]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추이	155
[그림 135] 유로지역 실업률 추이	155
[그림 136] 주요기관의 유로지역 2020년 및 2021년 경제전망	157
[그림 137] 일본 경제성장률 추이	158
[그림 138] 일본 실질소비활동지수 추이	159
[그림 139] 일본 비농업취업자수와 실업률 추이	160
[그림 140] 일본 PMI 추이	160
[그림 141] 주요 국제기구의 일본 경제전망	161
[그림 142] 브라질 부문별 성장률 추이	163
[그림 143] 브라질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추이	164
[그림 144] 브라질 환율 추이	164
[그림 145] 브라질 정책금리 추이	164
[그림 146] 러시아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	165
[그림 147] 국제원유가격과 러시아 루블화 환율 추이	166
[그림 148] 러시아 생산과 소매판매 추이	167
[그림 149] 러시아 PMI 추이	167
[그림 150] 인도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	168
[그림 151] 인도 산업생산 추이	168
[그림 152] 주요 국제기구의 브라질 경제전망	170
[그림 153] 주요 국제기구의 러시아 경제전망	171
[그림 154] 주요 국제기구의 인도 경제전망	173

박스 차례

[BOX 1]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 변화 추이	10
[BOX 2] 우리나라 2020~2024년 1인당 GDP 시산	32
[BOX 3] 2021년 코로나19 재확산 경우 국내경제성장률 추정	36
[BOX 4]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카드승인 실적 분석	52
[BOX 5] 건설수주액과 건설투자와의 공종별 시차 분석	64
[BOX 6] 온라인쇼핑 증가와 소비자물가 관계 분석	109
[BOX 7] 우리나라 생산자본스톡의 장기 추이의 특징	134
[BOX 8] 과거 경제충격 시 회복국면의 특징과 시사점	136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1. 세계 경제여건
 2. 국내 경제여건
 3. 국제유가

I

대내외 경제여건

I. 대내외 경제여건

1. 세계 경제여건

가.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 세계경제는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으로 역성장한 후 2021년 회복될 전망
 -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2020.6월) 보고서에서, 세계경제성장률은 2020년 4.9% 급락한 후, 2021년 5.4% 성장 전망
 - 2020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치 시행 등 경제 활동의 제약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침체되고 세계교역이 위축되면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성장률 하락을 보일 전망
 - 2021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다는 전제 하에 세계 각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은 2020년 -8.0%에서 2021년 4.8%로, 신흥개도국은 -3.0%에서 5.9%로 회복될 전망
 - IMF는 코로나19가 2021년 초에 재확산되는 비관 시나리오의 경우 세계경제성장률은 2021년 기본 시나리오 대비 4.9%p 하락한 0.5% 성장에 그치고, 빠른 경제회복을 가정한 낙관 시나리오의 경우 8.4% 성장할 것으로 전망

[표 1] IMF의 세계경제전망

(단위: %)

	2020년	2021년
전 세계	-4.9	5.4
선진국	-8.0	4.8
미국	-8.0	4.5
유로지역	-10.2	6.0
일본	-5.8	2.4
영국	-10.2	6.3
신흥개도국	-3.0	5.9
중국	1.0	8.2
인도	-4.5	6.0
브라질	-9.1	3.6
러시아	-6.6	4.1

주: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June 2020)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가장 최근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2020.9월)에서, 세계경제는 2020년 -4.5%, 2021년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
 - OECD는 세계경제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에서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지역 확산의 지속과 제한적인 경제활동 제약의 전제 하에 2021년 세계경제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OECD는 지난 6월 세계경제전망과 비교하여 2020년은 각국의 재정지원 정책 및 방역조치 효과 등을 반영하여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p 상향 조정한 반면,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0.2%p 하향 조정
 - 다만 2021년 세계경제는 국가별로 상이한 회복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대부분 국가의 GDP수준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GDP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표 2] OECD 세계경제전망

(단위: %)

	2020년	6월 전망대비 조정폭	2021년	6월 전망대비 조정폭
전 세계	-4.5	1.5	5.0	-0.2
G20	-4.1	1.6	5.7	0.2
미국	-3.8	3.5	4.0	-0.1
유로지역	-7.9	1.2	5.1	-1.4
일본	-5.8	0.2	1.5	-0.6
멕시코	-10.2	-2.7	3.0	0.0
브라질	-6.5	0.9	3.6	-0.6
중국	1.8	4.4	8.0	1.2
인도	-10.2	-6.5	10.7	2.8
러시아	-7.3	0.7	5.0	-1.0
남아프리카	-11.5	-4.0	1.4	-1.1

자료: OECD Interim Economic Assessment (September 2020)

□ 2021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의 전개양상과 연계된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전망 오차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

-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 여부,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둘러싼 불확실성, 글로벌 공급망 회복 정도, 소비와 투자 등 내수회복의 속도와 강도, 고용시장 이탈자의 재고용 가능성 등은 내년 세계경제성장 경로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거론

나. 세계교역량과 물가 전망

□ 세계교역신장률은 전망기관별 시나리오에 따라 2020년 전년대비 -31.9~ -9.5% 범위에서 급락한 후, 2021년에는 전년대비 2.5~24.0% 범위에서 증가할 전망

-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교역신장률 전망치를 낙관적 시나리오 경우에 2020년 12.9% 급락한 후, 2021년 21.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IMF는 2020년 세계교역신장률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규모 봉쇄조치로 세계교역량이 크게 위축되면서 전년대비 11.9% 감소하고, 2021년에는 세계 경기회복세로 수요가 점차 개선되면서 8.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경제권별로는 선진국이 2020년 13.4% 감소에서 2021년 7.2% 증가하고, 신흥개도국은 9.4% 감소에서 9.4% 증가 전환할 것으로 전망
- OECD는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전제한 싱글 히트 시나리오에서 세계교역 신장률이 2020년 9.5% 감소에서 2021년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3] 국제전망기관의 세계교역신장률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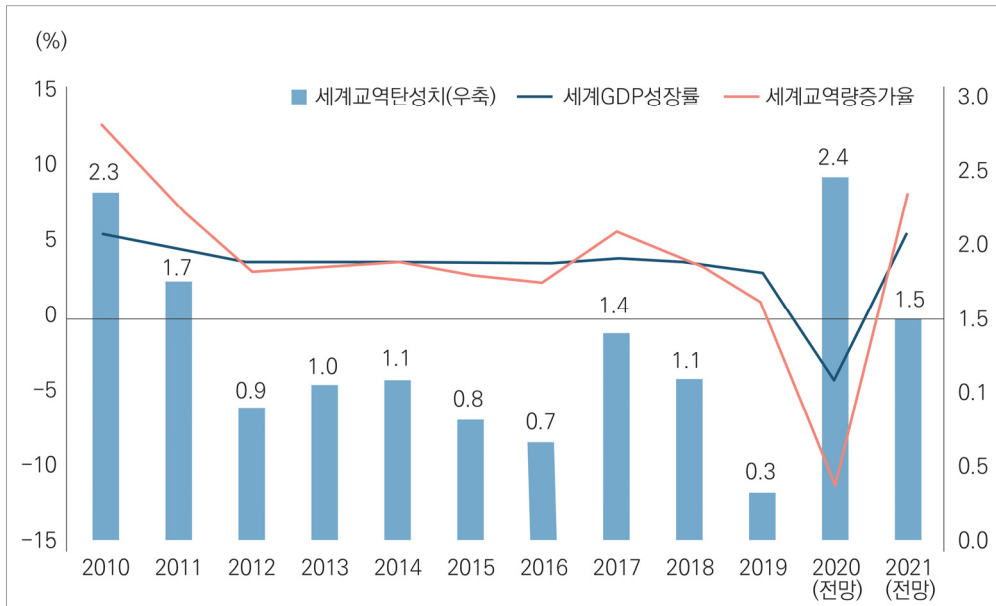
전망기관별		2020년	2021년
WTO (2020년 4월 전망)	낙관적 시나리오	- 12.9	21.3
	비관적 시나리오	- 31.9	24.0
IMF (2020년 6월 전망)		- 11.9	8.0
World Bank (2020년 6월 전망)		- 13.4	5.3
OECD (2020년 6월 전망)	싱글 히트 시나리오	- 9.5	6.0
	더블 히트 시나리오	- 11.4	2.5

주: WTO: 상품물량 기준, IMF, World Bank, OECD: 상품과 서비스의 합 물량 기준

자료: WTO, IMF, World Bank, OECD

- 세계경제성장률에 대한 세계교역신장률 비율로 구한 글로벌 교역탄성치 (Global trade intensity, IMF전망 기준)는 2010~2019년 기간 중 평균 1.1 수준이었으나, 2020년 2.4, 2021년 1.5로 이전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
 - － 글로벌 교역탄성치는 2020년이 2021년보다 더 큰 수치를 보여 경기침체에 세계교역신장률이 세계경제성장률 변화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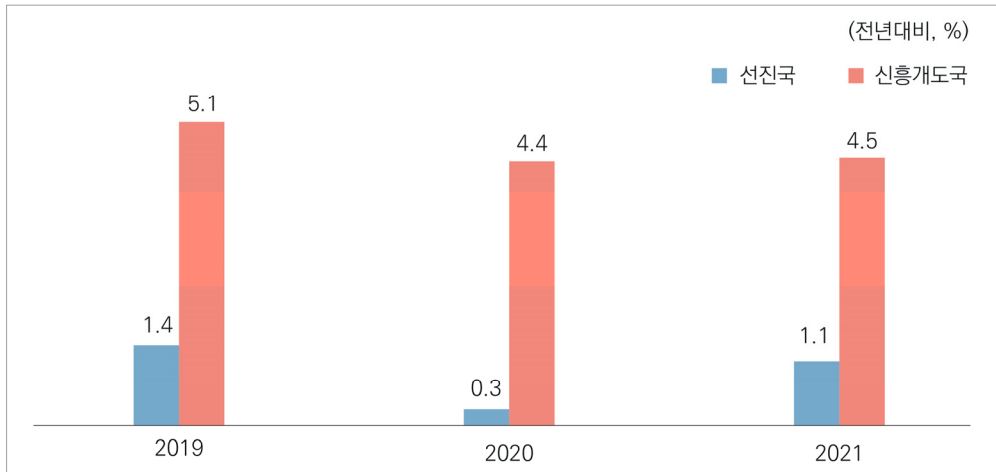
[그림 1] 세계교역탄성치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June 2020)

- 세계 인플레이션율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기침체와 총수요 부족으로 낮은 수준을 보일 전망
-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율은 2020년 0.3%에서 2021년 1.1% 상승하고, 신흥개도국은 4.4%에서 4.5%로 소폭 상승하여 신흥개도국의 상승폭이 작을 전망
 - 2021년에도 전반적인 세계 총수요압력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저물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회복 강도에 따라 2020년에는 선진국이 신흥개도국보다 물가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2021년에는 신흥개도국이 선진국에 비해 경기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물가상승폭이 선진국대비 낮게 나타날 전망

[그림 2]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June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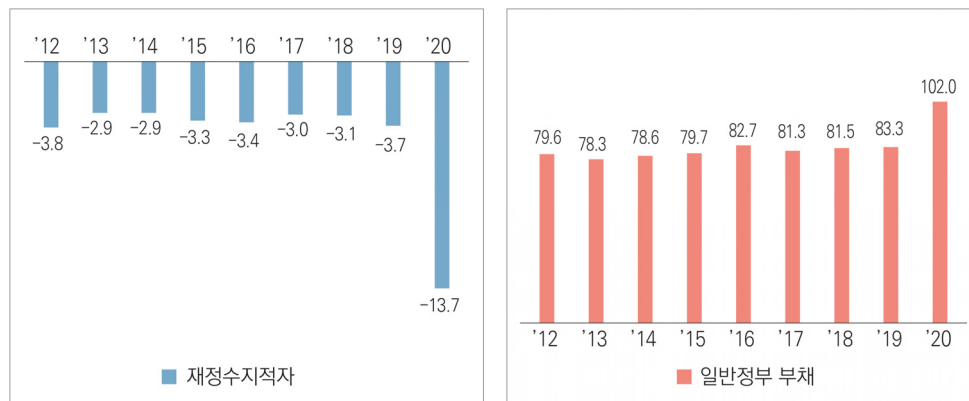
다. 세계경제의 위험요인

- 세계경제는 ①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 가능성 ② 미·중 무역분쟁 격화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③ 글로벌 정부부채 급증 ④ 기타 노딜 브렉 시트 가능성 등 위험요인을 수반
 - 코로나19 확산이 2021년에도 진정되지 않고 재확산 및 장기화 될 경우 경제 활동 제약에 따른 소비와 투자 등 수요위축, 기업 파산, 경제주체들의 심리 악화 등으로 세계경제침체가 지속
 - － 최근 OECD는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Assessment 2020.9월)에서 코로나19의 광범위한 재확산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하방리스크가 실현될 경우 2021년 세계경제성장률은 기본 시나리오(5.0%) 대비 2.5~3.0%p 하락하고, 세계교역신장률은 7%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지속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과 세계교역량 위축을 초래할 위험성은 증대
 - － 세계경제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세계교역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성과를 달성

-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이익 우선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 교역질서가 훼손되면서 세계교역신장과 세계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대
-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원책으로 재정수지적자와 정부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여, 만일 세계경기회복이 지연되거나 장기화되는 경우 재정취약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확대
- IMF 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GDP 대비 정부 재정수지적자와 부채 비중은 각각 13.7%와 120%로 전년대비 10%p와 18.7%p 급증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정부 재정수지와 정부부채가 급증했던 2009년 수준을 큰 폭 초과(2009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와 정부부채 비율은 각각 전년대비 4.9%p와 10.5%p 상승)

[그림 3] 글로벌 재정수지 적자와 부채 급증

(단위: 전 세계 GDP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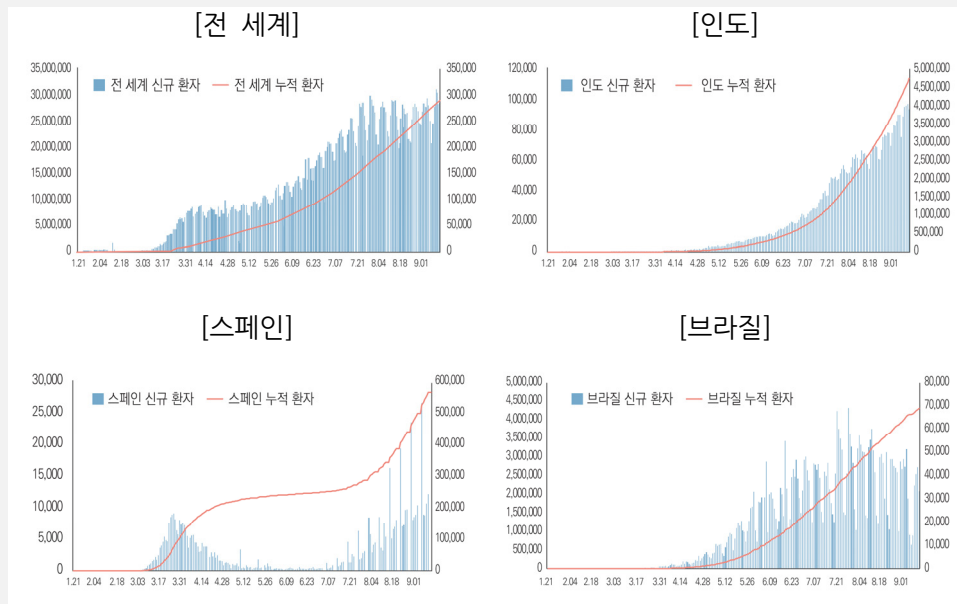
자료: IMF Fiscal Monitor(April and June 2020)

- 이외 영국이 유럽연합(EU)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현실화, OPEC+ 국가간 갈등과 분열 등도 세계경제의 위험요인

[BOX 1]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 변화 추이

- 세계보건기구(WHO)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20년 9.16일 현재 누적으로 2,944만 4,198명, 일일 확진자수는 26만 7,257명, 사망자 수는 93만 1,321명 수준
 - 지역별 누적 확진자수는 미국, 브라질 등 아메리카 지역이 가장 많으며 이어서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순
 - 누적확진자수: 미국 649만 6,246명, 인도 502만 359명, 브라질 435만 5,610명
- 최근 미국,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일일 확진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영국, 스페인, 인도 등에서는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양상
 - 영국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3,991명(9.16일)에 달해 지난 5.8일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
 - 스페인 중앙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9.2~ -5.2%에서 -12.6~-10.5%로 하향조정하고 2021년에는 낙관적 시나리오 7.3%, 부정적 시나리오 4.3% 성장 전망
 - 인도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500만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재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음

전 세계 및 주요국 코로나19 확진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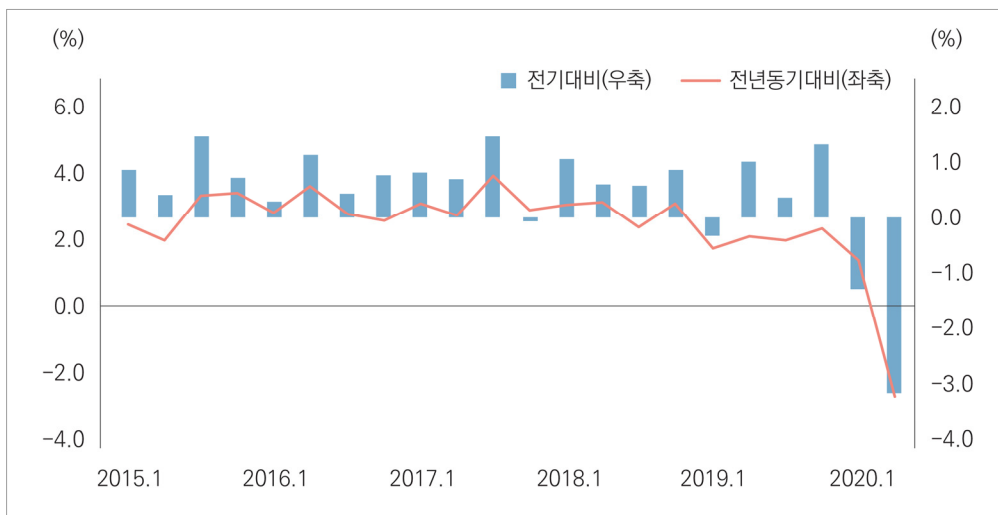
자료: WHO(2020.9월15일 현재)

2. 국내 경제여건

가. 경제성장률 추이

- 국내경제는 2020년 들어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으로 경제성장률이 급락
 - 1/4분기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위축
 -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충격으로 1/4분기 중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1.3% 급락
 - 3월에는 금융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어 경제주체의 소비 및 투자 심리의 위축요인으로 작용
 - 2/4분기 들어서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세계경제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전개
 - 글로벌 가치사슬의 훼손 위험으로 세계경제가 수요 및 공급의 양방향으로 충격을 받자 우리 경제도 실질GDP가 전기대비 3.2% 감소
 - GDP증가율(전기대비,%): (19.4/4분기)1.3 → (20.1/4분기)-1.3 → (2/4분기)-3.2
 - GDP증가율(전년동기대비,%): (19.4/4분기)2.3 → (20.1/4분기)1.4 → (2/4분기)-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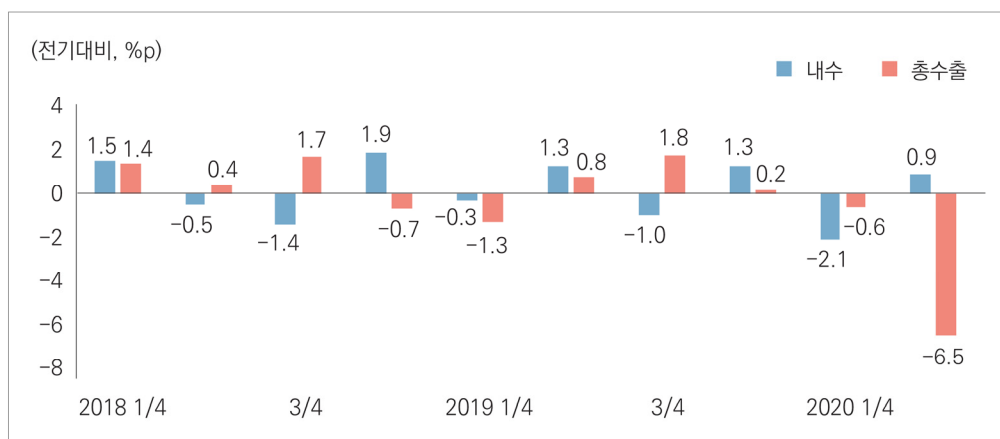
[그림 4] 실질GDP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 지출부문별로 보면 선진국의 일시적 업무중지(shut down),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강력한 방역조치 시행으로 민간소비가 큰 폭 감소
 - 수출은 중국과 선진국의 수입수요 축소, 글로벌 부품·소재 유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2020년 2/4분기 중 전기대비 16.1% 감소
 - 민간소비는 감염위험의 기피, 국외여행제한 등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1/4분기 중 전기대비 6.5% 감소했으나 2/4분기 중에는 정부의 자영업 및 가계 지원 대책 등에 힘입어 1.5% 증가
 - 수출과 민간소비의 감소는 국내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고정투자(설비 및 건설투자)도 부진
 - 수출(전기대비,%): (‘19.4/4분기)0.6 → (‘20.1/4분기)-1.4 → (2/4분기)-16.1
 - 민간소비(전기대비,%): (‘19.4/4분기)0.7 → (‘20.1/4분기)-6.5 → (2/4분기)1.5
 - 건설투자(전기대비,%): (‘19.4/4분기)8.0 → (‘20.1/4분기)0.5 → (2/4분기)-1.5
 - 설비투자(전기대비,%): (‘19.4/4분기)2.6 → (‘20.1/4분기)0.2 → (2/4분기)-0.5
- 성장기여도를 보면 1/4분기에는 내수 감소가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2/4분기에는 수출 감소가 더욱 큰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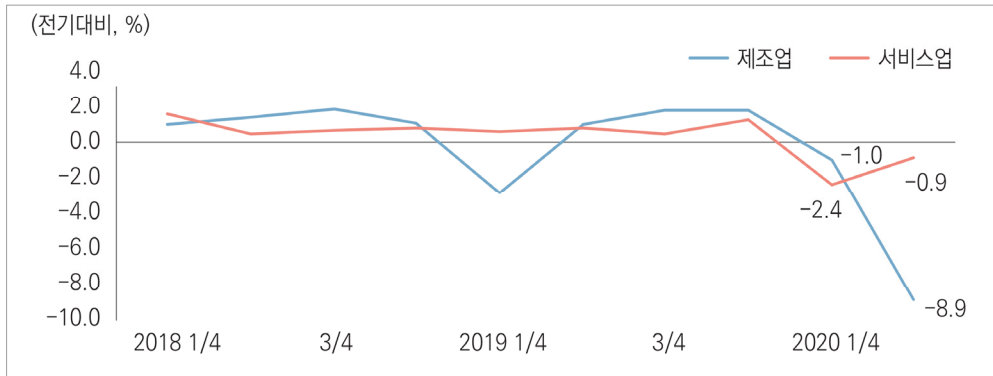
[그림 5] 내수와 총수출의 기여도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경제활동별로 보면 1/4분기 중에는 민간소비 의존도가 큰 서비스업, 2/4분기 중에는 수출 감소의 충격이 컸던 제조업에서 생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그림 6] 경제활동별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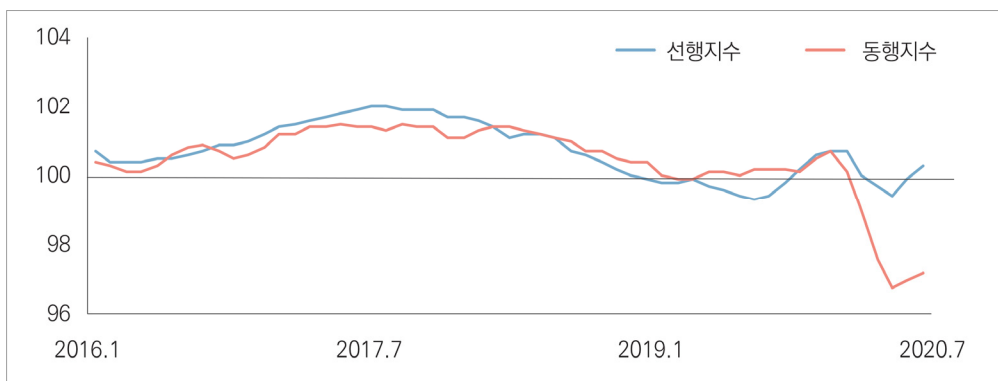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나. 경기 국면 진단

- 국내경기는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하강국면에 있으며, 지난해 연말 일시적으로 개선되기도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음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급락
 - 선행지수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6월부터 2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위치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20.5월)96.8 → (6월)97.0 → (7월)97.2
 - 선행지수순환변동치: (20.5월)99.4 → (6월)99.9 → (7월)100.3

[그림 7] 선행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추이



자료: 통계청

다. 내수와 수출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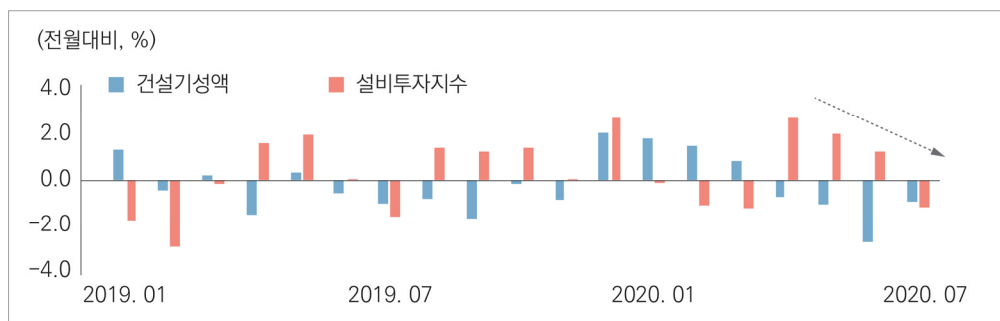
□ 민간소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여 다시 감소할 우려

- 정부의 방역단계가 일시적으로 격상(2단계 → 2.5단계 8.30~9.13일)되어 3/4분기 중에도 민간소비 위축요인으로 작용
- 또한 기상악화, 개별소비세의 인하혜택 축소도 일부 소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승용차, 가전 등 내구재 위축이 두드러지는 모습
 - 소매판매액(전월대비,%): (‘20.5월)4.6 → (6월)2.3 → (7월)-6.0
 - 내구재판매(전월대비,%): (‘20.5월)7.8 → (6월)4.0 → (7월)-15.4

□ 고정투자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주택투자 감소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

- 건설기성액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발주를 늘리고 있으나 확대규모가 크지 않고 주택경기 위축으로 부진한 양상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20.5월)-3.7 → (6월)-0.4 → (7월)1.5
 - 토목(전월대비,%): (‘20.5월)-8.3 → (6월)-2.3 → (7월)5.0
 - 건축(전월대비,%): (‘20.5월)-1.7 → (6월)0.3 → (7월)0.0
- 설비투자지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적교류 축소, 세계교역량 및 수출 감소, 미래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부진
 - 설비투자지수(전월대비,%): (‘20.5월)-6.5 → (6월)5.2 → (7월)-2.2
 - 기계류(전월대비,%): (‘20.5월)-2.2 → (6월)4.5 → (7월)2.3
 - 운송장비(전월대비,%): (‘20.5월)-16.8 → (6월)6.9 → (7월)-14.7

[그림 8] 건설기성액과 설비투자지수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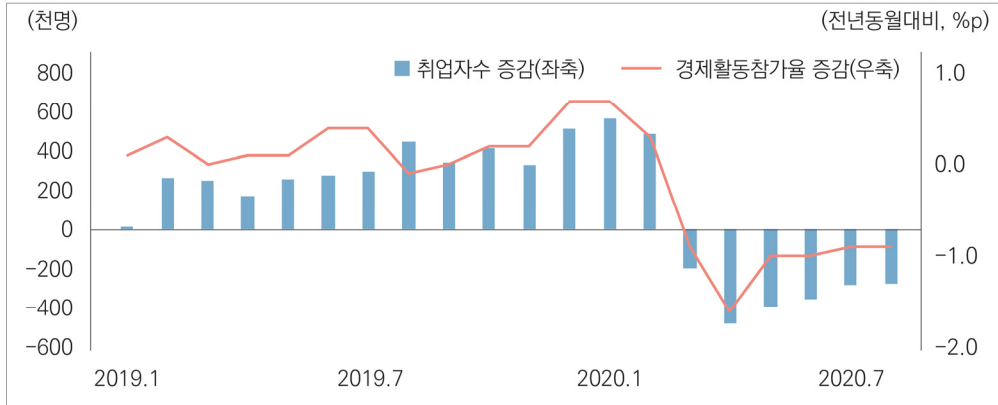
주: 건설기성액과 설비투자지수는 3개월 이동평균
자료: 통계청

- 수출은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른 해외수입수요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지속
 - 수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국 경기침체로 인해 철강, 일반기계, 화학, 석유화학, 자동차 업종 등이 부진
 - 다만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컴퓨터, 가전 등 비대면 관련 제품과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증가
 - 한편 경상수지는 지난 4월부터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 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흑자폭이 확대
 - 통관수출(전년동기대비,%): (‘20.6월)-10.8 → (7월)-7.1 → (8월)-9.9
 - 통관수입(전년동기대비,%): (‘20.6월)-11.2 → (7월)-11.6 → (8월)-16.3
 - 경상수지(억 달러): (‘20.6월)22.9 → (7월)68.8 → (8월)74.5

라. 고용과 물가 여건

- 2020년 들어 취업자 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취업시장이 악화되자 경제활동참가율도 하락
 -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을 보면 특히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으며, 수출부진으로 제조업도 감소세
 - 취업자수증감(천명): (‘20.6월)-352 → (7월)-277 → (8월)-274
 - 제조업증감(전년동기대비, 천명): (‘20.6월)-65 → (7월)-53 → (8월)-50
 - 서비스업증감(전년동기대비, 천명): (‘20.6월)-276 → (7월)-234 → (8월)-213
 - 구직단념 등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여 취업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오히려 연초 4.0%(계절조정)에서 8월 3.2%로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증감(전년동월대비,%p): (‘20.6월)-1.0 → (7월)-0.9 → (8월)-0.9
 - 실업률(계절조정,%): (‘20.6월)4.3 → (7월)4.2 → (8월)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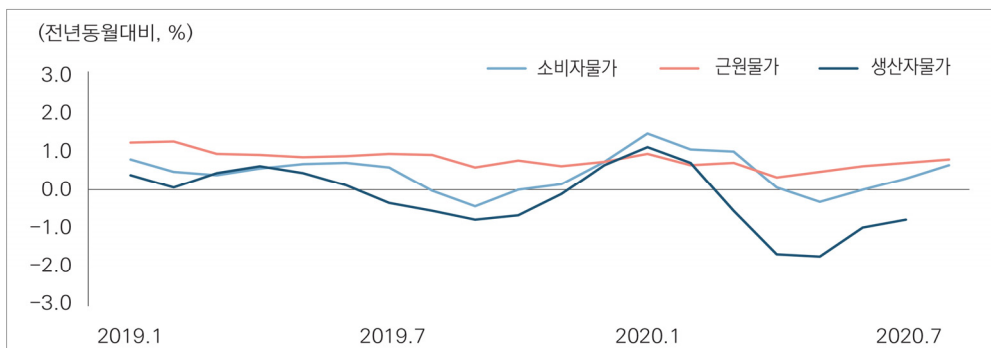
[그림 9] 취업자 수와 경제활동참가율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 물가는 계절적 요인으로 농축산물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안정, 국내외 경기침체로 낮은 수준을 지속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초 전년동월대비 1.5%에서 8월에는 0.7%로 둔화되었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에서 식료품및에너지 제외)은 0%대를 지속
 - 생산자물가는 3월부터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여 국내외 경기침체로 생산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 (20.7월)0.0 → (8월)0.3 → (7월)0.7
 - 근원물가(전년동기대비,%): (20.7월)0.6 → (8월)0.7 → (7월)0.8
 - 생산자물가(전년동기대비,%): (20.5월)-1.8 → (6월)-1.0 → (7월)-0.8

[그림 10] 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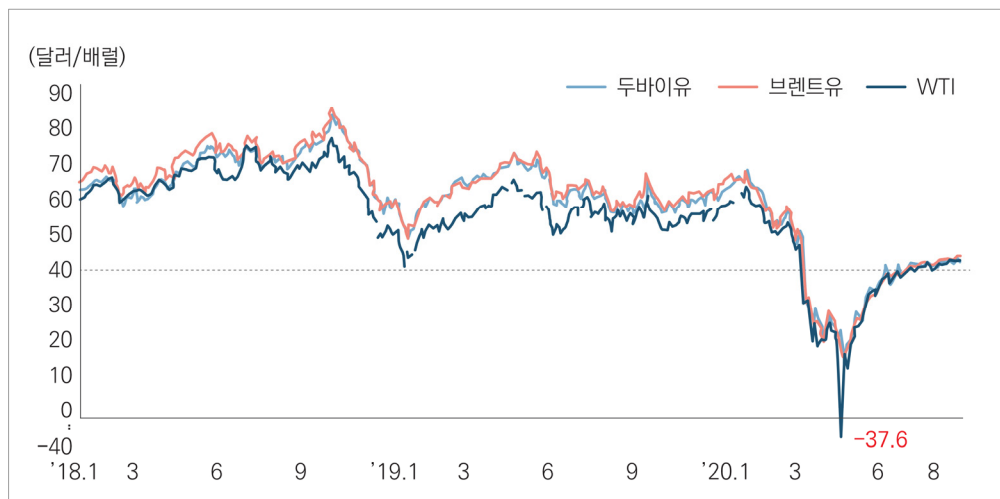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3. 국제유가

- 국제유가는 2020년 상반기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감소와 OPEC+의 감산 결렬 등으로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으나 점차 회복되는 모습
 - 국제유가는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침체로 원유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3월 중 OPEC+¹⁾의 감산합의 결렬로 원유의 초과공급이 나타나면서 배럴당 20달러대까지 하락
 - 2020년 3월말 기준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 가격은 각각 배럴당 23.3달러, 21.5달러, 20.5달러를 기록하며 2015~2016년의 저유가 기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

[그림 11] 국제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 4월 13일 OPEC+가 2022년까지 감산에 합의²⁾하면서 국제유가는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수요둔화와 원유 저장공간 부족문제 등으로 4월말 배럴당 20달러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하락

1) OPEC+는 OPEC 회원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비회원 산유국 10개 나라로 구성(비회원 산유국에 포함된 국가는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브루나이,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멕시코, 오만, 수단, 남수단)
 2) OPEC+는 4월 12일 임시각료회의에서 5월 1일~6월말 일평균 970만 배럴, 7월1일~12월말 일평균 770만 배럴, 2021년 1월~2022년 4월 580만 배럴 감산에 최종 합의

- 특히 WTI 가격은 원유 소비 감소와 원유 저장탱크 부족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5월 중 인도될 물량의 인수를 꺼리면서 4월 20일 기준 배럴당 -37.6달러로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
- 5월부터는 OPEC+의 감산, 중국의 원유수입 증가,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
- 국제유가는 4월을 저점으로 4개월 연속 상승하며 8월말 기준 3개 유종 평균 배럴당 43.8달러를 기록

□ 2021년 국제유가는 전년에 비해 원유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배럴당 40~50달러 범위에서 움직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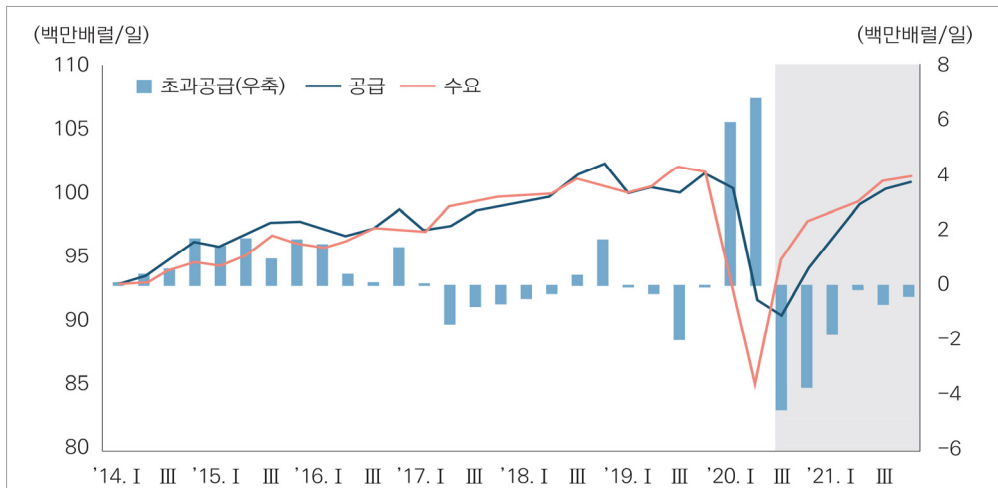
- 국제유가 전망기관들은 2020~2021년 유가수준이 2019년(배럴당 61.4달러) 보다는 큰 폭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주요 투자은행 평균 WTI 가격 전망치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배럴당 38.0달러, 44.0달러,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배럴당 42.0달러, 47.0달러(2020.8월말 기준)
- EIA는 2020년 WTI와 브렌트 유종의 평균 가격을 배럴당 40.0달러 2021년 47.5달러로 전망(2020.8월 기준)
- IHS Markit은 2020년과 2021년 브렌트유 가격을 각각 배럴당 42.4달러, 49.3달러로 전망(2020.8월 기준)

□ 2021년 원유시장은 수요가 차츰 회복되면서 초과공급 상황이 점차 해소될 전망

- EIA의 「Short term Energy Outlook」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원유수요 감소로 2020년 2/4분기 까지 큰 폭의 초과공급이 나타남
- 원유의 초과공급 규모(백만 배럴/일): (20.1/2분기)5.97 → (2/4분기)6.83 → (3/4분기 전망)-4.58 → (4/4분기 전망)-3.76
- EIA는 2020년 세계 원유수요가 일평균 9,314만 배럴로 전년대비 8.1% 감소하나 2021년에는 전년대비 7.0% 증가한 1억 17만 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OPEC의 8월 「Monthly Oil Market Report」에 따르면 2020년 원유 수요는 일평균 9,063만 배럴로 2019년 대비 9.1% 감소하고, 2021년에는 일평균 700만 배럴(7.7%) 증가한 9,763만 배럴을 나타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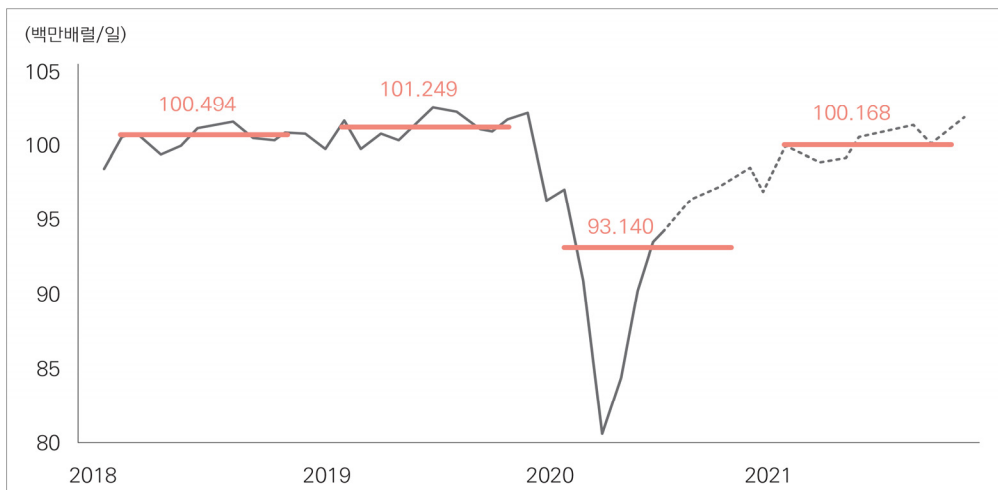
[그림 12] 원유의 수요와 공급 차이 및 전망



주: 2020년 3/4분기 부터는 전망치

자료: EIA

[그림 13] 전세계 원유 수요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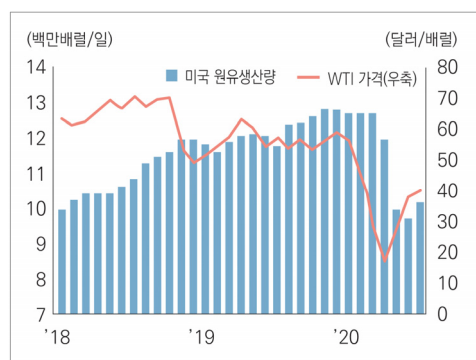


자료: EIA

-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및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원유 수요 회복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
 - 2020년 하반기 중에도 코로나 2차 확산과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원유수요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가능성
 - 하반기 들어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던 주요국에서 확진자수가 늘면서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
 - 최근 들어 주요국을 중심으로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 등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점 또한 원유수요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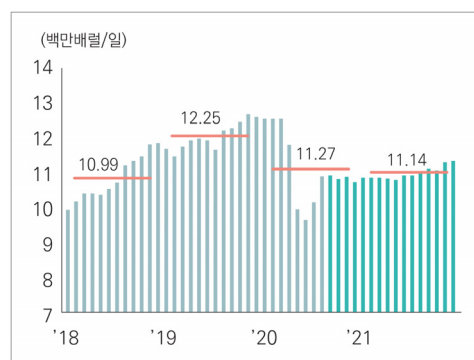
- 원유공급은 OPEC+의 순조로운 감산, 채산성 악화에 따른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 감축 등으로 2020년 3/4분기가 저점으로 예상되나, 공급차질 가능성도 상존
 - OPEC 공동감시위원회(JMMC)에 따르면 7월 OPEC+의 감산이행률은 97%로 나타나 감산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모습
 - 미국의 원유생산은 저유가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원유 시추기(rig) 수가 감소하고 생산량이 줄어들어 6월말 일평균 975만 배럴까지 하락
 - 8월말 기준 미국의 원유 시추기(rig)는 178개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그림 14] 미국 원유 생산량 및 WTI 가격



자료: EIA, Bloomberg

[그림 15] 미국 원유 생산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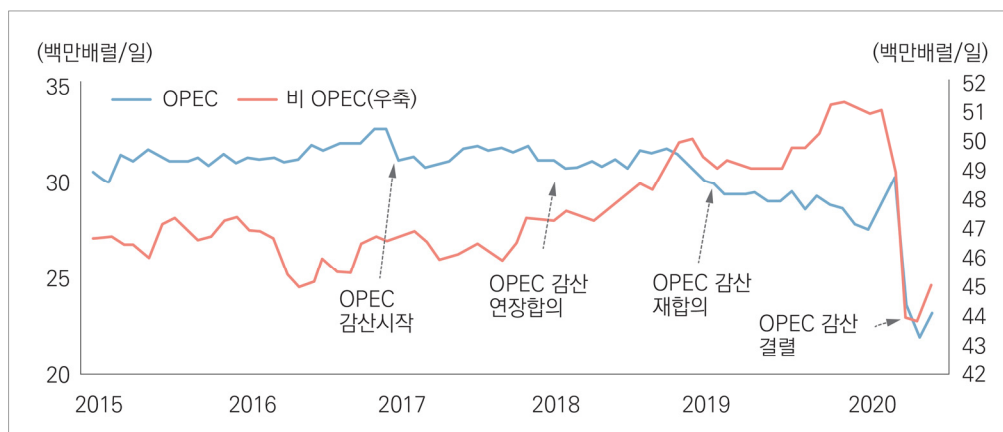


주: 2020년 하반기부터는 전망치

자료: EIA

- 다만, OPEC+ 감산 완화 가능성, 미국 셰일오일 산업의 위축, E&P (Exploration&Production) 기업들의 투자계획 축소 등은 공급측면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국제유가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7월 15일 OPEC 감산점검위원회는 석유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8월부터 일평균 770만 배럴(기존 970만 배럴)로 감산량을 축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생산 증대가 예상
 - 또한, 최근 저유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OPEC 회원국들이 감산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존
 - 미국의 원유생산은 2020년 하반기부터 유가 회복세에 따라 감소세를 멈출 것으로 보이나 시추 및 유정 완결 활동 위축, 셰일오일 업체들의 파산³⁾ 등으로 인해 2021년 중에도 생산증가가 불투명한 상황

[그림 16] OPEC, 비OPEC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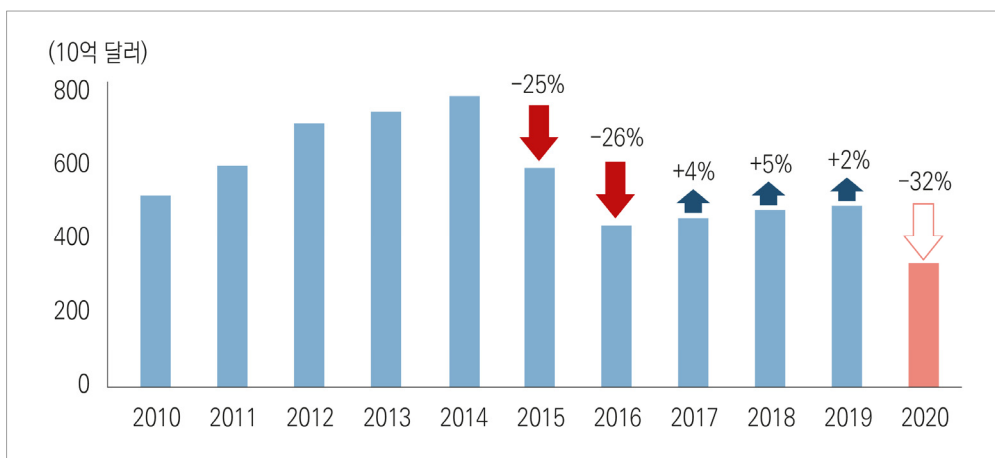


자료: Energy Intelligence Group, Bloomberg

3) 2020년 1분기 파산한 미국 에너지기업은 7개이며 업계에서는 유가가 셰일오일의 손익분기점인 배럴당 45달러 이하로 유지될 경우 향후 2년간 약 200개 이상의 셰일오일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파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코로나19 이후 석유시장 동향 및 전망”, 한국석유공사, 2020.7)

- 한편 저유가 영향으로 2015년부터 업스트림(원유 탐사·개발·생산 등)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지속⁴⁾하고 있으며 2020년 들어 유가급락에 따라 큰 폭(-32%)의 투자 감소가 예상
- 이와 같은 E&P 부문의 투자 감소는 향후 코로나19 종식 등으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 구조적 공급부족 등을 초래할 가능성

[그림 17] 전세계 업스트림 원유와 가스 투자 추이



주: 2020년은 예상치

자료: World Energy Investment 2020, IEA

4) 2014년 이후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원유 업스트림 투자가 2015년과 2016년 각각 25%, 26% 감소하는 등 신규 유전 발굴 및 생산 등이 지연됨. 2017년~2019년 유가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업스트림 투자는 4~6%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2014년 투자금액보다 여전히 3,000억 달러 낮은 수준에 불과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1. 경제성장률
2. 민간소비
3. 건설투자
4. 설비투자
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6. 대외거래
7. 고용
8. 물가
9. 금리·환율

II

2021년 및 중기 경제전망

Ⅱ. 2021년 및 중기 경제전망

1.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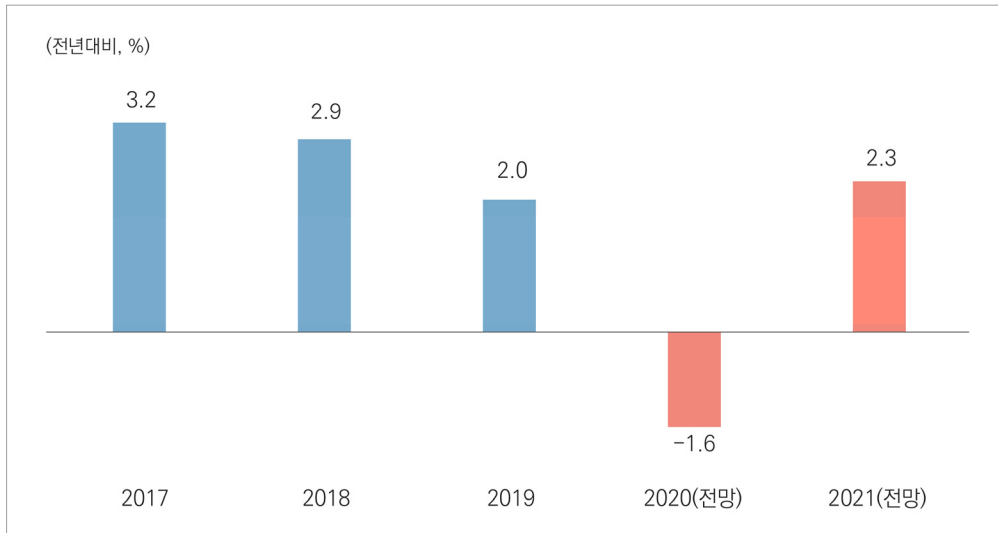
가. 2021년 전망

- 2021년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겠으나, 제한적인 회복세로 실질GDP 성장률은 2.3% 수준을 기록할 전망
 - 민간소비는 2020년 급락(-4.1% 전망)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는 가운데 서비스소비 부진의 완화 등 소비활동과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반등할 전망
 - 코로나19 확산이 점차 진정되면서 대면 서비스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소비심리 개선이 민간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
 - 다만 2021년 민간소비는 2020년의 큰 폭 감소에 따른 과급영향, 가계소득과 고용여건 개선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빠른 회복은 어려울 전망
 - 건설투자는 선행지표의 개선, 정부의 내년 SOC 예산 확대 등이 건설투자 증대 요인이나 상업용 등 비주거용 건물 부진이 당분간 이어지면서 2021년에도 소폭 감소할 전망
 - 건설투자는 2018년 -4.6%를 기록하며 수축국면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 -2.5%, 2020년 -0.6%(전망), 2021년 -0.3%(전망)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나 부진 정도는 완화

Ⅱ

2021년
중기
경제
전망
및

[그림 18] 실질GDP 성장률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IT부문을 중심으로 투자확대가 지속되겠으나, 비IT부문은 업황개선 미흡과 불확실성 등으로 대체투자 혹은 제한적인 신규투자에 머무를 전망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민간 R&D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코로나19로 수요가 늘어난 온라인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총수출(물량)은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던 주요국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세계교역량이 확대되고 경기회복으로 해외수입수요가 증대하면서 반등할 전망
 - 다만 서비스수출은 내년 외국인 방한객의 제한적인 증가로 재화수출보다 여전히 낮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
 - 수입(물량) 또한 국내 경기회복세에 따라 상품수출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

[표 4] 2020~2024년 국내 경제전망

(단위: %, 억 달러, 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내총생산	2.0	-1.6	2.3	2.8	2.4	2.3
민간소비	1.7	-4.1	3.1	2.5	2.1	2.0
설비투자	-7.5	2.5	2.7	4.6	2.8	2.4
건설투자	-2.5	-0.6	-0.3	0.7	1.3	1.4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0	2.9	3.2	4.7	3.7	3.4
총수출	1.7	-5.5	3.6	3.4	2.4	2.1
총수입	-0.6	-4.5	4.6	4.0	2.8	2.4
경상수지(억달러)	600	540	555	520	490	470
상품수출(통관)	-10.4	-9.8	7.5	5.5	3.1	2.9
상품수입(통관)	-6.0	-9.3	7.3	4.9	3.0	2.7
실업률	4.0	4.1	4.0	3.8	3.9	3.9
소비자물가	0.6	0.5	1.0	1.2	1.2	1.3
국고채금리(3년만기)	1.5	1.0	1.3	2.0	2.3	2.2
원/달러 환율(기준환율)	1,166	1,200	1,184	1,166	1,154	1,142
GDP디플레이터	-0.9	0.6	1.1	1.1	1.1	1.3
명목국내총생산	1.1	-1.0	3.4	3.9	3.5	3.6

주: 2020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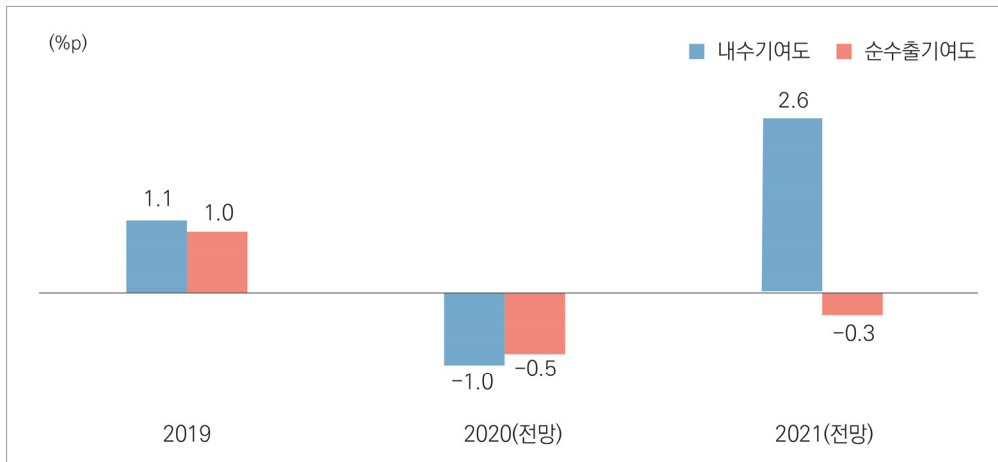
- 2021년 실질GDP 성장률에 대한 내수와 순수출의 기여도는 각각 2.6%p와 -0.3%p를 나타내어 내수가 성장을 견인
-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2020년 큰 폭 감소에서 2021년 증가로 전환하면서 2020년 -2.0%p(전망)에서 2021년 1.5%p(전망)로 크게 확대
 -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 또한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 재정지출 확대 정책으로 과거(2010~2018년 평균 0.6%p)에 비해 높은 1.1%p 수준을 기록할 전망
 -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2021년 성장기여도는 각각 0.2%p로 전망

II

2021년
중기 경제전망
및

- 반면,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기여도는 총수입 증가율이 총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
 - 순수출의 성장기여도(%p): (2020년) -0.5%p(전망) → (2021년) -0.3%p(전망)

[그림 19]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2021년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는 코로나19의 전개양상과 세계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편임
 - 본 경제전망의 기본 시나리오는 코로나19 확산이 내년부터 진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만일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확산 정도와 지속 기간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 전망 오차도 커질 전망
 - 코로나19의 전개양상 외에도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심화될 경우 이는 세계교역을 위축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수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
- 2021년 명목GDP 성장률은 3.4%를 기록할 전망
 - 2021년 명목GDP 성장률은 경기회복세와 GDP디플레이터 상승에 힘입어 2020년 역성장(-1.0% 전망)에서 3%대 중반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
 - 2021년 명목GDP성장률(3.4%) = 실질GDP 성장률(2.3%) + GDP디플레이터 상승률(1.1%)

- 2020년 명목GDP 성장률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실질 GDP가 전년대비 하락하고 낮은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에 기인하며 1998(-0.9%) 이후 사상 두 번째로 역성장(-1.0% 전망)을 기록할 전망

[표 5] 명목GDP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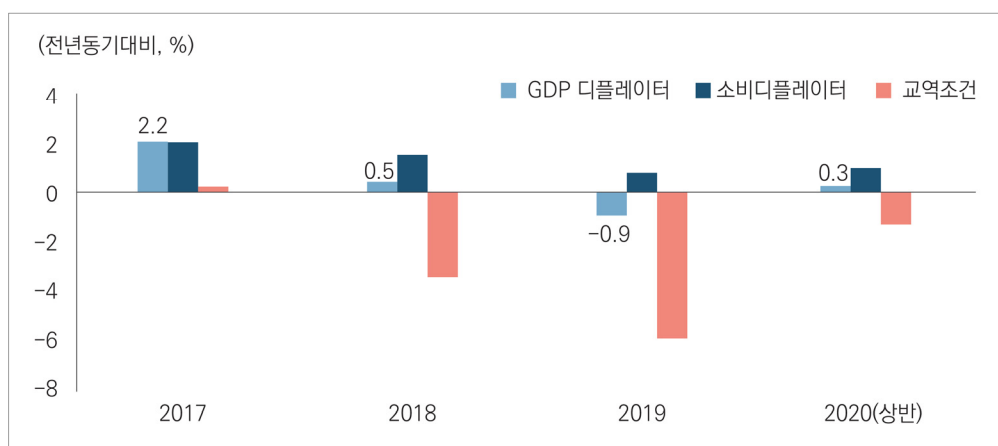
(단위: 전년대비 증가율,%)

	2018	2019	2020 (전망)	2021 (전망)
실질GDP 성장률	2.9	2.0	-1.6	2.3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0.5	-0.9	0.6	1.1
명목GDP 성장률	3.4	1.1	-1.0	3.4

주: 소수점 처리에 따라 실질GDP 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 합이 명목GDP 성장률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1년 GDP디플레이터 상승은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디플레이터 상승과 교역조건 개선에 주로 기인할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민간소비 디플레이터는 내년 물가 오름세에 따라 상승할 전망
 - 2018년부터 악화되어 온 교역조건은 반도체가격이 2020년 3/4분기 이후 전년대비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개선세를 나타낼 전망

[그림 20] GDP디플레이터, 소비디플레이터, 교역조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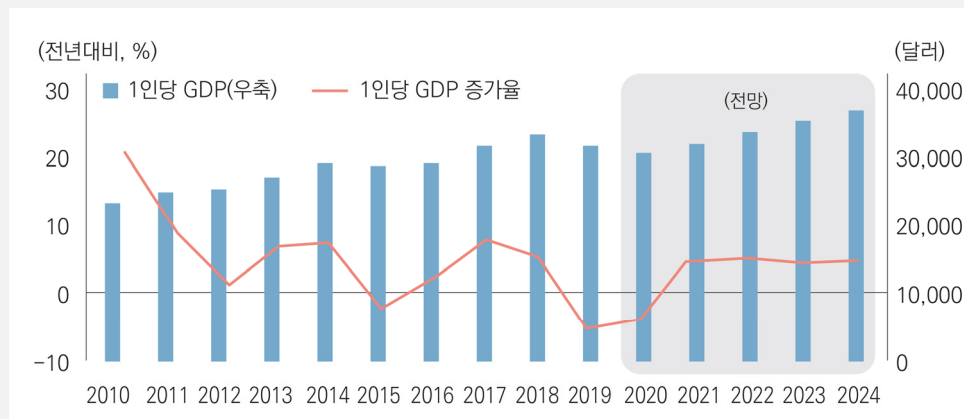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BOX 2] 우리나라 2020~2024년 1인당 GDP 시산

- 우리나라의 2021년 달러 기준 1인당 GDP는 32,023달러 수준을 기록할 전망
 - 2021년 1인당 GDP는 경기회복세와 원화가치 상승에 힘입어 2019~2020년 2년 연속 하락에서는 벗어날 전망
 - 1인당 GDP는 지난 2018년 33,429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9년(31,838달러, 원화가치 하락)과 2020년(30,582달러 전망, 명목GDP 감소 및 원화가치 하락)에 걸쳐 2년 연속 감소
 - 2021년 1인당 GDP는 명목GDP(전년대비 3.4%)와 원화가치(전년대비 4.7%) 상승으로 2020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나, 2018년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2024년 1인당 GDP는 36,970달러 수준으로 시산
 - 이는 2020~2024년 기간 중 연평균 명목GDP 성장률과 원화가치 상승률을 각각 2.7%와 0.4%를 적용한 결과임
 - 1인당 GDP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0~2019년 기간 중 5.4% 수준에서 2020~2024년 기간 중 3.1% 수준으로 둔화될 전망(역성장이 예상되는 2020년을 제외할 경우 4.9% 수준)
 - 다만 이와 같은 1인당 GDP 시산은 주요 경제변수에 대한 전망치가 변화할 경우 실제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2020~2024년 기간 중 1인당 GDP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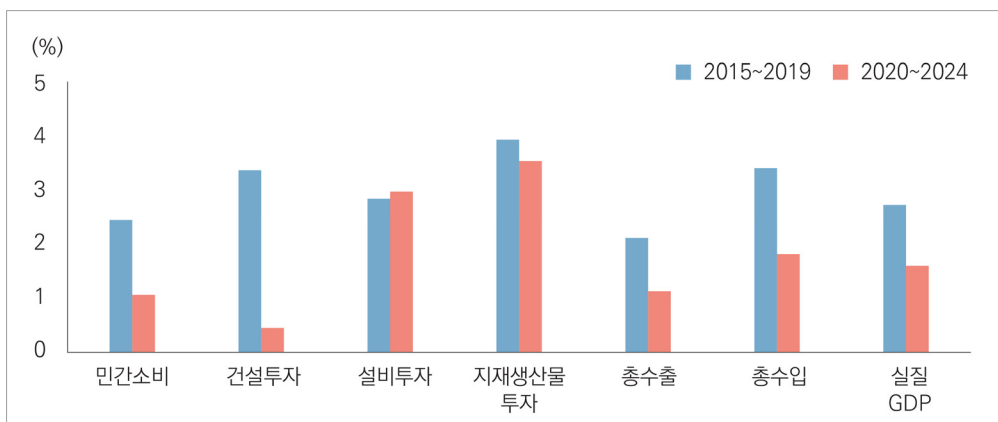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나. 중기 전망

□ 2020~2024년 기간 중 실질GDP는 연평균 1.6% 성장 전망

- 실질GDP 성장률은 지난 5년간(2015~2019년) 연평균 2.8%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20~2024년 기간 중에는 2020년 역성장(-1.6% 전망)이 크게 반영되며 연평균 1.6% 수준으로 하락 전망(2020년을 제외한 2021~2024년 기간 중 연평균 2.5% 성장)
 - 향후 5년 중기 시계상의 실질GDP 성장률 흐름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2020년 역성장을 기록하고 2021년부터 회복국면에 진입하여 2022년 2.8% 고점을 형성한 후 점차 둔화될 전망
 - 2020년 경기침체는 중기 성장 경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특히 민간소비의 경우 2020년 급락한 충격으로 2021년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그림 21] 국내총생산과 지출부문별 중기 성장 전망(5년 단위 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 2020~2024년 기간 중 실질GDP 성장률에 대한 내수 부문별 성장기여도는 이전 5년(2015~2019년)과 비교하여 정부소비와 설비투자는 상승하는 반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하락할 전망
 -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p): (2015~2019년)1.2 → (2020~2024년)0.5
 -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p): (2015~2019년)0.8 → (2020~2024년)1.0

-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p): (2015~2019년)0.2 → (2020~2024년)0.3
-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p): (2015~2019년)0.5 → (2020~2024년)0.1

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

- 2021년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3%와 3.6%로 1.3%p의 큰 격차 발생(2020년 국회예산정책처 -1.6%, 정부 0.1%)
 - 정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0년 하반기부터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 추경 등 정책효과 등으로 내수가 완만히 회복되고, 2021년에는 코로나19 진정 및 글로벌 경기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
 - 2021년 GDP 세부항목별로는 국회예산정책처와 비교해 정부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개선 폭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표 6]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2021년 실질GDP 구성항목별 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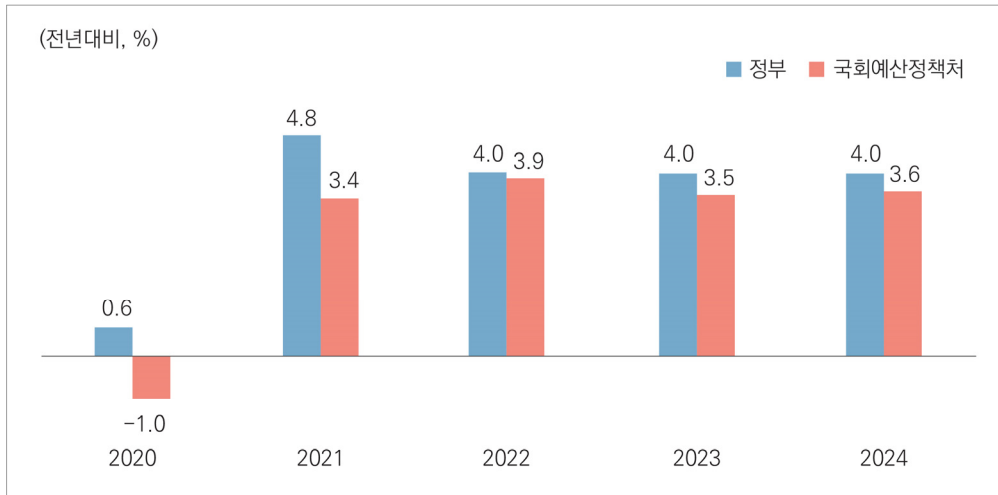
(단위: 전년대비 증가율,%)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실질GDP	2.3	3.6
민간소비	3.1	4.5
설비투자	2.7	6.0
건설투자	-0.3	0.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2	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2020.9

- 중기적 시계인 2020~2024년 기간 중 연평균 명목GDP 성장률 전망치는 국회예산정책처 2.7%, 정부 3.5%로 0.8%p 격차를 보임
 - 특히 2020~2021년 기간 중 격차는 GDP디플레이터 상승률보다 실질GDP 성장률 전망 차이에 주로 기인
 -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전망(2020년, 2021년): 국회예산정책처(0.6%, 1.1%), 정부(0.5%, 1.2%)

[그림 22]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명목GDP 성장률 전망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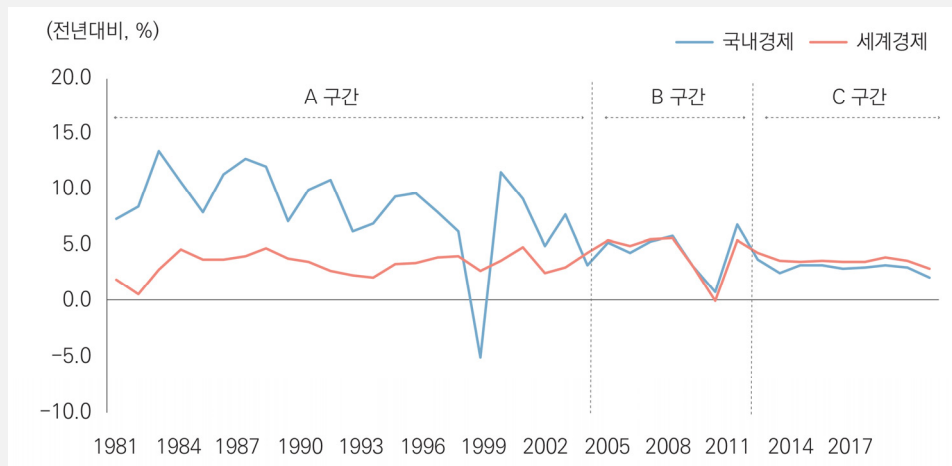
2021년
중기 경제전망
및

[BOX 3] 2021년 코로나19 재확산 경우 국내경제성장률 추정

□ 세계경제 성장에 영향을 크게 받는 우리 경제 구조

-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음
- 이를 시기별로 구분해보면 국내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의 양상에 차이가 발생
 - 1981~2003년 기간: 세계경제성장률에 비해 국내경제성장률이 현저히 높음
 - 2004~2010년 기간: 세계경제성장률과 국내경제성장률의 추세가 근접
 - 2011~2019년 기간: 국내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률을 하회
- 국내경제의 경기변동(단기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요인, 장기 추세는 국내경제요인에 의해 주로 좌우
 - 세계경제성장률이 대체로 0~5% 구간에서 변동하는 반면 국내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 하락추세
 - 국내경제성장률의 추세가 세계경제성장률의 추세를 하회하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국내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또한 표준편차로 계산된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을 보면 1981~2003년 기간에는 국내경제의 변동성이 세계경제의 변동성에 비해 뚜렷이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양자의 변동성 값이 유사하여 2000년대 들어 세계경기의 변동이 국내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음

국내경제 및 세계경제성장률 추이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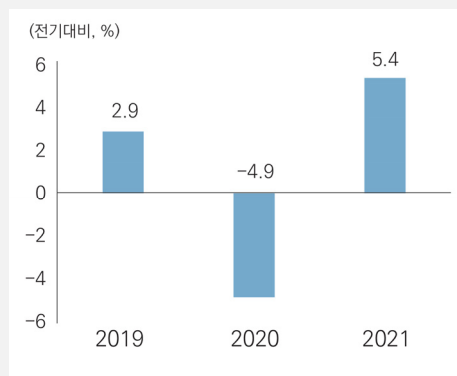
구분	A구간		B구간		C구간	
	1981~2003년		2004~2010년		2011~2019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국내경제	8.2	4.3	4.5	1.9	2.9	0.5
세계경제	3.3	1.0	4.2	1.9	3.6	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IMF

□ IMF의 2021년 세계경제 시나리오

- IMF는 2020년 6월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세계경제성장률을 2020년 -4.9%, 2021년 5.4%로 발표
- 기본시나리오 외에 2가지 시나리오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발표
 - 첫째, 낙관시나리오는 올해 하반기부터 코로나19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경제주체들이 감염위험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전망치 보다 빠른 성장을 나타낸 경우로 IMF는 기본시나리오에 비해 3.2%p 상승할 것으로 추정
 - 둘째, 비관시나리오는 2021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발생한 경우. 다만 코로나19 확산세는 2020년에 비해 1/2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가정하여 기본시나리오에 비해 4.6%p 하락할 것으로 추정
 - 2021년 5.4%를 기본시나리오로 볼 때 IMF는 2021년 세계경제성장률을 낙관적인 경우 8.6%, 비관적인 경우 0.8%로 전망

IMF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IMF 시나리오별 전망



주: 시나리오 전망은 베이스라인으로부터 편차를 의미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n. 2020.

□ 2021년 코로나19 재확산 시 2021년 국내 경제성장률 추정

- 2021년의 경우 만약 IMF의 비관시나리오처럼 코로나19의 전 세계 재확산이 발생하는 경우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하여 국내 경제성장률을 추정
 - 추정에 포함된 내생변수로는 교역조건, 총수출, 소비자물가, 내수(총소비, 고정투자자의 합), 실질GDP를 선정
 - 외생변수는 세계경제성장률(IMF 전망치)을 이용하였으며, 또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세계경제성장률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비교 시 구분되는 3가지 구간을 우리나라에서 내부적 구조변화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해당 구간을 구분하는 더미변수를 포함
 - 추정기간은 1981~2019년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장기하락 양상을 고려하여 공적분항에 추세치를 변수로 포함
-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추정결과, 추정식 내 5개의 변수로 구성된 공적분항이 다음 표와 같이 장기적인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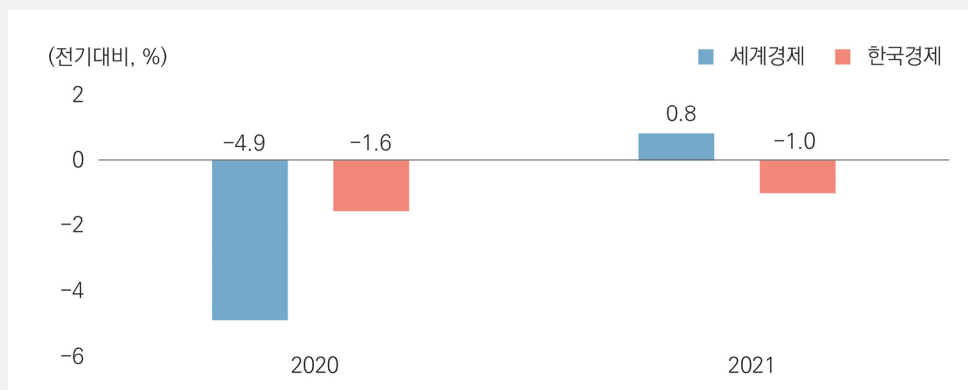
오차수정모형 내 공적분항의 계수 추정치

교역조건	총수출	소비자물가	내수	실질GDP	상수	추세치
1.00	1.41 (5.80)	3.69 (4.79)	1.62 (2.23)	-7.12 (-5.16)	36.15	0.07 (4.01)

주: 괄호는 t-value, 내생변수에 로그를 취한 값임

- 위의 추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IMF의 비관시나리오와 같이 코로나19 재확산이 2021년에도 나타날 경우를 가정하면 우리 경제는 2021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
 - IMF의 비관시나리오에 따르면 2021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세계경제가 0.8% 성장할 것으로 추정(기본시나리오에 비해 4.6%p 하락)
 - 이 경우 2021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0%로 추정됨
 - 수출과 내수의 감소가 전년에 이어 지속되어 2020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는 2020년(0.5% 상승 전망)과 달리 소폭 하락 반전하는 것으로 나타남

IMF 비관시나리오에 따른 2021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주: 1. 2020년은 국회예산정책처(한국경제) 및 IMF(세계경제) 전망

2. 2021년은 IMF(세계경제) 비관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오차수정모형결과(한국경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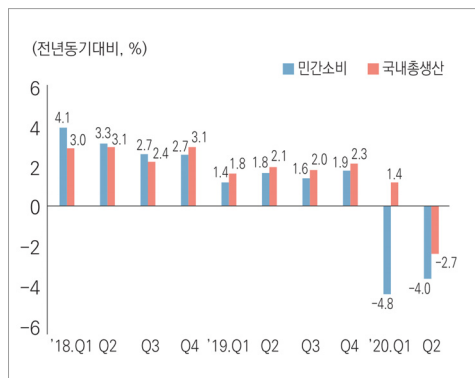
2. 민간소비

가. 2021년 전망

□ 2020년 상반기 중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큰 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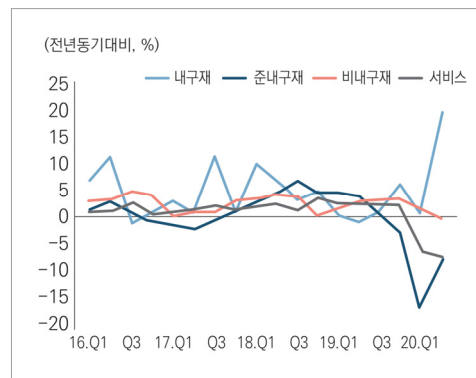
- 2020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1/4분기 -4.8%, 2/4분기 -4.0%(전년동기대비)를 기록하여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서비스업 소비는 운송업, 음식숙박업, 오락문화 등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업종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1/4분기, 2/4분기 각각 전년 동기대비 6.1%, 7.4% 감소
 -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자제, 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의복, 신발 및 가방 등 준내구재의 소비도 감소하여 1/4분기와 2/4분기 각각 -16.7%, -7.8%를 기록
 - 반면 내구재의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⁵⁾ 및 노후차 교체지원⁶⁾ 정책에 따른 승용차 판매 증가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정책⁷⁾에 따른 가전제품 판매 증가로 1/4분기와 2/4분기 각각 1.1%, 19.7%를 기록

[그림 23] 국내총생산과 민간소비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24] 재별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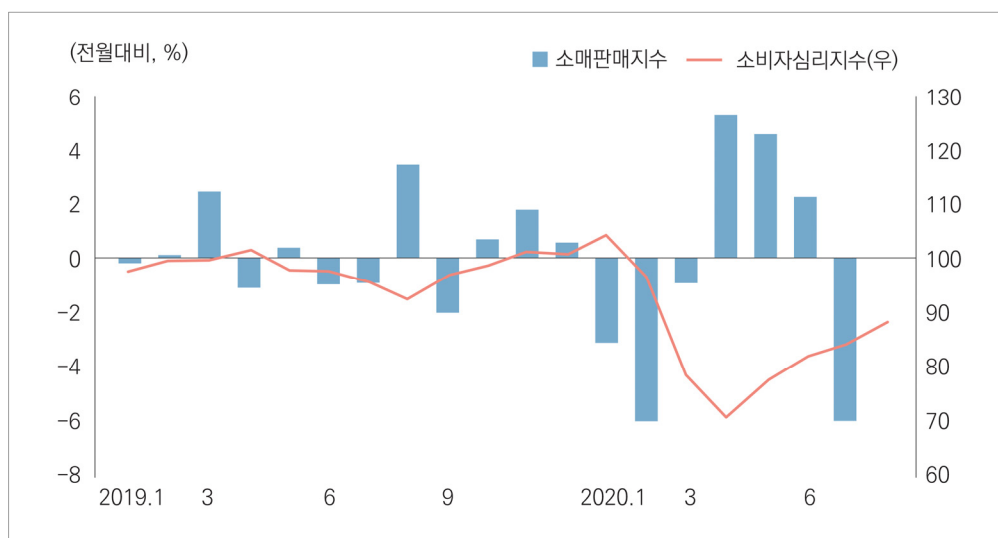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5) 2020년 3~6월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7~12월까지 30% 인하
- 6) 10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해 폐차 후 신차구입시 1~6월 중 개별소비세를 70% 감면
- 7)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정책으로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 가능

- 소비자심리지수는 1월말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며 4월 중 2008년 금융위기보다 악화된 70.8을 기록
- 금년 하반기 중 민간소비는 상반기 중 시행된 정책효과 종료, 8월 중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 고용부진과 임금상승률 둔화에 따른 가계의 소득여건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회복세를 보이기에는 어려울 전망
 - 하반기 중 민간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폭 축소, 5월부터 지급된 재난지원금 소진 등 정책효과가 축소되면서 위축될 전망
 - 실제로 정책효과가 축소된 7월 중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6.0% 감소
 - * 7월 중 승용차 및 가전제품 판매가 각각 전월대비 18.7%, 24.7% 감소
 - * 의복, 신발 및 가방 등 준내구재 판매는 3개월 연속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난 가운데 외부활동이 감소하고 장마가 지속되면서 전월대비 6.5% 감소

[그림 25]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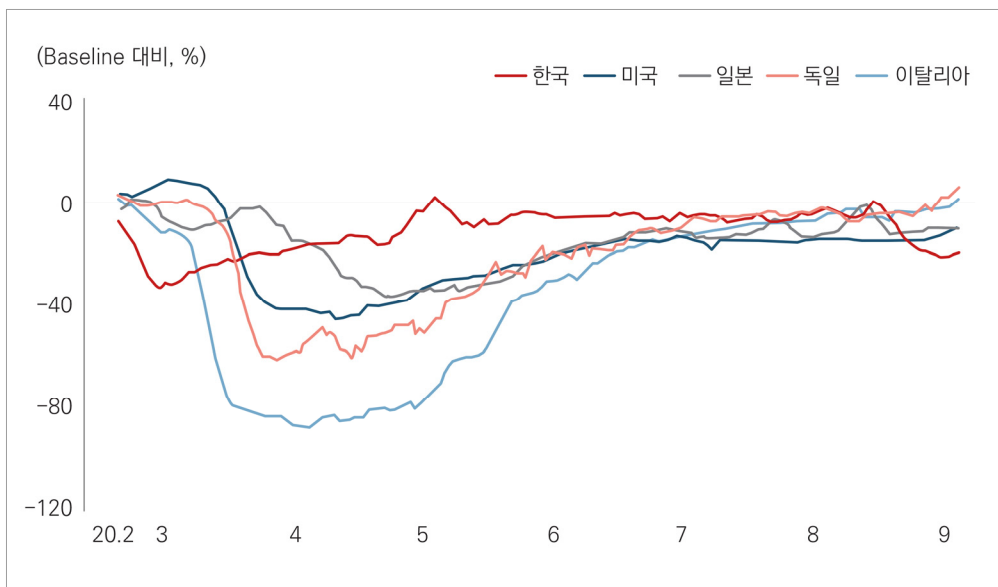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으로 소비심리 개선도 어려울 전망
- * 하반기 중 소비심리는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 소비자심리지수는 4월 70.7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5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하며 체감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8월말 현재 88.2⁸⁾로 여전히 기준선을 하회
-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8월 중순 이후 구글에서 집계하는 우리나라의 소매 및 여가(retail and recreation) 이동량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

[그림 26] 국가별 구글 이동지수(소매 및 여가부문)



주: Baseline 은 2020년 1월 3일~2월 6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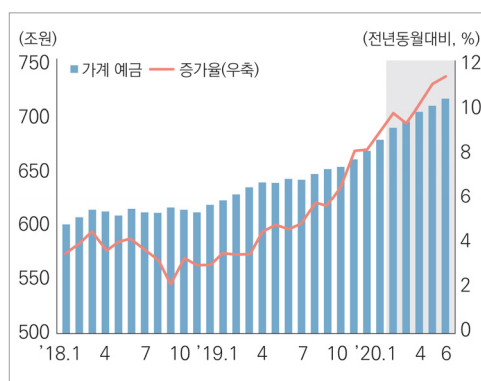
자료: Google COVID19 Community Mobility Index

- 취업자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반기 중 6.0만명 감소하여 하반기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을 제약
- 또한, 2020년 상반기 중 실질 및 명목임금 상승률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1%, 0.5%로 나타나 임금개선을 통한 가계의 소득증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8)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4일까지의 조사결과로 8월 중순 이후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9월 중 소비심리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9) 2020년 1/4분기 중 실질 및 명목 임금은 코로나19 및 최저임금 상승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1인 이상 임금이 공표된 2011년 이후 최초 감소

- 다만, 3차 추경을 통한 부양책의 효과가 하반기 중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은 소비에 긍정적 역할
- 2021년 민간소비는 소비활동 및 소비심리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전년도 큰 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3.1% 증가할 전망
 - 2020년 중 코로나19의 충격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소비활동과 소비심리가 서서히 개선될 전망
 - 2021년 중 민간소비는 전년도 -4.1%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으로 인해 지연되었던 소비가 다소 회복되면서 증가할 전망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가계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대면소비 및 해외소비가 감소하면서 저축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이와 같은 가계의 저축증가는 점차 전염병 확산세가 둔화되면 지연되었던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¹⁰⁾

[그림 27] 가계의 은행예금 추이



주: 말잔기준
자료: 한국은행

[표 7] 가계 흑자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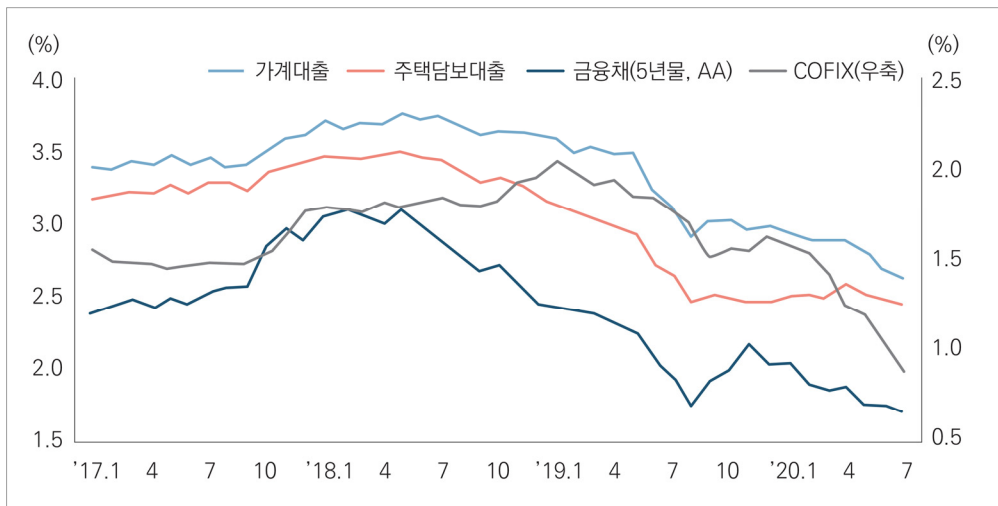
	처분가능소득 (천원)	흑자액 (천원)	흑자율 (%)
'19.1/4	4,082	1,021	25.0
2/4	4,038	1,203	29.8
3/4	4,128	1,142	27.7
4/4	4,081	1,172	28.7
'20.1/4	4,291	1,413	32.9
2/4	4,301	1,389	32.3

주: 2인이상 전국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0)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2월~6월까지 가계의 은행예금은 9%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나타내며 6월말 기준 사상최고치인 716.1조원을 기록하였으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흑자율(처분가능소득 대비 흑자액)은 2020년 1/4분기와 2/4분기 각각 32.9%, 32.3%를 기록하며 전년 동분기대비 각각 7.9%p, 2.5%p 상승

- 또한, 소비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 시중 저금리 지속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등은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정부는 2021년 예산안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소비쿠폰 발행, 관광활성화 정책 등을 시행할 계획¹¹⁾
 - 2021년 중에도 주요국의 적극적 양적완화가 지속되면서 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채보유가구의 채무상환 부담이 낮아져 실질소득 개선 효과를 보일 전망

[그림 28] 가계 및 시장 금리 추이



주: 신규취급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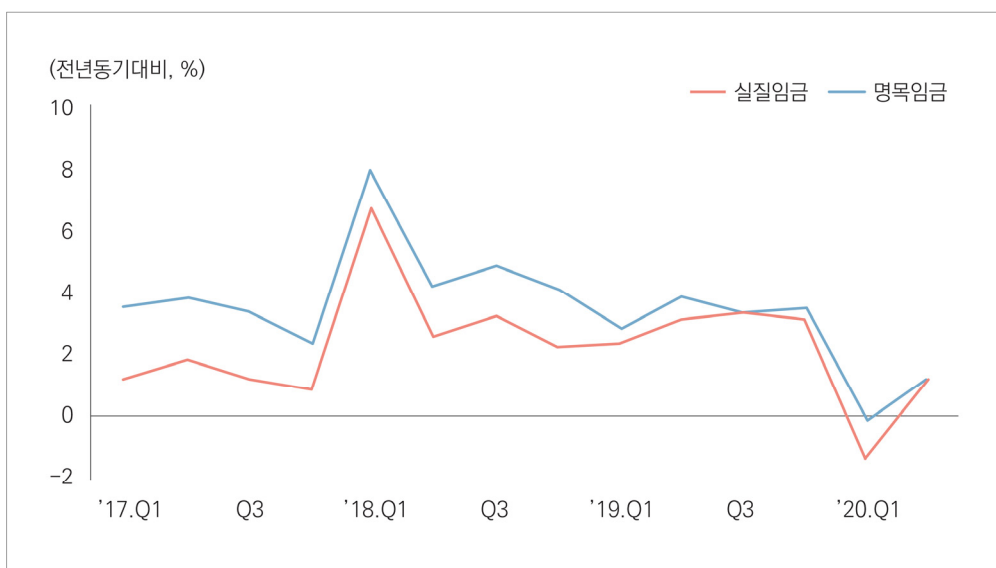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은행연합회

- 그러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고용 회복이 지체되고, 기업 수익 악화로 임금 상승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은 미흡할 전망
 - 2020년 상반기 중 코로나 19 충격의 영향을 받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큰 폭(전년동기대비 -60만명)으로 감소

11) 정부는 2020년 5.5조원 규모였던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의 할인·발행 규모를 18조원으로 확대(1조 3,271억 투입 예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내수회복 효과가 큰 농수산·문화·관광분야에 2조원 규모의 소비창출을 위한 4+4 바우처 쿠폰을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콘텐츠 개발·지원에 2,354억원의 예산을 투입

- 2020년 하반기~2021년 중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이 고용을 늘리기는 쉽지 않아 2021년 중 취업자수는 10만명대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에 따른 내수위축과 수출감소로 2020년도 기업실적이 악화되면서 임금상승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¹²⁾

[그림 29] 실질 및 명목임금 상승률 추이



주: 1인 이상 기업 대상
자료: 고용노동부

나. 중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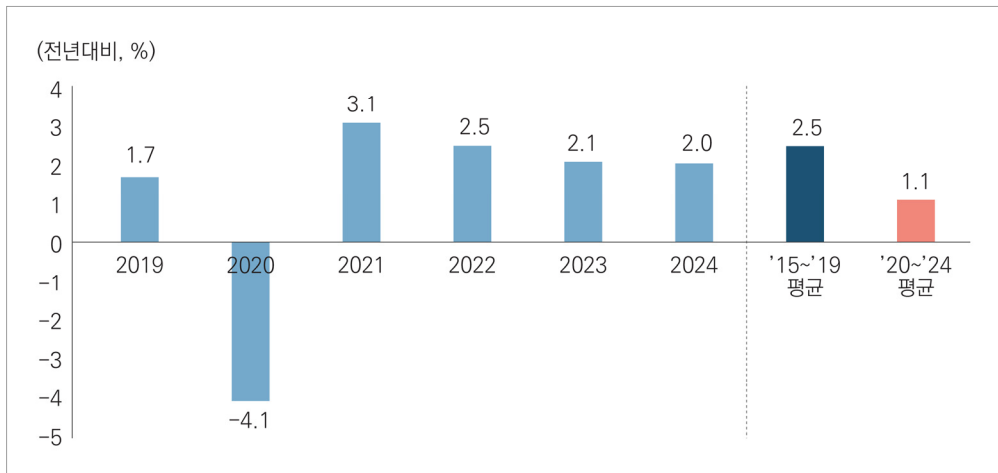
□ 2020~2024년 기간 중 민간소비는 연평균 1.1% 증가할 전망

-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2020년 중 큰 폭으로 감소한 후 2021년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 전환할 전망
- 2022년부터 경기회복세에 따라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나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 등으로 증가세는 완만할 전망

12) 코로나19가 현재 수준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수출주력업종의 실적회복은 빨라야 2021년 2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주력업종 상반기 실적·하반기 전망조사”, 전경련, 2020.8)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부채증가,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저축성향 증가, 생산연령인구 감소, 고령층의 소득 불안정 등은 민간소비의 구조적 제약요인이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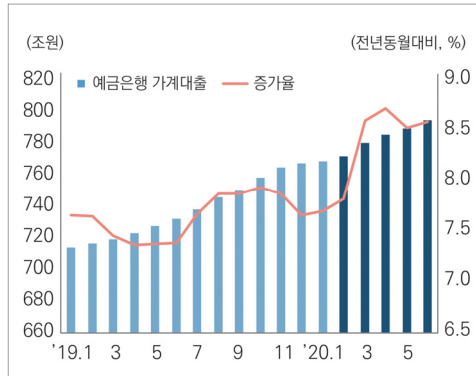
[그림 30] 민간소비 중기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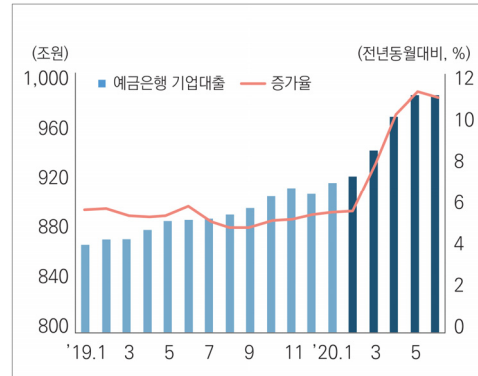
- 코로나19의 충격 등으로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중기적으로 가계의 소비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가계 및 기업의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
 - 기업대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업황이 악화된 가운데 정부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실시, 기업의 자금 확보 노력 등으로 증가
 -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자금 및 주가회복에 따른 주식투자 수요 확대, 코로나 19에 따른 생계형 대출 증가 등에 기인
 -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더라도 부채조정 과정에서 가계의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 둔화가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

[그림 31] 예금은행 가계대출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32] 예금은행 기업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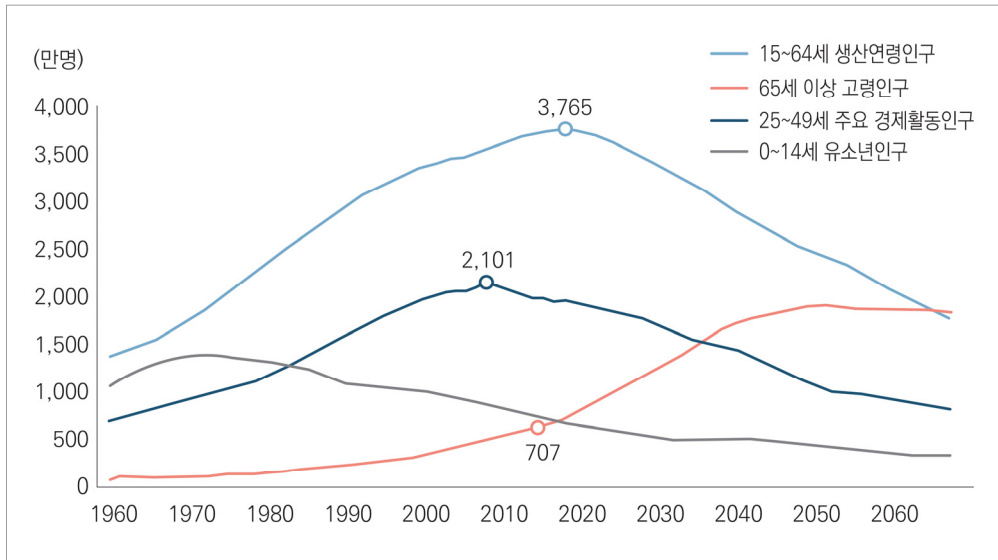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중기적으로 민간소비는 고령인구 증가와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소비 주력층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활력이 저하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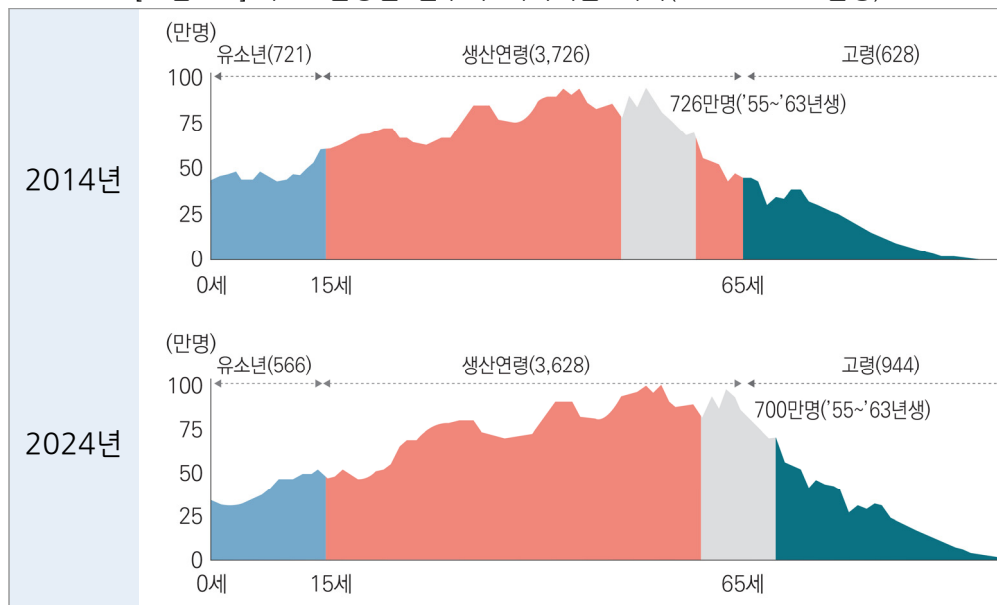
-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가 생산연령인구(15~64세)에서 고령인구(65세 이상)로 이동함에 따라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층은 급증
 - 고령인구는 2017년부터 유소년(0~14세) 인구를 추월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 769만명에서 2022년 945만명 수준으로 22.9% 증가할 전망
 -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8년 3,765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빠져나가는 2020년부터는 감소세가 더욱 확대
 -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25~49세에 해당하는 핵심 경제활동인구는 이미 2008년에 2,101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부터 2천만명 선을 하회

[그림 33] 생산가능인구 및 고령인구 추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그림 34] 주요 연령별 인구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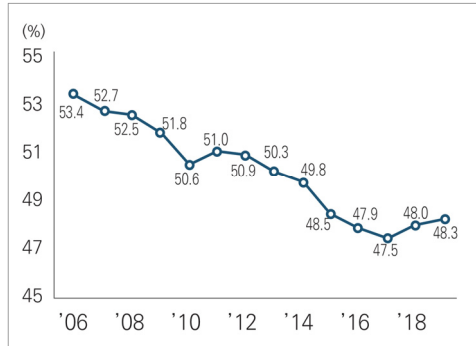


주: 회색부분은 1955~1963년 베이비붐 세대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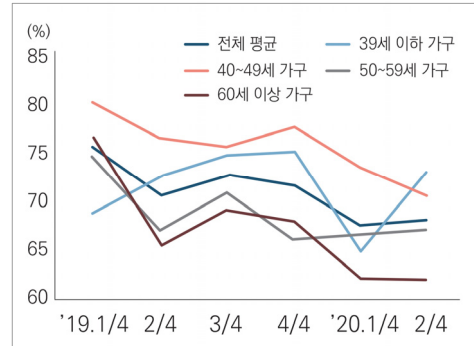
- 특히 2020년 중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혼인율 급감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중기적으로 출산, 육아 및 교육 부문의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늘면서 2020년 2/4분기 혼인건수는 전년동분기 대비 16.4% 줄어들어 통계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냄
 - 2020년 1/4분기와 2/4분기 출생아 수는 전년동분기 대비 각각 10.8%, 9.0% 감소하였으며 2/4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4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
-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공적연금 등 사회안전망이 충분하게 갖추어지지 못해 60대 이상 고령층이 노후대비를 위해 예비적 저축 등을 늘리면서 소비를 제약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에 따라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대비용 예비저축이 증가하면서 소비를 제약할 전망
 - OECD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2020년 대비 6.7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에스토니아(7.4년), 터키(7.2년)에 이어 세 번째 빠른 속도
 -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경제활동 주체들이 예비적 저축 등을 통해 소비재원을 추가로 적립해야하기 때문에 소비성향이 하락할 수 있으며 고령층의 경우 짧은 시간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비성향 하락 폭이 더욱 커질 가능성
 - GDP계정의 국민처분가능소득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으로 산출한 평균소비성향은 2006년 53.4%에서 2019년 48.3%까지 하락
 -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0년 2/4분기 기준 60세 이상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인 평균소비성향은 61.6%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낮은 모습

[그림 35] 가계의 평균소비성향 추이



주: 국민처분가능소득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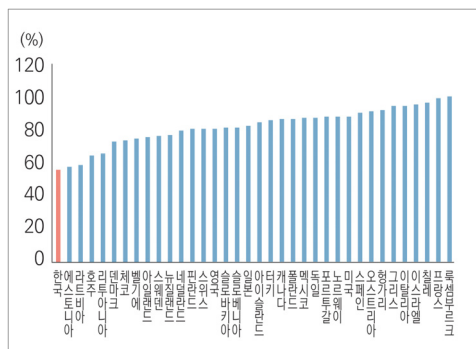
[그림 36] 가계 흑자율 추이



주: 2인이상 전국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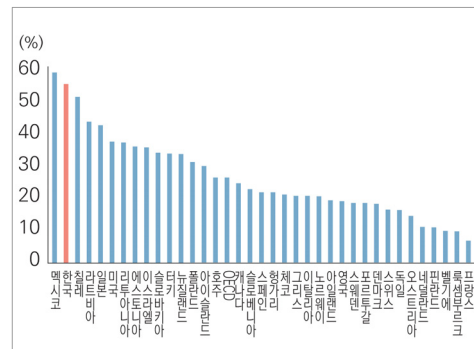
- 또한, 고령층의 낮은 소득수준과 불안정한 고용상황은 이들 계층의 소비 지출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우리나라 고령층의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인구의 소득수준대비 57.4%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

[그림 37] OECD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소득수준



자료: 「Pension at Glance 2019」, OECD

[그림 38] OECD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원 중 근로소득 비중



주: 전체소득(이전소득, 근로소득, 자본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

자료: 「Pension at Glance 2019」, OECD

- 특히 우리나라 고령층은 낮은 연금 수급액 등으로 고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대부분 자영업이나 비정규직 등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에 집중

-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우 공적이전을 통한 소득비중이 낮고¹³⁾ 근로·사업 소득의 비중이 높은 구조
- OECD Pension at Glance(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금대체율¹⁴⁾은 2018년 기준 37.3%로 OECD 평균(49.0%)을 하회
- 반면 우리나라의 고령층 소득의 52.5%는 근로소득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55.8%)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 우리나라 고령층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이를 충당하기 위해 경제활동참가가 확대되는 모습이나, 대부분 자영업이나 비정규직 등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에 집중됨에 따라 실질소득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전망

- 다만, 중기적으로 계획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가계의 소득 증대를 통해 민간소비의 하방압력을 일부 완화할 전망
- 정부는 경제회복,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등 필수투자 소요의 차질 없는 뒷받침을 위해 2021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계획¹⁵⁾
 - 2021년 재정지출은 전년대비 8.5% 증가한 555.8조원이며 2020~2024년 연평균 5.7% 증가시킬 계획
 -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은 2020~2024년 평균 7.7% 증가하여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기초생보 사각지대 해소¹⁶⁾ 및 보장성 강화에 따른 소득분배 개선, 기초연금 인상¹⁷⁾ 및 장애인 연금인상¹⁸⁾ 등 취약계층 소득기반 강화가 중기적으로 가계의 소득 개선에 기여할 전망

13) OECD 국가들의 노인 가구 소득원의 대부분은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고 있으며, 공적이전 소득 비중이 40% 이하인 국가는 한국(25.0%), 멕시코(33.1%), 캐나다(35.1%) 등 3개국에 해당

14)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18년 22세의 나이로 근로를 시작한 개인이 가입시점부터 지급연령까지 가입을 가정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전체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를 포함한 총 소득대체율(gross pension replacement rate) 기준)

15)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한민국 정부, 2020.9.

16)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 까지 폐지(21년 노인, 한부모 가구 → 22년 그 외 가구 대상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긴급복지 지속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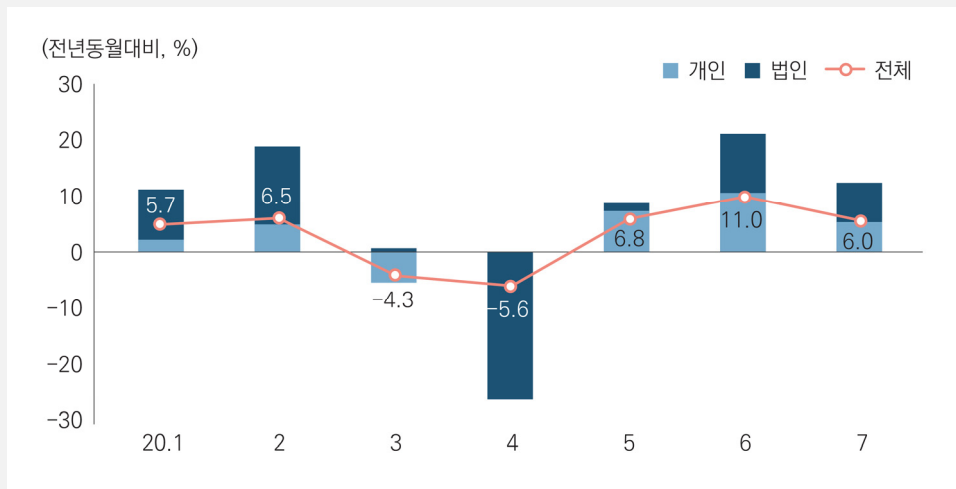
17) 소득하위 70% 전체 25만원 → 30만원

18) '19년 기초수급 → '20년 차상위 → '21년 소득하위 70% 전체

[BOX 4]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카드승인 실적 분석

- 국내 카드승인(신용 및 체크 카드 포함) 실적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3~4월 중 2개월 연속 감소
- 카드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구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3월에는 개인카드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4월에는 법인카드를 중심으로 위축
 - 3월 중 카드승인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하였으며, 주로 개인카드 실적 감소(-5.3%)에 기인
 - 4월 중 카드승인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5.6% 감소하였으며, 개인카드 실적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법인카드 실적이 26.6% 감소한데 주로 기인
 - 5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카드승인 실적은 증가세로 전환
 - 5~7월 중 개인과 법인카드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8.1%, 6.3% 증가
 - 5~7월 중 개인카드승인 실적은 192.6조원이나, 이 중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9.6조원¹⁾을 제외하면 전년동기대비 2.7% 증가²⁾

코로나19 확산 이후 카드승인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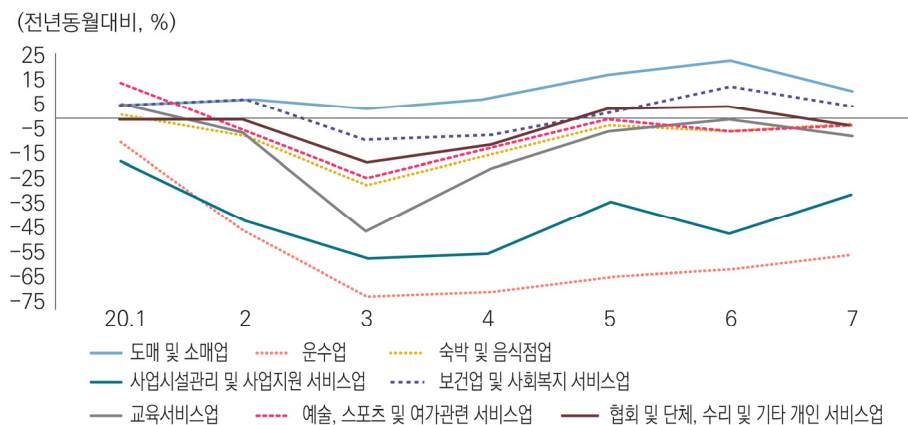


자료: 여신금융협회, 국회예산정책처

- 1)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월 7일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실적은 9조 6,095억 원으로 집계(총 지급대상 가구 중 99.5% 지급 완료)
- 2) 6월 29일 기준 정부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총 9조6천억으로 이 중 85%(약 8조1천600억원) 소진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7월까지 재난지원금이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가정

- 업종별로는 여행 및 항공과 관련 있는 운수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 큰 폭으로 하락
 -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과 항공관련 업종이 타격을 입으면서 육상·수상·항공운송 등을 담당하는 운수업과 여행사 및 여행보조서비스를 포함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 2월부터 매우 큰 폭의 하락세 시현
 - 교육서비스업은 개학이 연기되고 사설학원 등의 영업이 제한되면서 3~4월 중 큰 폭으로 하락(3월과 4월 각각 전년동월대비 -44.2%, -20.4%)
 - 숙박 및 음식점업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

코로나19 확산 이후 업종별 카드승인 실적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여신금융협회

- 지역별로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많았던 대구·경북 지역과 관광산업 축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카드 사용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
 - 2~7월 중 신용카드 사용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지역은 제주도이며 전년동기대비 13.6% 감소
 - 누적 확진자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수가 가장 많은 대구·경북 지역의 2~7월 중 신용카드 사용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0.9% 감소
 - 서울과 경기지역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수가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 물 등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가 소재³⁾하고 있어 통신판매업을 중심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정⁴⁾
 - 세종시의 경우 유일하게 코로나19 확산 이후 카드승인 실적이 증가세를 유지

3) 2018년 기준 전국 통신판매업체 매출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8.7%(서비스업 조사,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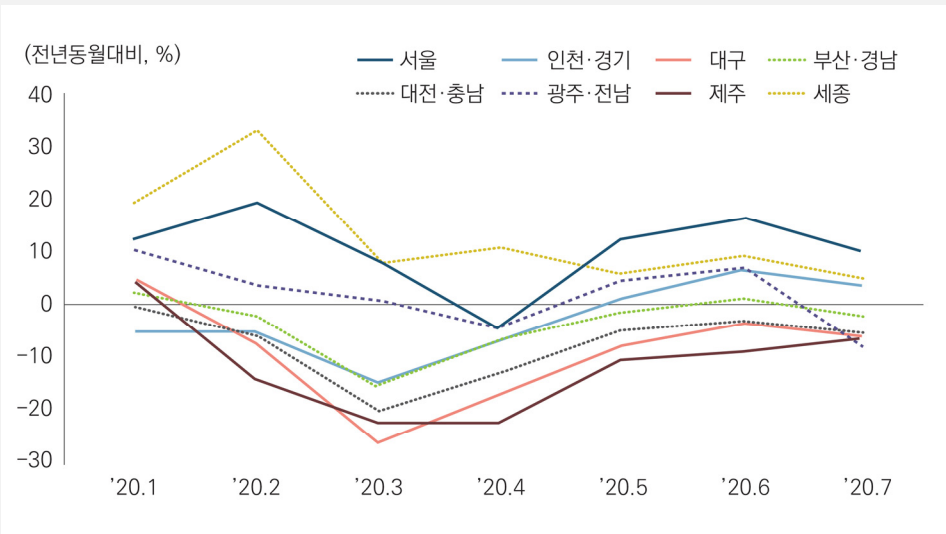
4) 2020년 2~5월 카드이용실적 중 비대면방식을 통한 결제 비중은 36.5%(“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지급결제 동향, 한국은행, 2020.7)

지역별 코로나 확진자수와 신용카드 사용실적

	총 확진자 수 (명) ⁵⁾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 (명)	신용카드 사용실적 (%) ⁶⁾
대구경북	8,600	347.8	-10.9
경기	4,767	57.9	-2.5
서울	4,711	48.4	10.2
대전충남	784	44.0	-8.6
부산경남	767	30.8	-4.3
광주전남	647	41.9	0.9
세종	70	20.5	11.1
제주	53	7.9	-1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질병관리청, 여신금융협회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역별별 카드승인 실적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여신금융협회

5)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9.14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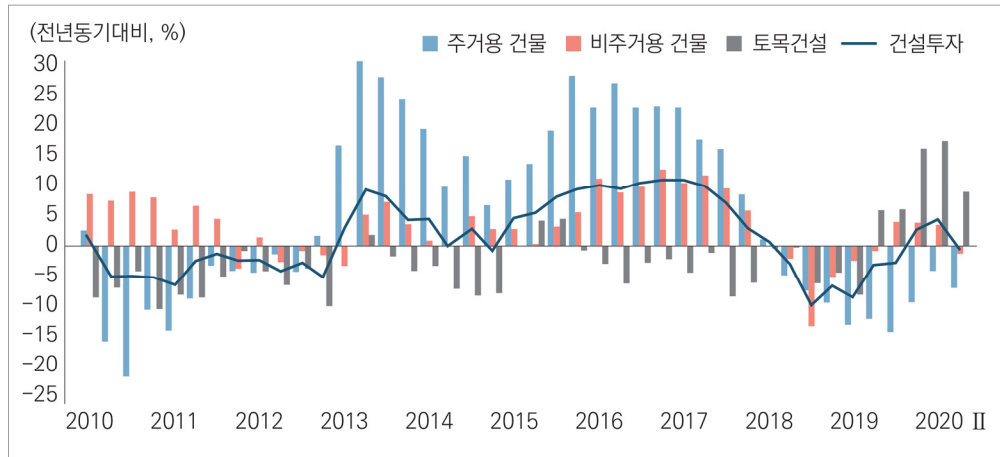
6) 신용카드 사용실적은 코로나19가 확산된 2~7월 기간 동안의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3. 건설투자

가. 2021년 전망

- 2020년 건설투자는 지난해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2020년 1/4분기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4.2%에 이르렀으나 2/4분기에는 0.1% 감소
 - 주거용건축(주택투자)은 2018년부터 부진이 지속되어 왔으나 토목투자와 비주거용건축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져 건설투자 증가 전환
 - 주거용건축은 2018년부터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2020년 들어 감소폭이 축소되는 모습
 - 비주거용건축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무실 및 점포를 중심으로 건설수주액과 건설기성액이 모두 감소하며 부진
 - 토목투자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생활SOC투자를 비롯한 대규모 사업 등에 따른 영향으로 2019년 2/4분기부터 증가하였고 2020년 들어 예산조기집행 등의 효과로 증가폭이 확대
 - 건설투자(전년동기대비,%): (19.4/4분기)2.5 → (20.1/4분기)4.2 → (2/4분기)-0.1
 - 주택투자(전년동기대비,%): (19.4/4분기)-9.0 → (20.1/4분기)-4.0 → (2/4분기)-6.9
 - 비주거용건축(전년동기대비,%): (19.4/4분기)3.7 → (20.1/4분기)4.0 → (2/4분기)-1.3
 - 토목투자(전년동기대비,%): (19.4/4분기)15.7 → (20.1/4분기)16.9 → (2/4분기)8.6
 - 하반기에는 토목투자와 비주거용투자의 개선세가 이어지나 주택투자의 위축이 지속되어 2020년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0.6% 감소할 전망
 - 주거용 건축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질 전망
 - 비주거용 투자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상업용부동산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토목투자는 상반기 중 예산조기집행의 영향이 반영되어 감소할 전망

[그림 39] 건설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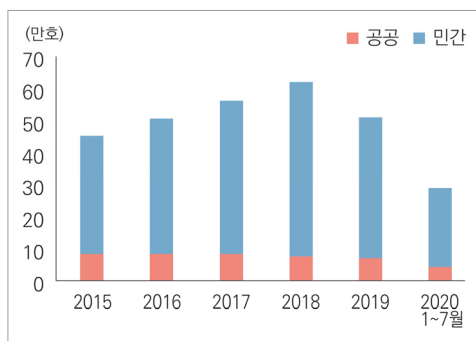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2021년 건설투자는 비주거용부문과 토목부문 확대가 지속되나 주택투자 부진이 지속되어 전년대비 0.3% 감소할 전망
 - 주택투자는 공공부문 공급이 확대되나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위축되어 감소세가 지속되나 감소폭은 줄어들 전망
 - 주택투자는 주택 준공물량 감소, 수도권 외 지역의 미분양주택 증가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다만,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3기 신도시 청약 시작으로 감소폭은 줄어들 전망
 - 비주거용부문은 민간공장 증설 등 공업용부동산을 중심으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상업용부동산은 2020년의 투자수익률 감소, 공실률 증가에 따른 부진이 지속될 전망
 - 토목부문은 SOC 예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여 건설투자의 위축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국가균형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을 비롯한 대규모 국가사업을 진행하여 공공 지출을 늘려 토목 투자를 확대할 전망
 - 토목부문 재정지출과 더불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연 10조원 수준으로 투자 확대를 유도할 예정

□ 2021년 주택투자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나 감소폭은 줄어들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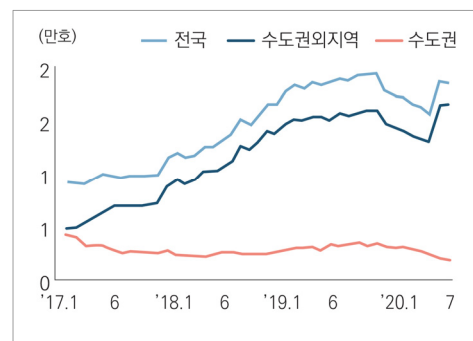
- 수도권에 127만호를 비롯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당국의 노력으로 주택투자 부진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주택준공은 2018년 62.7만호로 정점에 달한 뒤 2019년에는 51.8만호로 감소하였으며 2019년 공공부문 주택준공은 10.1%, 민간부문은 18.5% 감소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주택 준공물량은 45.7만호로 2019년에 비해 감소세는 지속되며 이 중 민간부문(37.0만호)은 2019년 대비 16.6% 감소하고, 공공부문(8.7만호)은 17.7% 증가하여 공공부문 주택준공 증가율이 3년 만에 증가로 전환될 전망
 - 공공주택준공(전년대비,%): ('18년)-4.7 → ('19년)-10.1 → ('20년 국토부 전망)17.7
 - 민간주택준공(전년대비,%): ('18년)12.8 → ('19년)-18.5 → ('20년 국토부 전망)-16.7
- 수도권 외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주택 비중이 높은 것은 주택투자 제약 요인으로 작용
 - 미분양주택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수도권 외 지역은 높은 수준에서 변동하는 모습
 - 향후 수도권에 공급이 집중되고 지방 준공물량이 줄면 수도권 외 지역의 과잉공급도 일부 해소될 전망
 - 전국 미분양주택(만호): ('18.12월)16,738 → ('19.12월)18,065 → ('20.7월)18,560

[그림 40] 주택준공실적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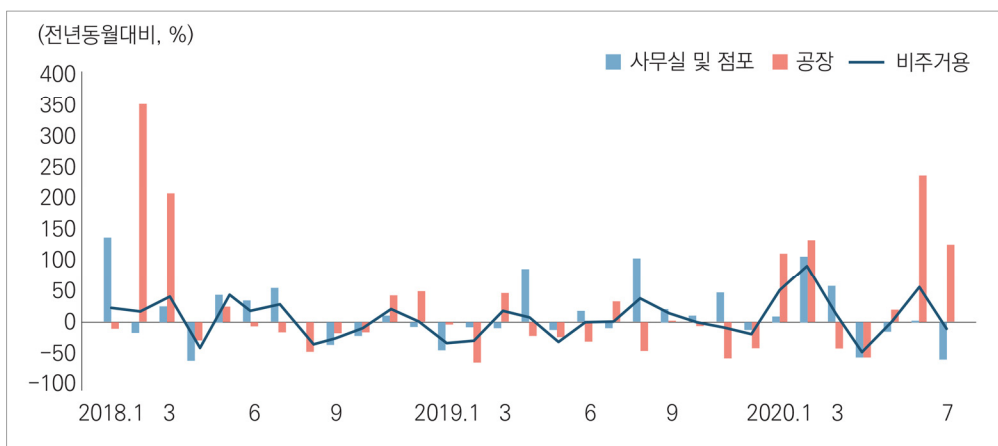
[그림 41] 미분양주택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 2021년 비주거용건축투자는 공업용부문을 중심으로 미약한 회복 가능성
- 비주거용 건축수주액은 상업용부문의 감소에도 공업용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모습
 - 2020년 중 사무실 및 점포부문 건축수주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월 이후 감소하였으나 공장부문은 민간기업의 반도체 공장 증설 등에 의한 영향으로 증가
 - 2021년 중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내수가 회복됨에 따라 상업용부동산 투자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향후 코로나19 전개양상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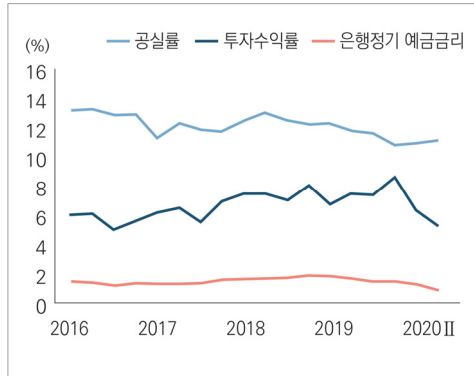
[그림 42] 비주거용 건축수주액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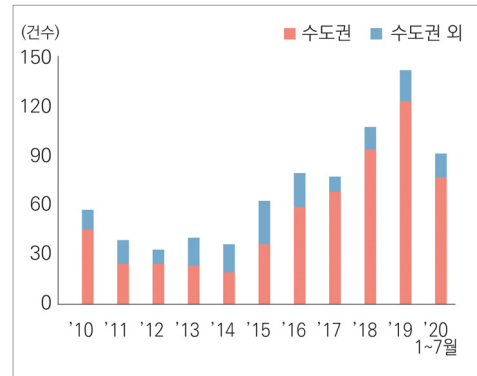
-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은 2019년 4분기 이후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업황 부진에 공실률은 상승하는 모습
 -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과 은행정기예금금리와의 차이는 2020년 2분기에 4.38%로 낮은 수준을 기록
 -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과 은행예금금리(1년 만기)의 차(%p): ('18년 평균) 5.8 → ('19년 평균) 5.9 → ('20.1/4~2/4분기 평균) 4.7

[그림 43]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



주: 투자수익률은 연율로 환산한 것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44] 지식산업센터 승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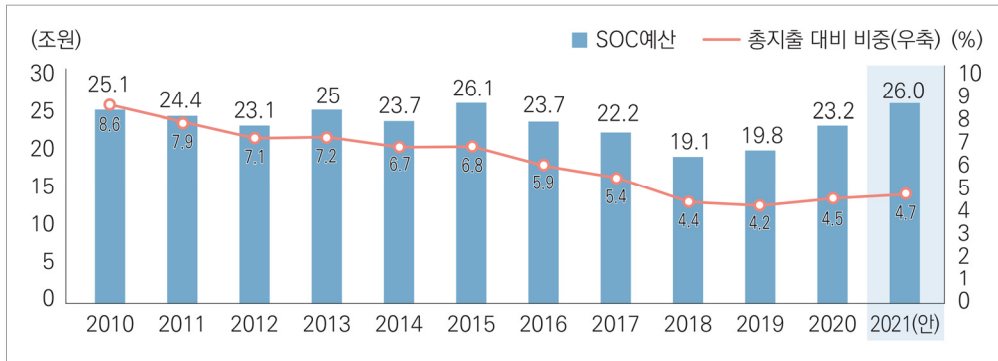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 2021년 토목투자는 예산 확대와 민간투자 창출 노력 등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전망

- 2021년 SOC 예산(안)은 전년대비 12.1% 증가한 약 26조원으로 전년도 증가율(17.2%)에 이어 큰 폭으로 확대
 - － 총지출 대비 비중도 2020년에 이어 증가하고 있어 토목투자가 활성화될 전망
 -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산을 2020년 13.3조원에서 2021년 16.6조원으로 증액하는 등 지역발전에 본격적인 투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중 생활 SOC 예산도 1.1조원으로 약 600억원 증액
 - － 코로나19에 대응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 중 SOC 디지털화(약 2조4천억원)와 그린리모델링(약 6천억원) 투자 계획
 - － 정부의 토목투자 확대는 건설투자 부진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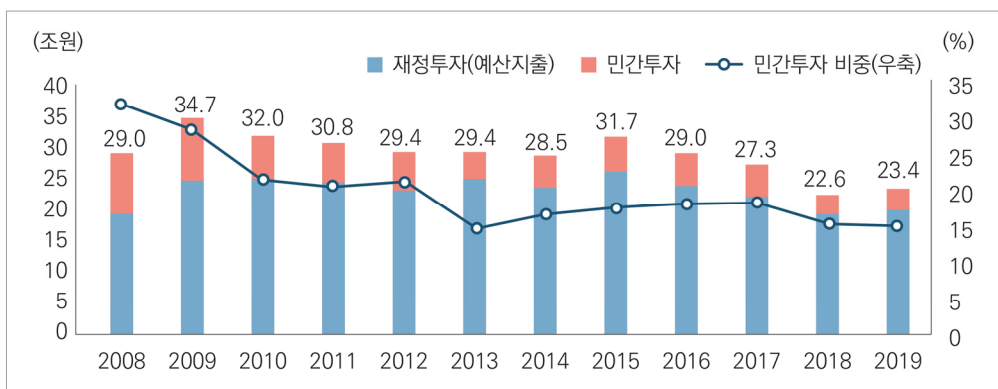
[그림 45] 연도별 SOC 예산 추이 및 계획



주: 2020년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20년 국회확정예산인 512.3조원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또한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SOC투자 확대를 유도할 전망
 - 이에 정책당국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노력을 통해 2023년부터는 매년 10.0조원 이상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
 - 특히 ‘한국판 뉴딜’에 160조원 규모의 재정투자와 함께 민간투자 유도를 추진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교통망사업(약 5.0조원), 노후하수처리장 현대화(1.5조원), 학교의 그린리모델링(4.3조원)에 혼합형(BTO+BTL)¹⁹⁾ 민간투자사업을 도입하여 민간투자사업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그림 46] SOC투자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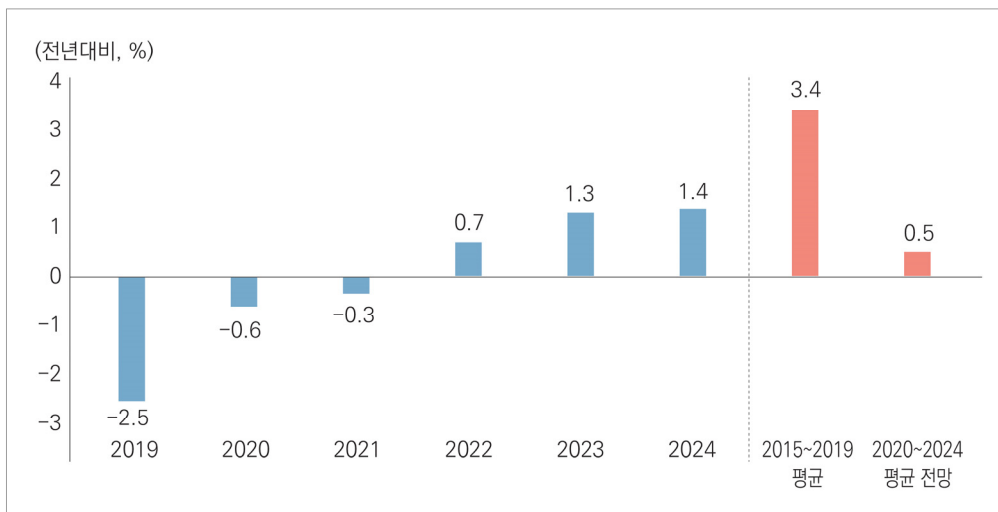
19) 시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내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과 정부가 시설임대료를 지급하는 BTL(Build Transfer Lease)를 혼합한 방식

나. 중기 전망

□ 2020~2024년 건설투자는 공공부문 지출 확대와 민간부문 부진 완화로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

- 건설투자는 2020~2024년 연평균 0.5% 증가하여 지난 5년(2015~2019년, 연평균 3.4%)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2020~2021년은 민간주택부문 부진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
 - 2022~2024년은 공공주택공급, 대규모 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한국판 뉴딜) 등 공공부문 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3기 신도시가 착공 예정이고 및 관련 선행지표가 증가하는 등 민간부문 회복에 힘입어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
- 2015~2017년은 건축부문 호황의 영향으로 연평균 8.1% 성장하였으나 2018~2019년 중 주택투자 위축으로 연평균 3.6% 감소
 - 주택투자는 2015~2017년 연평균 18.8% 증가했으나 2018~2019년 연평균 8.6% 감소된 반면 토목투자는 2015~2017년 -1.9%에서 2018~2019년 1.6%로 증가 전환

[그림 47] 중기 건설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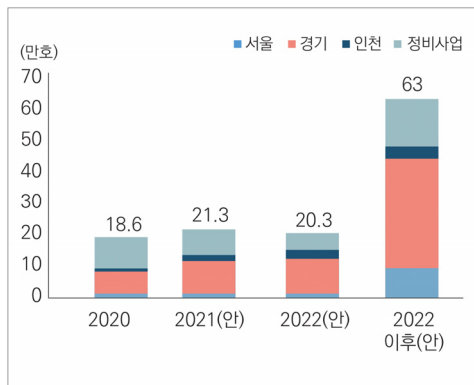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주택투자 부진의 완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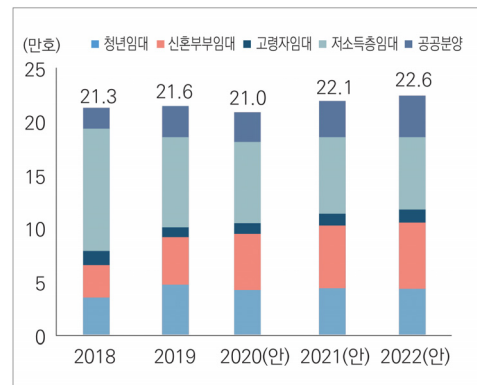
- 정부는 2020년부터 수도권에 총 127만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
 - 경기도, 서울, 인천에 각각 75만호, 36만호, 15만호 등 총 127만호(2023년 이후 포함) 신규주택 청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이 중 공공택지 물량 84.5만호, 정비사업을 통해 38만6천호가 공급될 예정
 - 정부는 2018년 9.13대책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에 총 17.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2021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내 공공주택 사전청약을 시작하여 2022년 상반기까지 총 6만호를 모집할 예정

[그림 48]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49] 공공주택공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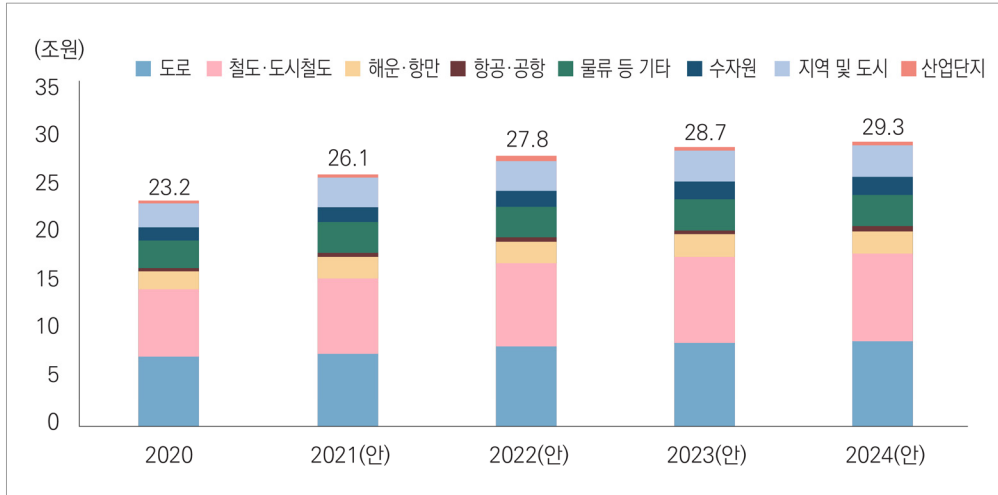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 정부는 2020~2024년 중 SOC예산을 연평균 8.3%(연평균 1.9조원) 확대할 계획

- 2020년 23.2조원부터 점차 증가하여 2024년까지 29.3조원으로 늘릴 계획
 - 2020~2021년 연평균 3.1조원 증액되었으나, 2022년부터 변동액이 미미한 수준
 - 대규모 국가SOC 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GTX 등)이 예정되어있고 생활SOC 및 노후인프라 유지·보수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토목투자가 확대될 전망

[그림 50] 중기 SOC 예산 투입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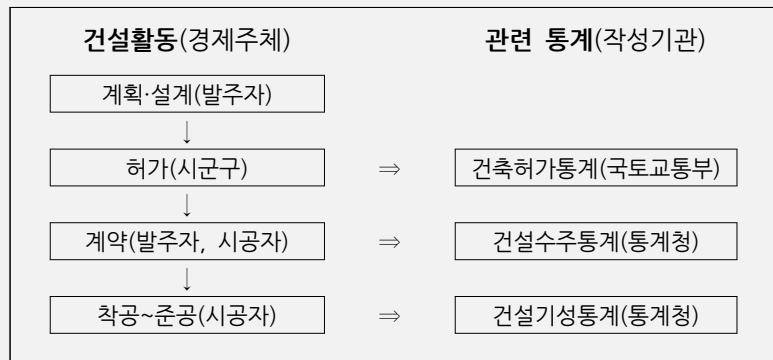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 정책당국은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창출하고자 함
 - －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통해 경제 전반에 성장동력을 회복하고자 함
 - － 지능형 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 구축 등을 통해 기존 SOC 디지털화(2025년까지 총 사업비 15.8조원)
 - － 공공건축물 및 노후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에너지고효율 건축으로 신축·리모델링, 지능형 하수처리장 준설 및 노후상수도 개량을 통해 SOC 녹색 전환 추진(2025년까지 총 사업비 30.1조원)

[BOX 5] 건설수주액과 건설투자와의 공종별 시차 분석

- 건설과정에서 수집되는 주요 통계는 건축허가통계, 건설수주액, 건설기성액 등을 들 수 있음
 - 이 중 건축허가통계와 건설수주액은 허가와 계약 단계에서 조사되는 통계로 향후 건설 활동 및 규모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건설경기 선행지표
 - 건설기성액과 건설투자는 건설경기 동행지표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건설기성액은 실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표본 집계
 -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건설투자는 건설기성액을 바탕으로 추계하는 것으로, 건설기성액이 건설투자의 약 95% 수준이나 변동성은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경향(박철한·이홍일, 2012.)
 - 건설 수주활동이 건설 시공활동에 선행하므로 건설수주액은 향후 건설투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선행지표로 활용됨
 - 건설투자의 건설 계약에서 준공에 이르는 기간은 각 공사마다 차이가 발생하므로 공사 여건과 종류가 유사한 공종별(주거용, 비주거용, 토목부문)로 시차가 상이한 경향

건설활동 과정에 따른 관련 통계



자료: 민경삼·서만영(2001)

- 건설투자의 대표적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과 건설투자 사이의 공종별(주거용 건축, 비주거용 건축, 토목) 시차 회귀분석 수행
 - 건설수주액과 건설투자의 시차 회귀분석 수행에 앞서 시차 상관관계를 파악
 - 2000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명목 주택투자, 비주거용투자, 토목투자, 주택건축수주액, 비주거용건축수주액, 토목건축수주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이용하여 분석
 - 주택부문은 4~8분기 유의하게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주거용부문은 0~3분기 유의하게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목부문은 0~1분기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각 공종별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수행한 결과 주택부문, 비주거용부문에서 건설수주액의 선행성이 나타났으나 토목부문은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음
 - 주택 및 비주거용 건설수주액은 각각 1% 유의수준 하에서 주택투자에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차 상관관계와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시차회귀분석 시행
 - 분석기간은 2000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이며 각 공종별 건설투자를 종속변수로, 시차가 반영된 공종별 건설수주액을 설명변수로 선정
 - 잔차의 자기상관을 제거하기 위해 시차가 1인 자기회귀모형(AR(1))에 각 공종별 건설수주액 시차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
 - 분석 결과, 주택투자는 주택건축수주액이 5분기, 8분기 유의하게 선행하며 비주거용투자는 수주액이 0~1분기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토목부문은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게 시차회귀분석에서도 선행성이 나타나지 않음
 - 건설수주액은 건설투자 전체에 동행성과 5분기, 8분기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종별 수행에서 각각 상이한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향후 건설투자 전망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종별 세밀한 분석을 활용할 필요성

공종별 시차회귀분석 수행 결과

종속변수	설명변수			
주택투자	주택수주(-5)	주택수주(-6)	주택수주(-7)	주택수주(-8)
	0.066*** (0.019)	0.008 (0.021)	0.016 (0.021)	0.033* (0.019)
비주거용 투자	비주거수주(0)	비주거수주(-1)	비주거수주(-2)	비주거수주(-3)
	0.039** (0.018)	0.034* (0.019)	-0.001 (0.019)	0.024 (0.019)
토목투자	토목수주(0)	토목수주(-1)		
	0.027 (0.021)	-0.012 (0.019)		
건설투자	건설수주(0)	건설수주(-5)	건설수주(-6)	건설수주(-8)
	0.032** (0.016)	0.061*** (0.018)	0.015 (0.019)	0.039** (0.018)

주: () 안은 표준오차이며,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설비투자

가. 2021년 전망

- 2020년 상반기 중 설비투자는 장기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반도체 등 IT 부문 투자 회복 등으로 증가
 - 상반기 중 설비투자는 1/4분기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를 중심으로 2/4분기에는 반도체 업종 등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되며 전년동기대비 5.7% 증가
 - 기계류 투자는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관련 투자가 증가하며 상반기 중 회복 기조가 지속
 - 운송장비 투자는 1/4분기에는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4분기 들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항공기 등 기타운송장비 투자를 중심으로 감소 전환

[표 8] 실질설비투자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8	2019					2020	
			연간	1/4	2/4	3/4	4/4	1/4	2/4
설비투자(국민계정)		−23	−7.5	−17.4	−7.0	−23	−20	7.3	4.1
(계절조정전기비)				(−8.5)	(2.6)	(1.7)	(2.6)	(0.2)	(−0.5)
형태별	기계류	−5.0	−11.1	−22.2	−13.4	−7.3	−0.3	4.3	6.6
	(계절조정전기비)			(−6.1)	(0.4)	(−1.3)	(7.1)	(−2.1)	(3.1)
	운송장비	6.7	28	3.0	13.8	14.4	−6.1	16.9	−2.3
(계절조정전기비)				(−14.7)	(8.9)	(9.6)	(−8.2)	(6.6)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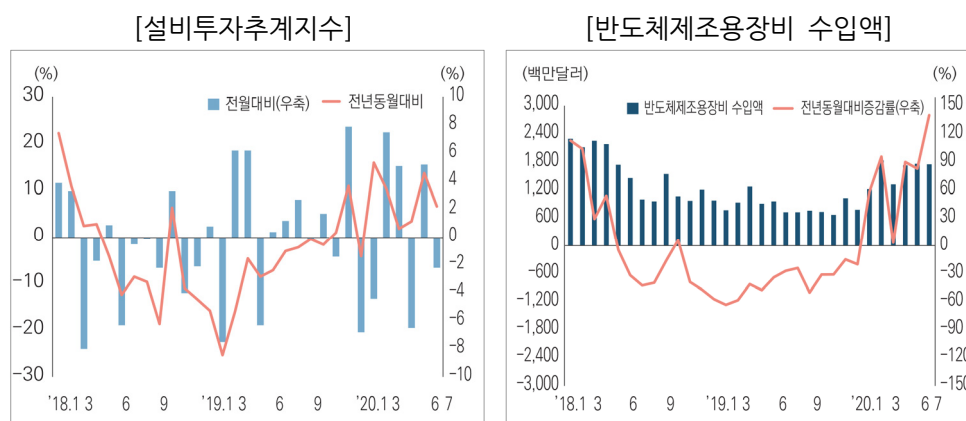
주: 괄호안은 계절조정전기비

자료: 한국은행

- 월별 설비투자추계지수는 1월을 제외하면 7월까지 6개월 연속 전월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7월 들어 운송장비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 전환되는 모습
 - 설비투자추계지수(전년동월대비, %): (‘20.1월) -4.1 → (4월) 1.9 → (7월) 6.7
 - 기계류투자(전년동월대비, %): (‘20.1월) -7.3 → (4월) -0.2 → (7월) 16.8

- 운송장비류투자(전년동월대비, %): ('20.1월)4.7 → (4월)8.8 → (7월)-15.8
- 반도체제조용장비수입액(전년동월대비, %): ('20.1월)-20.1 → (4월)3.3 → (7월)139.9
-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액(2020년 1~7월까지 전체 기계류수입액의 24.8% 차지)은 1~7월 중 전년동기대비 64.2% 증가한 반면 이를 제외한 기계류 수입액은 동기간 7.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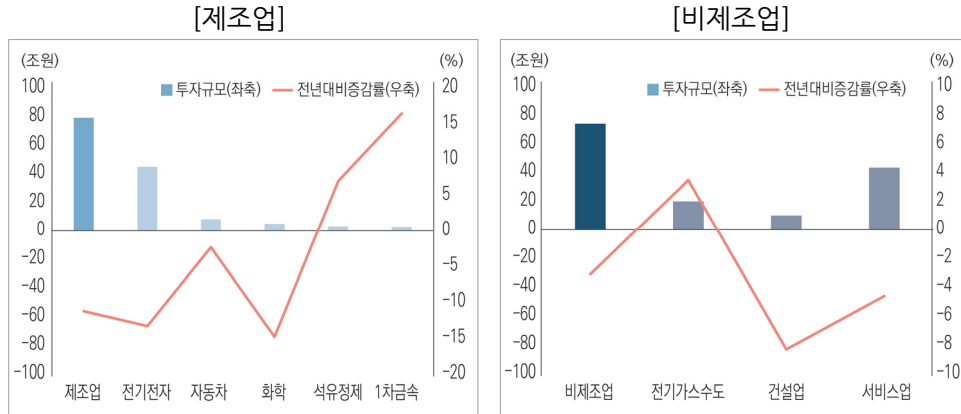
[그림 51] 설비투자추계지수 및 기계류수입액 월별 추이



자료: 통계청, 무역협회

- 하반기 중 설비투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지속, 반도체 업황 회복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감소 전환될 전망
 - 기계류 투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IT업종에서 경기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수요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주요 제조업종에서 가동률이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투자확대가 어려운 상황
 - 운송장비 투자는 코로나19 충격으로 항공, 자동차 등의 대내외 수요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 이어지며 2/4분기의 감소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
 - 전체적으로 2020년 설비투자는 지난 2년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전년대비 2.6% 증가(상반기 5.7% → 하반기 -0.7%)

[그림 52] 업종별 2020년 설비투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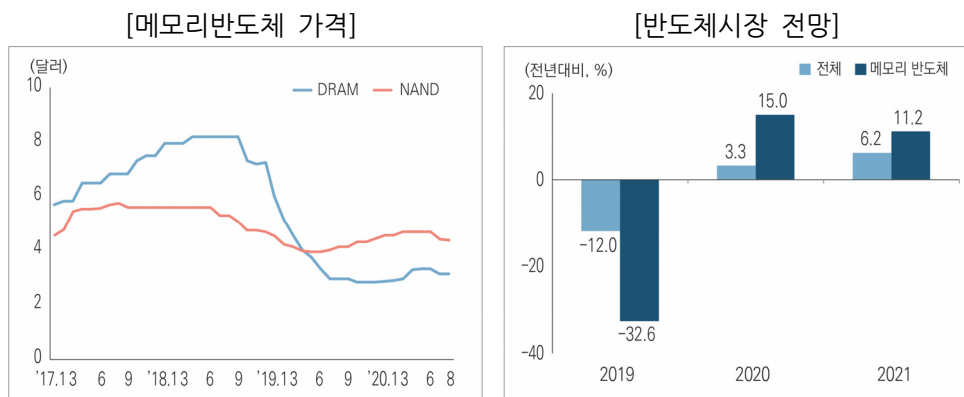


자료: KDB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2020.6)

□ 2021년 설비투자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한 가운데 전년에 이어 반도체 등 일부 IT업종에 편중된 회복세가 예상됨

- 2021년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2.7% 증가하며 전년 수준의 증가폭이 유지될 전망
 - 반도체 업종은 2020년 하반기의 일시적 부진 국면에서 벗어나며 완만한 투자 회복이 예상되나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미·중 갈등 격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2020년에는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과잉재고에 따른 일시적 하락세를 멈추고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메모리반도체 시장 매출액(전년대비,%): ('17년)61.5 → ('18년)27.4 → ('19년)-33.0
- * 메모리반도체시장 전망(매출액기준, WSTS '20.5월 기준, 전년대비 %): ('20년)15.0 → ('21년)11.2

[그림 53] 반도체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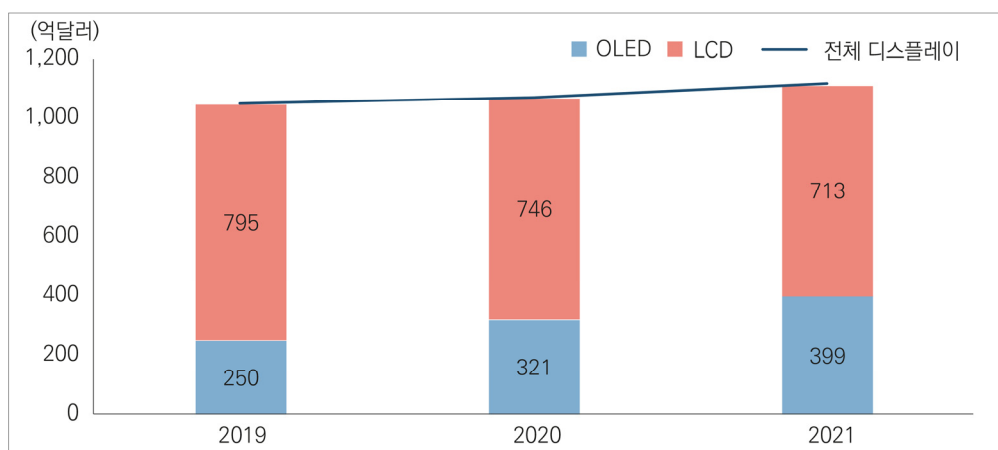
주: 1. DRAM은 DDR4-8Gb, NAND는 128Gb-16Gx8-MCL 고정가격 기준

2. 2019년은 실적치

자료: DRAMeXchange, 한국반도체협회, 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2020.5)

-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LCD라인과 소형 OLED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는 대형 OLED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패널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 2021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LCD 시장의 구조적인 공급과잉으로 OLED 시장 중심으로 낮은 성장(4.3%)에 그칠 전망(IHS)
- * OLED디스플레이 매출액 증가율 전망(전년대비, %): ('19년)7.8 → ('20년)28.4 → ('21년) 24.3(IHS,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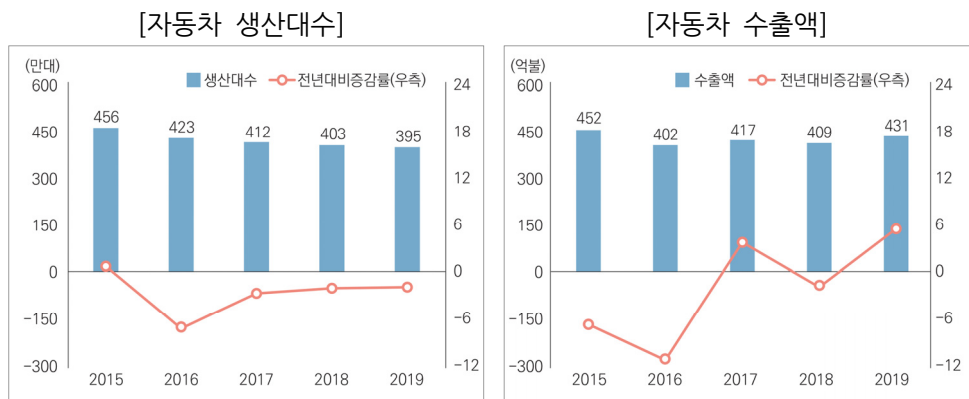
[그림 54] 세계 디스플레이시장 전망



자료: IHS(2020)

- 비IT부문의 설비투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업황 부진과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신규 투자가 지연되는 가운데 미래형 자동차,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확대가 예상됨
 - 자동차는 전기차·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 개발 가속화 등에 집중된 투자 확대가 예상됨
- * 최근 3년간(2017~2019년) 자동차 생산대수는 연평균 2.2% 감소하였으나 동기간 자동차 수출액은 전기차 및 SUV, 고급차 비중 증가로 2.4% 증가

[그림 55] 자동차 생산대수 및 수출액 추이



자료: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통계월보」, 무역협회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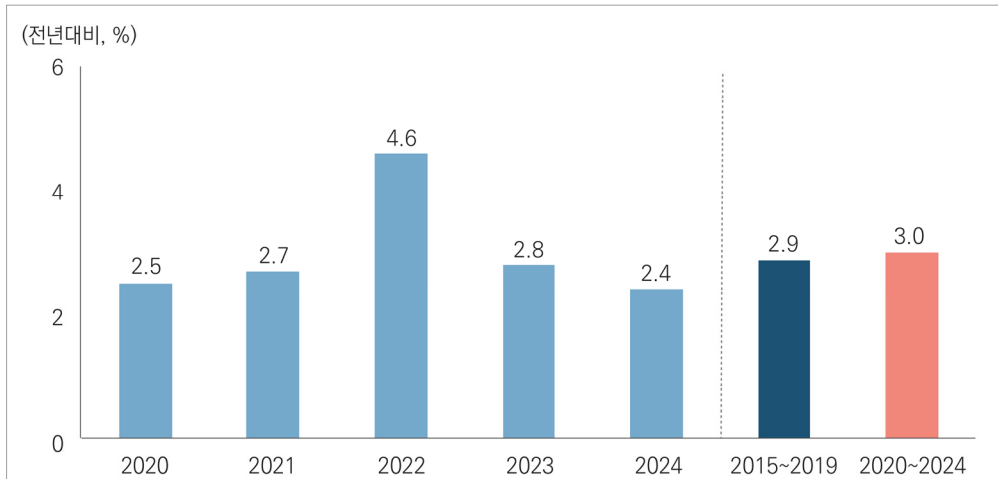
- 화학업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유가로 인해 투자 확대가 어려운 여건이며, 이차전지, 태양광 분야로의 사업다각화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 조선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세계 선박발주량과 국내수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투자 부진이 예상됨
- * 세계발주량 및 한국수주량(전년대비, %): ('20년 상반기)세계발주량 - 58, 한국수주량 - 48 → ('20년 하반기)세계발주량 - 49, 한국수주량 56(상반기 실적은 Clarkson ,하반기 전망은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철강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수요둔화와 자동차, 건설투자 등 전방수요산업 부진으로 투자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며, 기존 생산시설 고도화와 친환경차 등에 사용되는 신소재 분야 등을 중심으로 투자 기대
- * 국내철강소비량(전년대비, %): ('17년) - 1.1 → ('18년) - 4.8 → ('19년) - 0.9
- * 철강 수출량(전년대비, %): ('17년) 3.3 → ('18년) - 4.1 → ('19년) 0.0
- * 세계 철강수요 전망(전년대비, %, 세계철강협회): ('18년) 4.6 → ('19년) 3.9 → ('20년) 1.7

나. 중기 전망

- 2020~2024년 중 설비투자는 정보통신부문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지난 5년(2015~2019년, 연평균 2.9%)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
 -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량 증가율 둔화, 미중 갈등 장기화, 비IT 제조업의 업황 둔화 등의 영향으로 IT부문 중심의 투자 확대 추세가 이어질 전망
 - 4차산업혁명 및 IT산업과 연계된 제조업과 서비스업, 의료, 보건 등 인구 고령화 및 가구구성변화에 따른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업종 투자를 중심으로 연평균 3.0% 증가할 전망
 - 2020~2021년 중에는 최근 2년간의 투자부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충격으로 전통 제조업종의 업황 악화와 저조한 가동률 수준 등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일부 IT업종 중심의 제한적인 회복 기조가 이어질 전망
 - 2022년에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며 주요 업종에서 지연되었던 투자를 중심으로 건설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2023~2024년 중에는 세계경제성장세와 교역증가율 둔화 등의 영향으로 투자증가율이 연평균 2.6%대로 둔화될 전망
 - * 세계교역량(전년대비, 연평균, %): ('04~'08년) 18.2 → ('09~'13년) 6.1 → ('14~'18년)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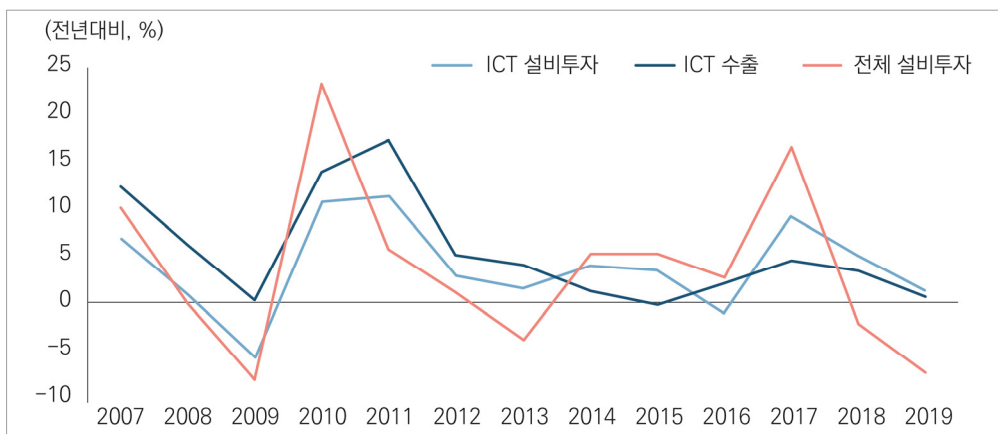
[그림 56] 중기 설비투자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난 5년 기간(2015~2019년)의 설비투자는 2015~2016년 중에는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부진 등으로 연평균 3.9%로 둔화되었으나 2017년에는 세계경기회복과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IT제조업 및 화학부문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투자 확대
 - 특히 최근 2018~2019년 중에는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전통 주력 제조업종에서 업황부진과 낮은 가동률로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가 하락하며 2년 연속 투자 감소(2018 -2.3%, 2019 -7.5%)

[그림 57] 정보통신부문의 수출 및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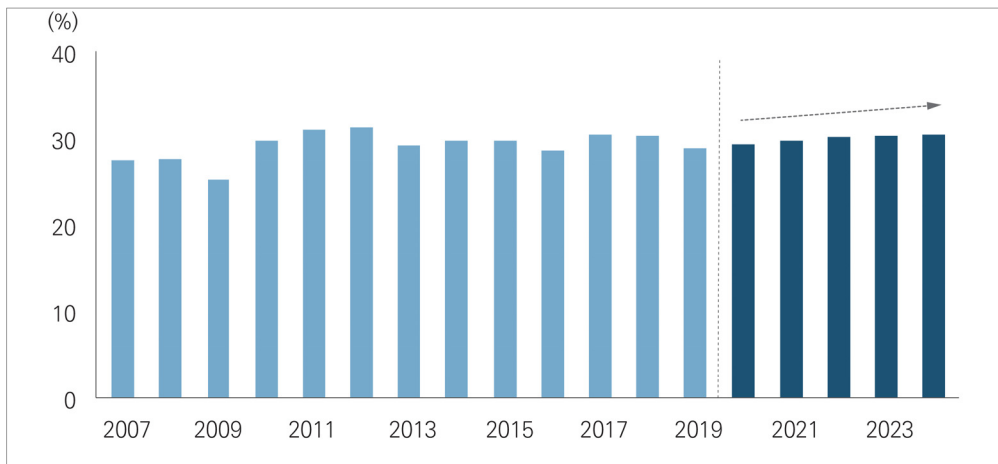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설비투자가 고정자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향후 5년 중 연평균 30%에 이를 전망

- 고정자본투자(건설투자 + 설비투자 + 지식재산생산물투자)에서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2012년 32.2%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19년에는 28.8%까지 하락하였고 최근 5년간 연평균 29.5%를 기록하였으나, 향후 5년 중에는 완만히 상승하여 연평균 29.9%에 이를 전망
- 설비투자 증가율 정체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건설투자가 증가세가 둔화되며 총고정자본투자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

[그림 58] 설비투자/고정자본투자 비중 추이 및 전망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

- 산업별 설비투자비중은 전기전자업종을 중심으로 제조업 비중이 소폭 확대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비중은 소폭 축소될 전망
- 제조업 설비투자비중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2010년 50.5%에서 생산설비의 해외이전 등의 요인으로 2016년 49.8%까지 축소되었으나, 2017년 반도체, 석유화학 관련 투자가 크게 늘며 56.1%로 확대
-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된 전기·전자기기 업종이 전체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2016년 기간 중 연평균 21.5%에 정체되었다가 2017년 29.2%로 크게 증가하며 IT와 비IT 제조업종의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중은 2010년 40.9%에서 2016년 42.3%로 확대되었으나, 2017년 운수보관업(-3.5%), 정보통신업(-2.7%) 등에서 부진하며 36.5%로 감소
- 그러나 2018~2019년 기간 중에는 석유화학, 금속제품, 전기·전자기기 등의 제조업 투자 부진으로 서비스업의 설비투자 비중이 운수업, 정보통신업, 공공행정 및 국방 부분을 중심으로 늘며 2018년 40.1%, 2019년 44.1%까지 확대

[표 9] 최근 5년간 산업별 실질설비투자액과 비중 추이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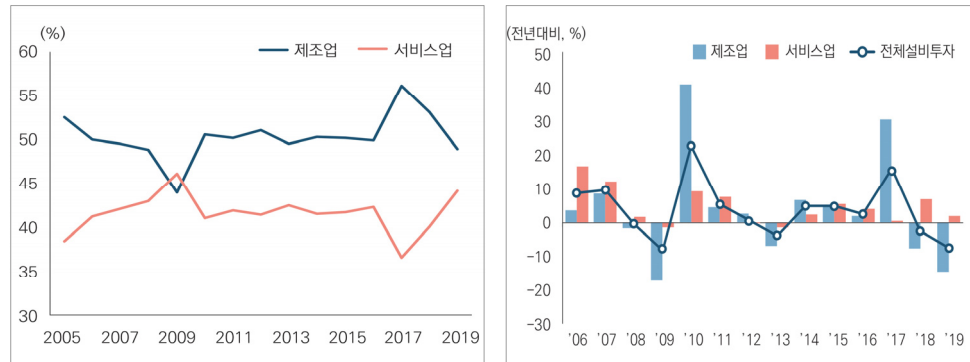
업종별	주요 산업별 설비투자				
	2015	2016	2017	2018	2019
제조업	71.5 (50.2)	72.9 (49.8)	95.5 (56.1)	88.2 (53.1)	75.3 (48.9)
석유화학	12.9 (9.1)	12.4 (8.5)	15.8 (9.3)	14.0 (8.4)	11.6 (7.5)
금속제품	5.5 (3.9)	4.9 (3.4)	5.3 (3.1)	5.3 (3.2)	4.9 (3.2)
전기및전자기기	29.8 (20.9)	32.4 (22.2)	49.7 (29.2)	44.8 (27.0)	36.4 (23.6)
운송장비	11.3 (7.9)	11.8 (8.1)	11.7 (6.8)	11.9 (7.2)	12.0 (7.8)
서비스업	59.3 (41.6)	61.8 (42.3)	62.2 (36.5)	66.5 (40.0)	67.9 (44.1)
운수업	16.0 (11.2)	16.6 (11.4)	16.0 (9.4)	17.0 (10.2)	17.4 (11.3)
정보통신업	8.9 (6.3)	9.6 (6.5)	9.3 (5.5)	9.5 (5.7)	9.9 (6.5)
공공행정및국방	12.2 (8.6)	13.2 (9.0)	13.4 (7.9)	16.1 (9.7)	18.3 (11.9)
전기가스수도업	6.6 (4.6)	6.2 (4.2)	6.9 (4.1)	6.1 (3.6)	5.8 (3.8)
전체 설비투자	142.4 (100)	146.2 (100)	170.3 (100)	166.3 (100)	153.9 (100)

주: ()안은 각 산업의 설비투자액이 전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59]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설비투자 비중 및 규모 추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설비투자 비중 추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설비투자 증감 추이]



자료: 한국은행

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가. 2021년 전망

□ 2020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업황 악화에
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등 기타지식재산생산물과 정부 R&D 투자를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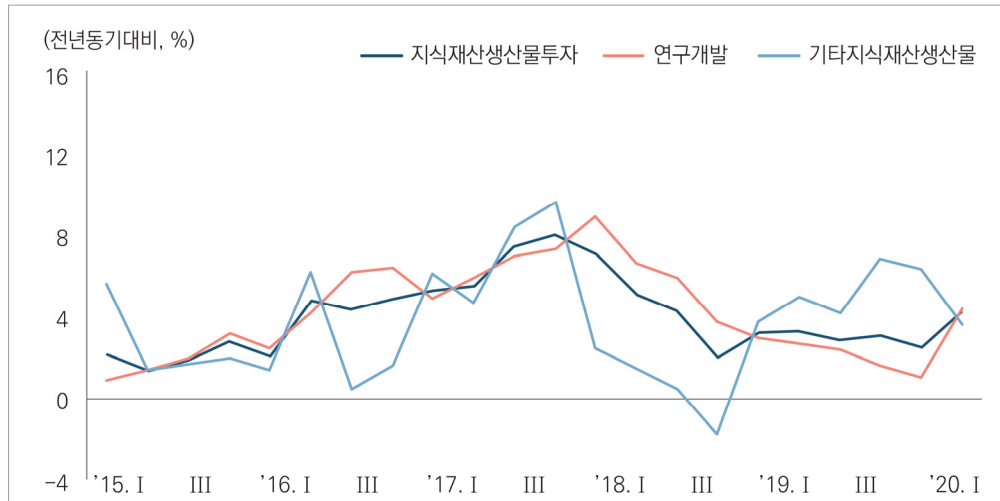
- 올해 들어 지식재산물투자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기업매출 감소*에도 불구
하고 R&D투자 증가폭이 소폭 둔화되는 데 그치고, 비대면활동 증가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 등으로 상반기 증가폭이 전년대비 소폭 확대

- 지식재산생산물투자(전년대비,%): ('19년 상반기)3.2 → (하반기)2.9 → ('20년
상반기)3.3
- 연구개발투자(전년대비,%): ('19년 상반기)2.8 → (하반기)1.9 → ('20년 상반기)2.7
-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²⁰⁾(전년대비,%): ('19년 상반기)4.3 → (하반기)5.4
→ ('20년 상반기)4.9

* 기업매출액(전년대비,%): ('19.3/4분기) - 2.8 → (4/4분기) - 0.5 →
('20.1/4분기) - 1.9

20) 소프트웨어, 오락문학작품 및 예술품 원본, 광물탐사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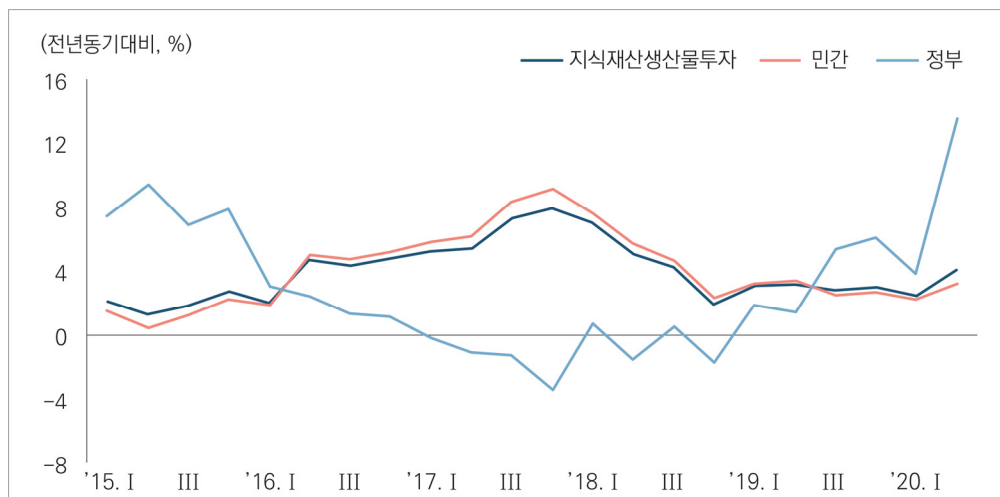
[그림 60] 자본재형태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자료: 한국은행

- 민간부문은 금년 상반기 2.7% 증가하여 전년동기(3.3%)에 비해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정부부문은 전년동기대비 8.7% 증가하여 전년(1.7%)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
 - 민간(전년대비,%): ('19년 상반기)3.3 → (하반기)2.6 → ('20년 상반기)2.7
 - 정부(전년대비,%): ('19년 상반기)1.7 → (하반기)5.8 → ('20년 상반기)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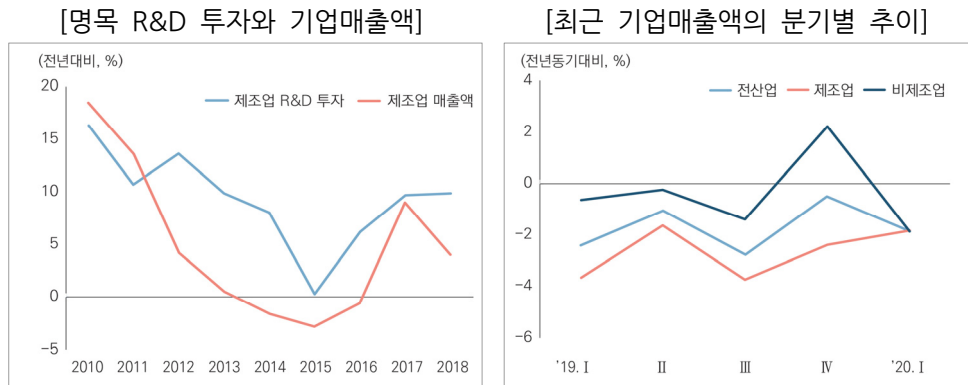
[그림 61] 투자주체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기업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IT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지출 증가 추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되며 전년대비 2.9% 증가할 전망

[그림 62] R&D 투자와 기업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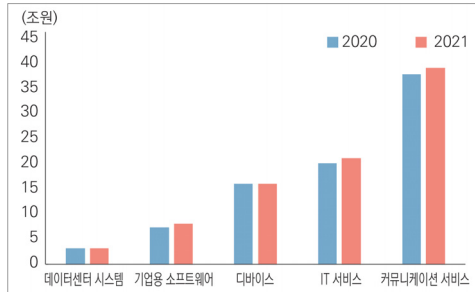
주: 1. 산업별 명목 R&D투자 및 기업매출액은 2018년 자료까지 이용 가능
 2. 최근 기업매출액의 분기별 추이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참조
 자료: 한국은행

- 2021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4차산업과 비대면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정부의 R&D예산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3.2% 증가할 전망
 - 민간의 지식재산물투자는 4차산업 관련 R&D투자와 기업의 비대면활동 관련 IT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용 소프트웨어 등을 중심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 민간 R&D투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 감소와 경기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전년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기타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영업, 기업내 업무 관련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며 관련 소프트웨어 지출이 견실하게 증가할 전망
 - * 한국IT 지출액(조원): ('19년)77.3 → ('20년)82 → ('21년)85.1
 - *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지출은 2019년 6.4조원에서 2020년 7.1조원 (10.4%), 2021년 7.8조(9.8%)으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
 - * 세계IT 지출액²¹⁾(십억달러, 전년대비%): ('19년)3,737(0.5%) → ('20년) 3,865(3.4%) → ('21년) 4,007(3.7%) (가트너, 2020.1월 전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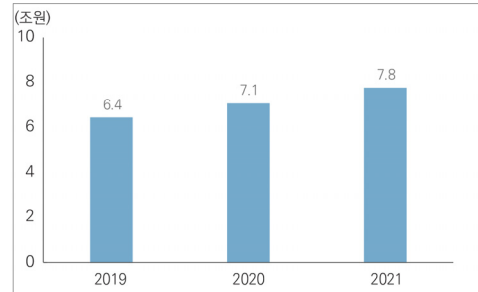
21) IT지출액은 기업용소프트웨어, 디바이스, IT서비스, 통신서비스, 데이터센터 시스템 등으로 분류

[그림 63]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및 기업용 소프트웨어 지출 전망

[부문별 국내 소프트웨어 지출 전망]



[국내 기업용 소프트웨어 지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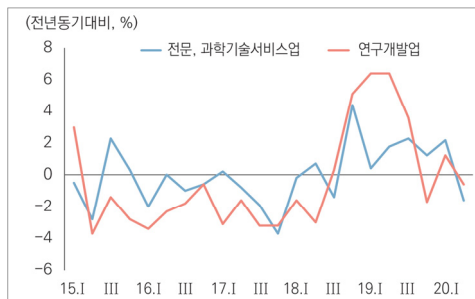


자료: 가트너(2020.1월 전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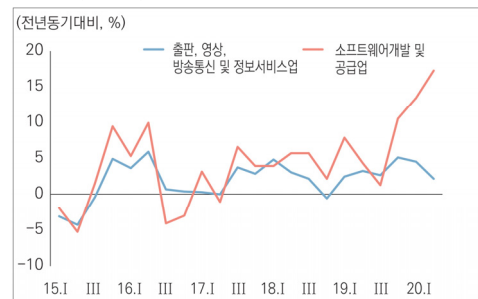
- 정부부문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R&D예산규모 확대와 소프트웨어 발주 증가로 전년(3.1%)보다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
 -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2020년(24.2조원, 18.0%)에는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1년에도 27.2조원(12.3%)으로 확대 편성
 - * 정부 연구개발 예산 규모(조원): ('19년)20.5 → ('20년)24.2 → ('21년)27.2
 - *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발주액(조원): ('18년)3.3 → ('19년)3.6 → ('20년)3.8
- 향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생산이 연구개발업을 중심으로 견실히 증가하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생산 증가율도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공급업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그림 64] 지식재산생산물투자 관련 서비스업 생산지수 추이

[연구개발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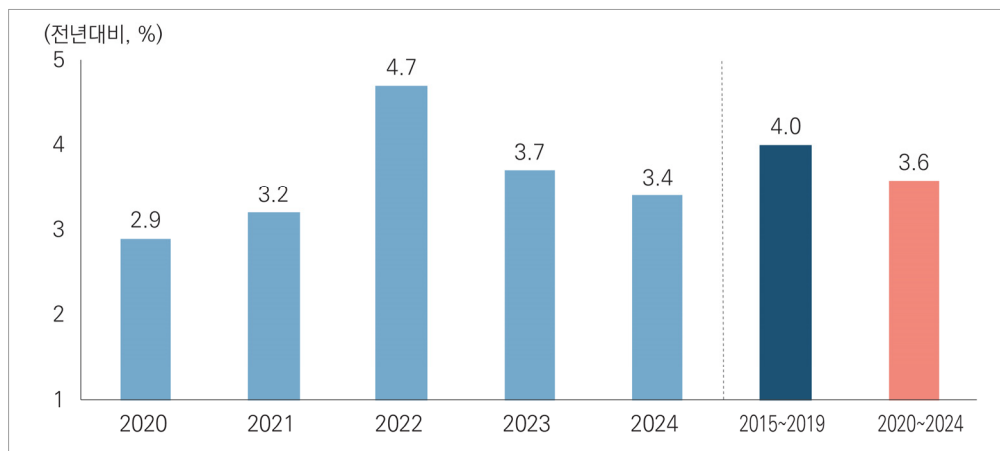
주: 연구개발서비스업 및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생산지수는 불변지수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나. 중기 전망

- 2020~2024년 중 지식생산물투자는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비중 확대 및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기업지출 증가에 힘입어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향후 5년 기간 중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평균 3.6% 증가하여 지난 5년 기간(2015~2019년, 연평균 4.0%)에 비해 소폭 둔화될 전망
 - 2020~2021년 중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매출이 부진하여 R&D 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IT서비스관련 기업지출이 증가하며 기타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
 - 2022~2024년 중에는 기업 R&D투자 증가세가 확대되며 연평균 3.9%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그림 65] 중기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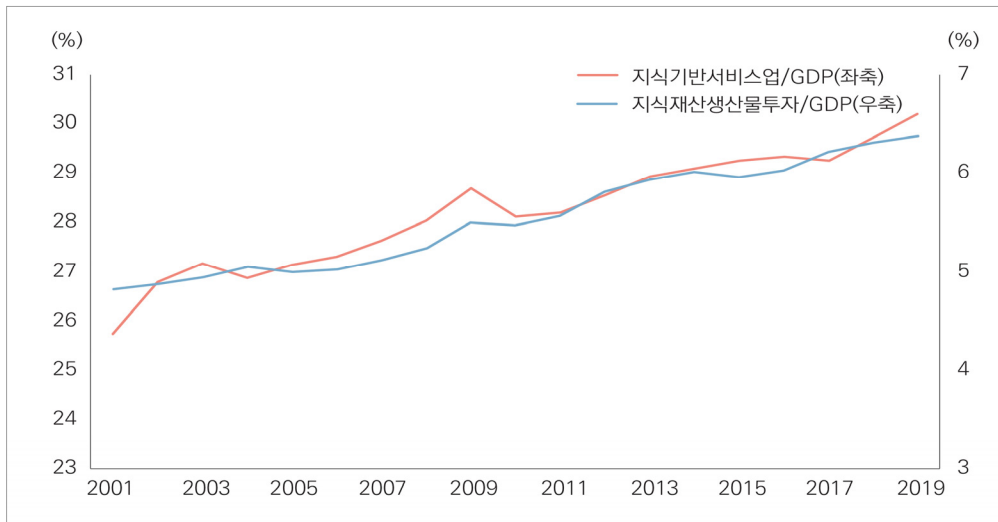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중기적으로 ICT산업 및 4차 산업 성장 지속, 국내 지식기반산업서비스업²²⁾ 비중 증가 등의 영향으로 관련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22) 지식기반산업은 지식을 창출·가공·활용하여 고부가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됨. 통상, OECD나 산업자원부의 분류에 따라 지식기반제조업은 전자정보기기, 반도체, 정밀화학, 생물산업, 신소재, 환경, 항공우주 등이 포함되며, 지식기반서비스업은 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교육, 보건의료, 오락문화스포츠 등의 분야가 이에 해당

- ICT산업/GDP비중(%): ('10년)8.2 → ('15년)9.4 → ('19년)10.3
- 지식기반서비스업/GDP비중(%): ('10년)28.1 → ('15년)29.2 → ('19년)30.2
- 지식재산생산물투자/GDP비중(%): ('10년)5.5 → ('15년)6.0 → ('19년)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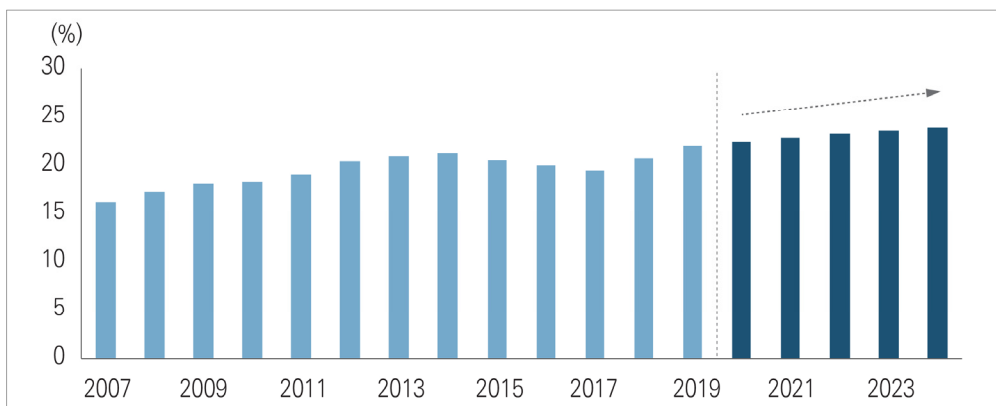
[그림 66]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GDP대비 비중 추이



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생산은 산업별 실질GDP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계산
자료: 한국은행

-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총고정자본투자(건설투자+설비투자+지식재산생산물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망기간 중 2020년 22.4%에서 2024년에는 23.9%로 상승할 전망
 -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기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의 주요 요인이 됨에 따라 전체 고정자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지식재산생산물투자/총고정자본투자비중(%): ('10년)18.3 → ('15년)20.5 → ('19년)22.0

[그림 67] 지식재산생산물투자/총고정자본투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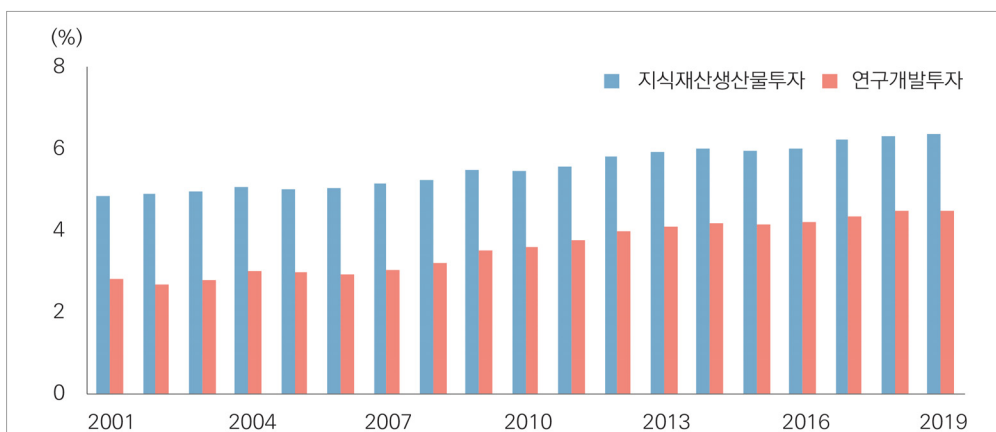
주: 2020년 이후는 부문별 전망치를 기초로 계산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계산

□ 연구개발투자는 IT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민간부문은 ICT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
 - 우리나라의 GDP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세계 1위이며 향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연구개발투자/GDP 비중(%): ('10년)3.6 → ('15년)4.1 → ('19년)4.5
 - R&D투자/GDP 비중(OECD 2017년 기준, %): 한국 4.81(2018년 기준), 미국 2.79, 독일 3.04, 일본 3.21, 중국 2.15, 영국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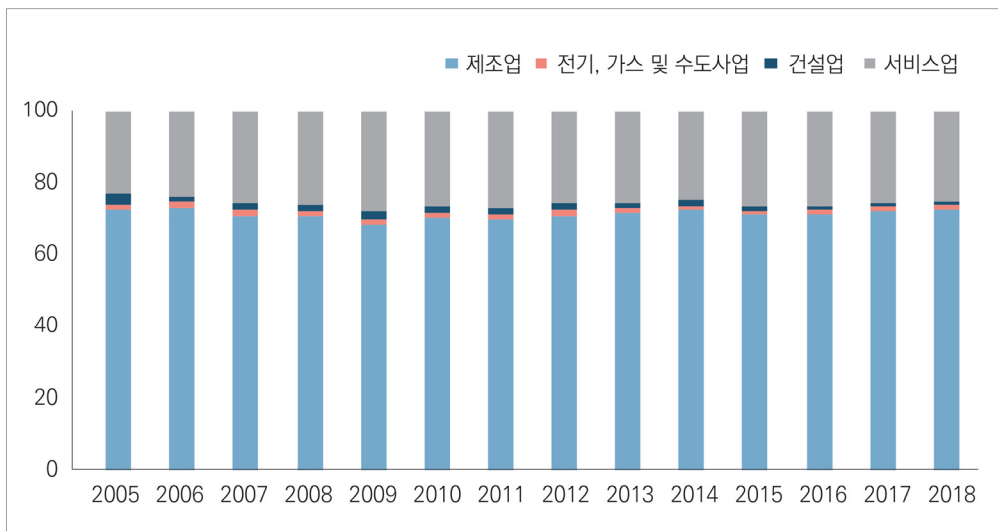
[그림 68] 지식재산생산물 및 연구개발투자의 GDP대비 비중 추이



자료: 한국은행

-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제조업의 비중이 2015년 이후 소폭 확대되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감소
- * 연구개발투자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71.1%에서 2018년 72.8%로 확대된 반면 서비스업은 동기간 26.5%에서 25.2%로 축소
- * 전체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산업별 비중(2018년 기준, %): 제조업 57.9, 서비스업 39.1, 건설업 1.5, 전기가스수도업 1.3
- * 연구개발투자의 산업별 비중(2018년 기준, %): 제조업 72.8, 서비스업 25.2, 건설업 0.8, 전기가스수도업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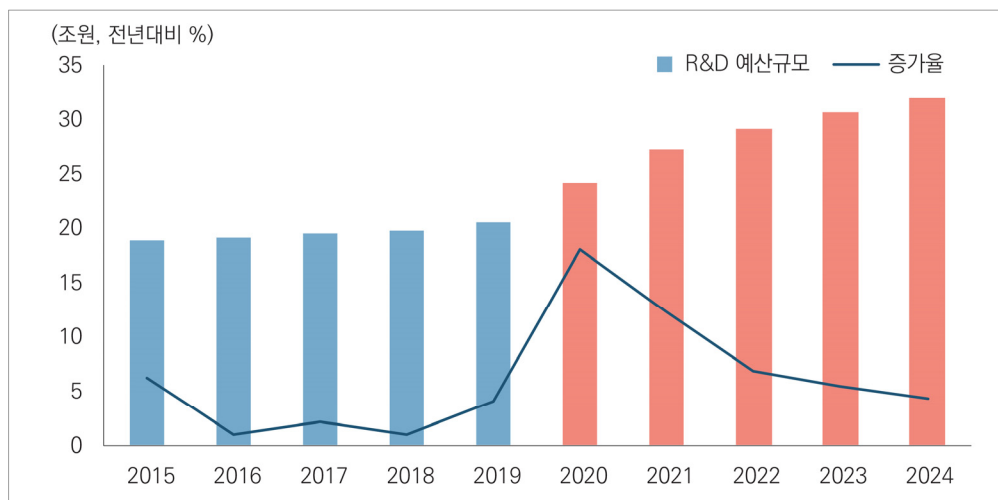
[그림 69]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비중 추이



주: 산업별 연구개발투자는 2018년까지 자료만 이용 가능
자료: 한국은행

- 정부부문은 소재부품 분야 경쟁력 제고, 5G, 인공지능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되며 전체 연구개발투자 증가에 기여할 전망
 -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가경쟁력 제고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자 확대 예상됨
 - 정부 R&D예산은 2020~24년 기간 중 연평균 9.4% 증가: (‘20년)24.2조원(18.0%) → (‘21년)27.2조원(12.3%) → (‘22년)29.1조원(6.9%) → (‘23년)30.7조원(5.4%) → (‘24년)32.0조원(4.3%)

[그림 70] 정부 R&D예산 추이 및 계획



자료: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기타지식생산물투자는 소프트웨어 및 문화컨텐츠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
 -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공장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업 소프트웨어 시장이 다른 IT분야 지출에 비해 빠르게 늘어날 전망
 - 세계 기업소프트웨어 지출 규모²³⁾(전년대비,%): (‘19년)8.5(4,560억 달러) → (‘20년)10.5(5,030억 달러) → (‘21년)10.5(5,560억 달러)
 - 한국 기업소프트웨어 지출 규모(조원): (‘19년)6.4 → (‘20년)7.1 → (‘21년)7.8 (가트너, 2020.1월 전망 기준)

6. 대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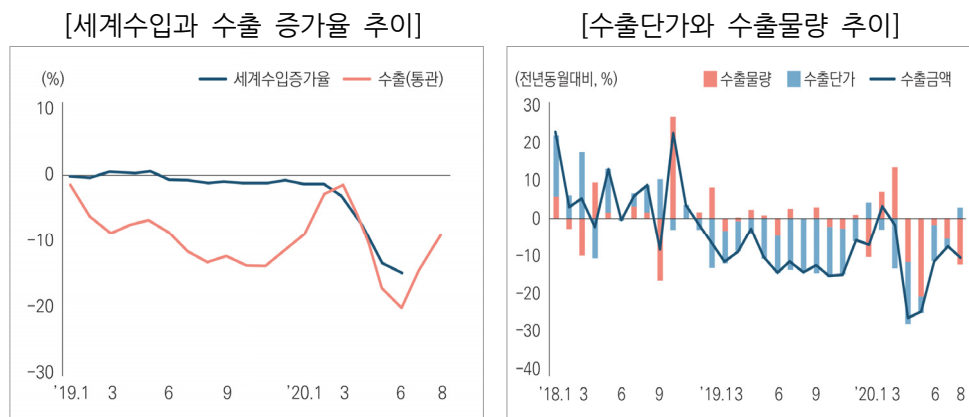
가. 2021년 전망

- 수출(통관기준)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연간 -9.8% 급락한 뒤 2021년에는 세계경제회복세와 전년도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7.5% 증가할 전망

23) 가트너(2020. 1월) 전망 기준

- 2020년 통관 수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침체와 세계교역위축 등으로 전년대비 9.8% 급락할 전망
 - 통관 수출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 본격화된 2020년 2/4분기 중 전년대비 두 자릿수 큰 폭 감소를 기록하였으며 하반기 들어 감소폭이 축소
 - 2020년 1~8월 중 수출금액 감소는 수출물량 감소(-5.2%)와 수출단가 하락(-5.1%)이 동반되며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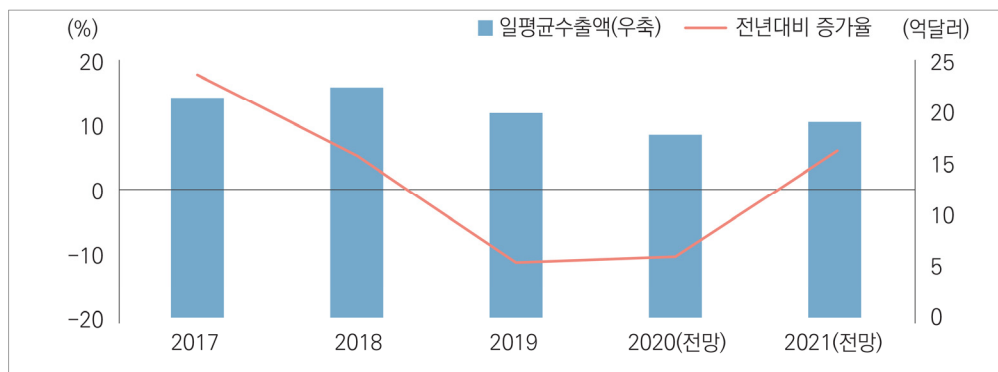
[그림 71] 수출금액, 수출단가, 수출물량 추이



주: 세계수입은 상품물량기준, 3개월 이동평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CPB

- 2021년 통관 수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크게 위축된 세계경제성장과 세계 교역량이 점차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수출물량과 수출단가가 개선되는 가운데 일평균 수출액도 증가할 전망
 -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각국의 생산, 소비, 투자 확대를 위한 자본재, 소비재 등 해외수입수요가 증가할 전망
 - 일평균 수출액은 2020년 전년대비 10.2% 감소한 17.9억달러 수준에서 2021년 7.1% 증가한 19.2억달러로 확대되겠으나, 2019년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할 전망 (일평균 수출액: '19년 20억달러, '20년 17.9억달러 전망, '21년 19.2억달러 전망)

[그림 72] 일평균수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품목별로는 2020년 반도체와 컴퓨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IT 품목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경기회복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투자수요 증대의 수혜가 예상되는 석유제품, 일반기계 등을 중심으로 비IT 품목 수출도 개선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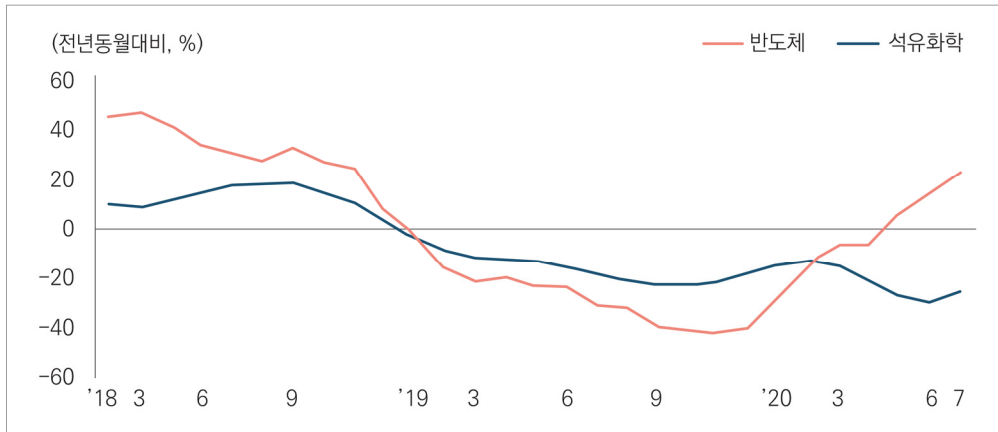
[표 10] 주요 품목별 수출증감률과 비중 변화

(단위: 전년대비, %, 비중, %p)

	2019년		2020년(1~8월)		
	증감률	비중	증감률	비중	수출기여도
반도체	-25.9	17.3	0.5	19.4	0.1
일반기계	-1.9	9.7	-10.8	9.6	-1.0
석유화학	-14.8	7.9	-19.9	7.2	-1.6
자동차	5.3	7.9	-23.2	6.7	-1.8
석유제품	-12.2	7.5	-38.0	5.2	-2.9
철강	-8.6	5.7	-17.9	5.3	-1.0
자동차부품	-2.5	4.2	-28.1	3.4	-1.1
디스플레이	-17.0	3.8	-24.7	3.2	-0.9
선박	-5.2	3.7	-10.6	3.9	-0.4
무선통신기기	-17.6	2.6	-12.5	2.4	-0.3
섬유류	-8.0	2.4	-18.0	2.2	-0.4
컴퓨터	-20.6	1.6	82.5	2.8	1.3
가전	-3.6	1.3	-9.8	1.3	-0.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그림 73]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단가 추이



주: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

자료: 무역협회

- 주요 지역별로는 각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양상, 경제정책 지원여력, 경제·사회적 안정 구조 등에 따른 수출 차별화가 예상되며 대선진국 수출이 중국을 제외한 대신홍개도국보다 우호적 수출환경으로 개선 폭이 클 것으로 전망

[표 11] 주요 지역별 수출증감률과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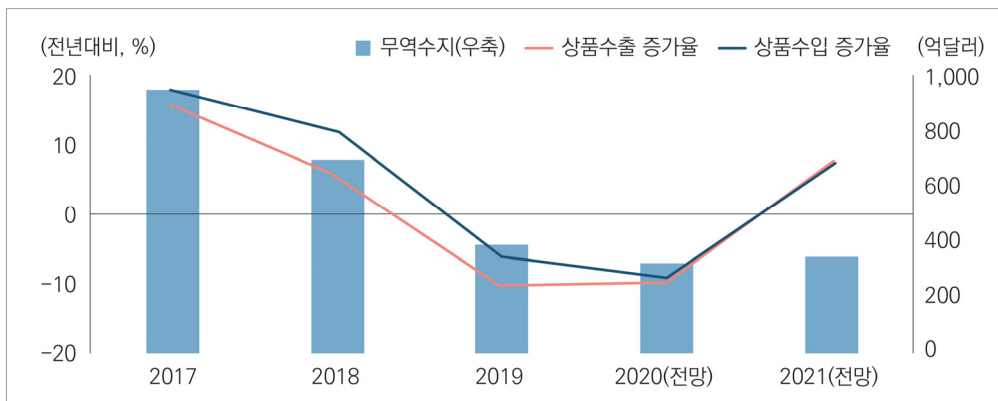
(단위: 전년대비, %, 비중)

	2019년		2020년(1~8월)	
	증감률	비중	증감률	비중
중국	-16.0	25.1	-4.4	26.1
아세안	-5.0	17.5	-11.3	17.5
미국	0.9	13.5	-3.7	14.4
EU	-8.5	9.7	-10.8	9.9
베트남	-0.9	8.9	-7.1	9.1
일본	-6.9	5.2	-12.1	5.2
중남미	-5.2	4.9	-33.6	3.7
중동	-18.6	3.3	-14.2	3.0
인도	-3.3	2.8	-33.9	2.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 2021년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20년(322억달러)대비 29억달러 확대된 351억달러 전망
- 상품수출은 전년대비 7.5% 증가한 5,253억달러, 상품수입은 7.3% 증가한 4,902억달러를 각각 기록할 전망
 -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17년(952억달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수출 부진이 지속되며 축소되어 왔으며 2021년에는 고점 대비 37% 수준의 흑자를 보일 전망
 - 무역수지(억달러): ('17년)952 → ('19년)389 → ('20년 전망)322 → ('21년 전망)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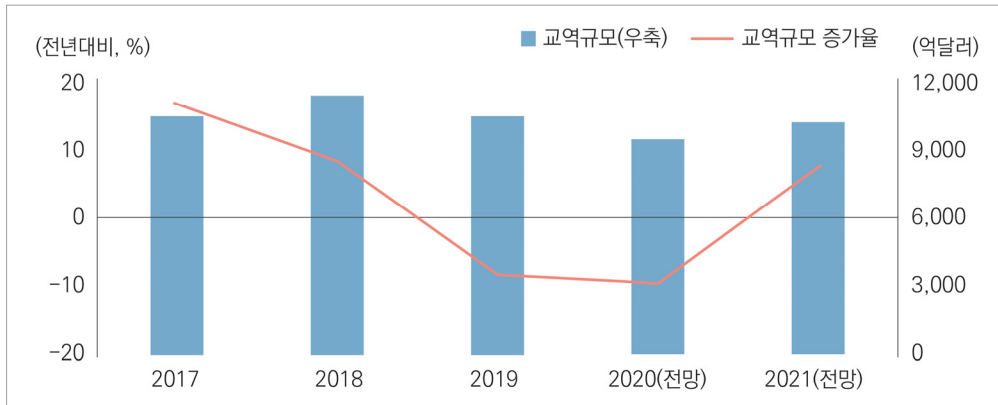
[그림 74] 무역수지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부

- 2021년 상품수출금액과 상품수입금액을 합한 교역규모는 1조 달러대로 회복되겠으나, 2019년 수준을 소폭 하회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의 교역규모는 2019~2020년 기간 중 세계경기부진과 코로나19 충격으로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하면서 2020년 1조 달러를 하회할 전망
 - 2021년에는 완만한 세계경기회복세에 힘입어 교역규모가 다시 1조 달러대에 진입하겠으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에는 소폭 미치지 못할 전망
 - 교역규모(억달러): ('19년)10,456 → ('20년 전망)9,456 → ('21년 전망)10,156
 - 교역규모 증가율(%): ('19년)-8.3 → ('20년 전망)-9.6 → ('21년 전망)7.4

[그림 75] 교역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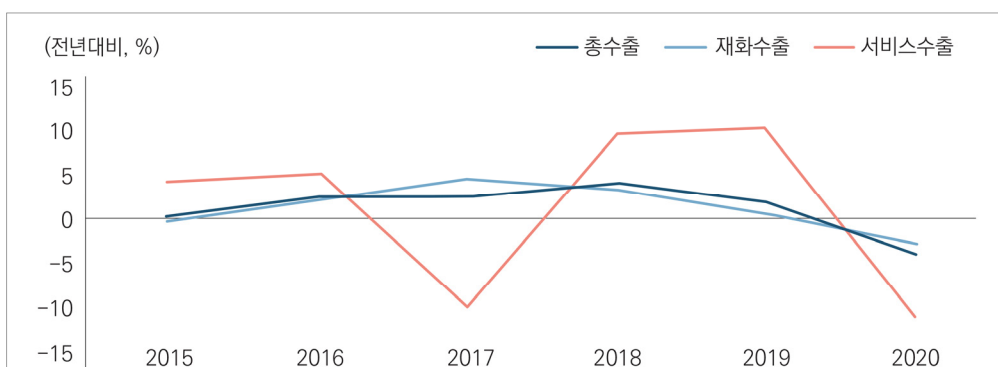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부

□ 총수출(국민계정 물량기준)은 2021년 3.6% 증가 전망

- 총수출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2020년 5.5% 큰 폭 감소 후, 2021년에 재화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될 전망
 - 2020년 서비스수출은 외국인 방한객 급감 등으로 전년대비 10%를 상회하는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2021년에도 재화수출에 비해 더딘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 서비스수출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3%(2019년 기준) 수준
- 총수입은 2020년 국내 경기침체로 4.5% 감소를 기록한 후, 2021년에는 4.5% 증가 전환할 전망

[그림 76] 재화 및 서비스 수출 추이



주: 2020년은 상반기 수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표 12] 수출입 증감률 전망(국민계정)

(단위: 전년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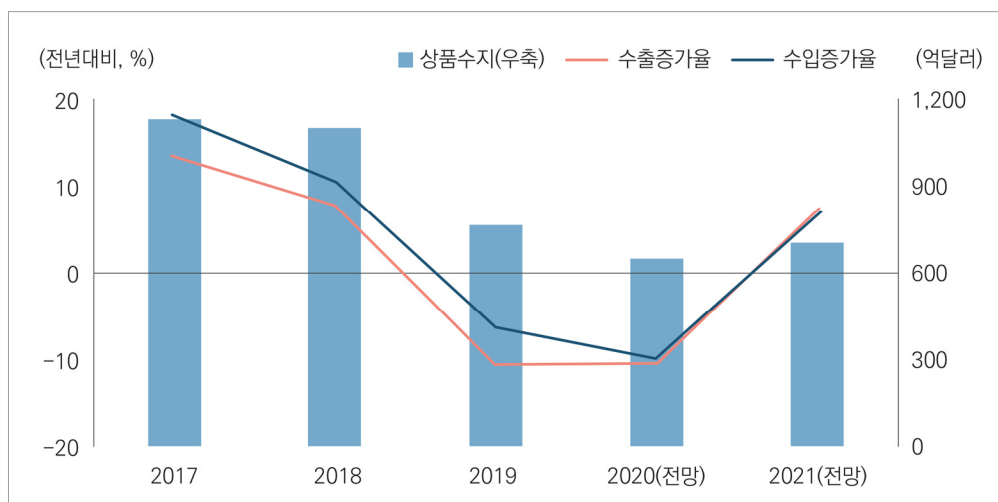
	2019	2020(전망)	2021(전망)
총수출	1.7	-5.5	3.6
총수입	-0.6	-4.5	4.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2021년 경상수지는 대외 수출 개선세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확대되면서 연간 555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

- 상품수지는 2020년에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수출 급감으로 전년도(769억달러)에 비해 흑자규모(650억달러)가 큰 폭으로 축소되고, 2021년에는 해외수요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여 709억달러로 흑자규모가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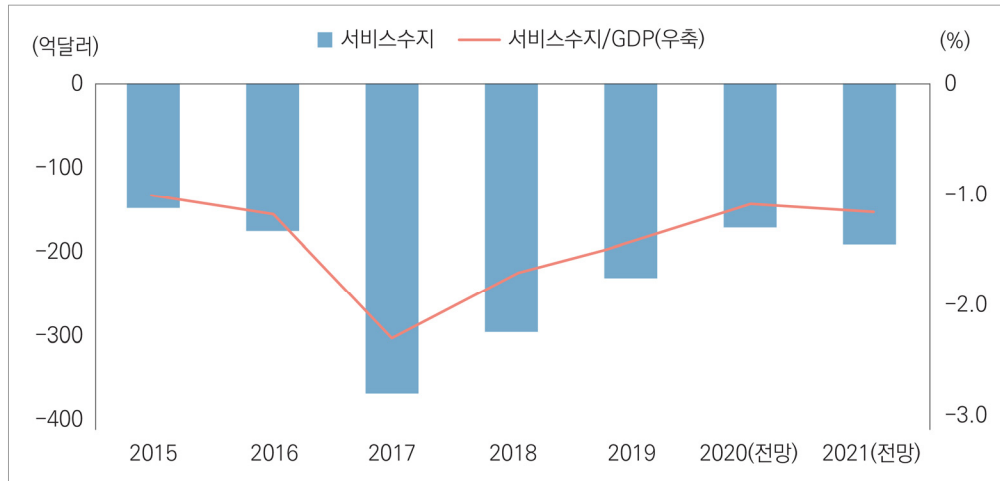
[그림 77] 상품수지 전망(BOP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2020년 여행·운수 등 서비스수지가 크게 개선되면서 적자폭이 축소된 후,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진정으로 해외여행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점차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전년대비 확대될 전망
 - GDP대비 서비스수지 적자 비중은 2019년 -1.4%에서 2020~2021년에는 -1.1% 수준으로 축소

[그림 78] 서비스수지와 GDP대비 비중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표 13] 경상수지 전망

(단위: 억 달러)

	2018	2019	2020(전망)	2021(전망)
경상수지	775	600	540	555
상품수지	1,101	769	650	709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 326	- 169	- 110	- 15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나. 중기 전망

- 2020~2024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수출은 세계경제의 저성장 흐름, 보호 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등 대외수출환경이 불리해지는 가운데 낮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
 - 통관 수출은 2020~2024년 기간 중 연평균 1.8% 증가하여 이전 5년(2015~2019년) -0.6%의 극심한 부진에서는 개선되지만 과거에 비해 여전히 낮은 증가율에 그칠 전망

- 우리나라의 통관기준 수출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0~2008년 연평균 13.3% 증가)까지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저성장세, 미·중 무역분쟁 격화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등으로 세계교역신장률이 둔화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
- 국민계정 상 총수출(물량) 또한 2020~2024년 연평균 1.2% 증가할 전망으로 이전 5년(2015~2019년)의 2.2% 증가보다 낮아질 전망
 - 총수출(물량)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영향으로 2020년 전년대비 5.5% 급락한 뒤 2021년에는 완만한 경기회복세와 기저효과에 힘입어 3%대 중반대로 증가하고 이후 점차 둔화될 전망
 - 총수출의 GDP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이전 5년(2015~2019년) 기간 중 0.9%p에서 2020~2024년 기간 중 0.5%p 낮아질 전망

[표 14] 중기 수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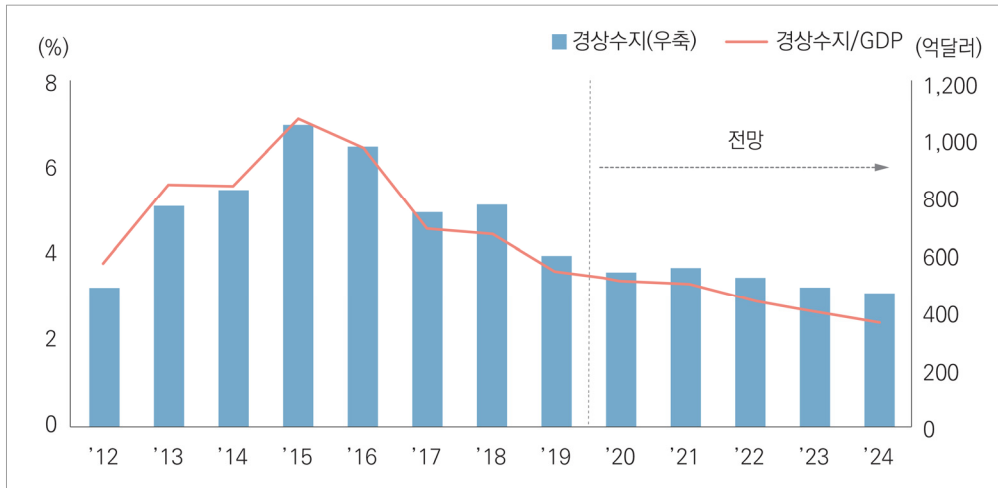
(단위: 기간 연평균, %)

	2015~2019년	2020~2024년
수출(통관기준)	-0.6	1.8
총수출(국민계정 물량)	2.2	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명목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21년 3.3%에서 점차적으로 하락하여 2024년 2.5% 수준을 보일 전망
- 경상수지(GDP대비) 흑자 비율은 상품수지 흑자폭이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서비스·소득·이전소득수지 적자폭은 확대 추세를 나타내면서 하락할 전망
 - 중기적 시계인 2020~2024년 기간 중 경상수지(GDP대비) 흑자 비율은 평균 3.0% 수준으로 전망되어 이전 5년(2015~2019년) 기간 중 5.3%에 비해 2.3%p 하락할 전망

[그림 79] 명목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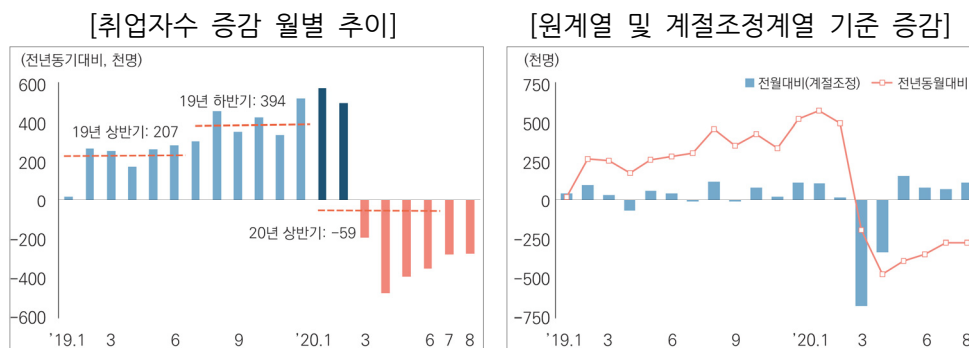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7. 고용

가. 2021년 전망

- 최근 노동시장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3월 이후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고용여건이 악화
 - 2020년 1~8월 중 노동시장은 1~2월 중에는 양호한 고용증가폭을 유지하였으나,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된 3월 이후 8월까지 대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감소가 지속
 - 전체 취업자수 증감(전년동기대비, 만명): ('20.1~2월)53.0 → (3~8월)-32.8
 - 지난 4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진정과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전체 취업자수의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이 축소되고 계절조정 전월대비로는 5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
 -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8월 중순 이후 실시되고 있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반영되는 9월 이후 고용지표는 빠른 개선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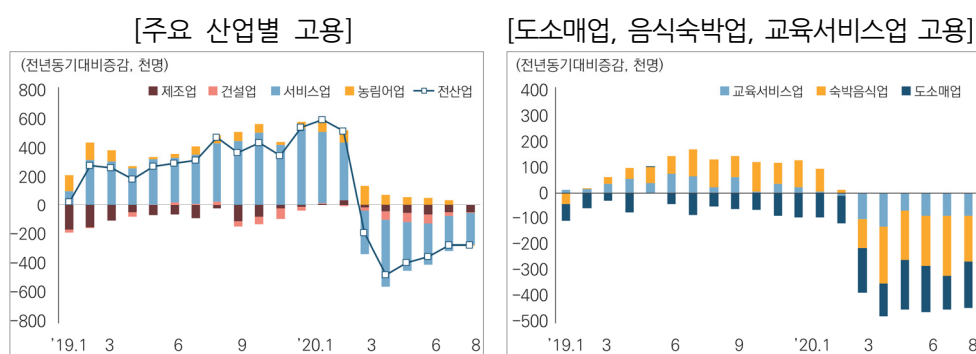
[그림 80] 전체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주요 업종에서 3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
 - 3~8월 중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전년동기대비, 만명): 전산업 -32.8, 농림어업 5.8, 제조업 -4.9, 건설업 -3.9, 서비스업 -29.8
 - 특히 가게 소비활동 위축과 방한 외국인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²⁴⁾이 집중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종의 고용여건이 크게 악화
- * 3~8월 중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수(전년동기대비, 만명): 도소매업 -16.0, 숙박음식업 -18.1, 교육서비스업 -9.5

[그림 81] 산업별 취업자수 월별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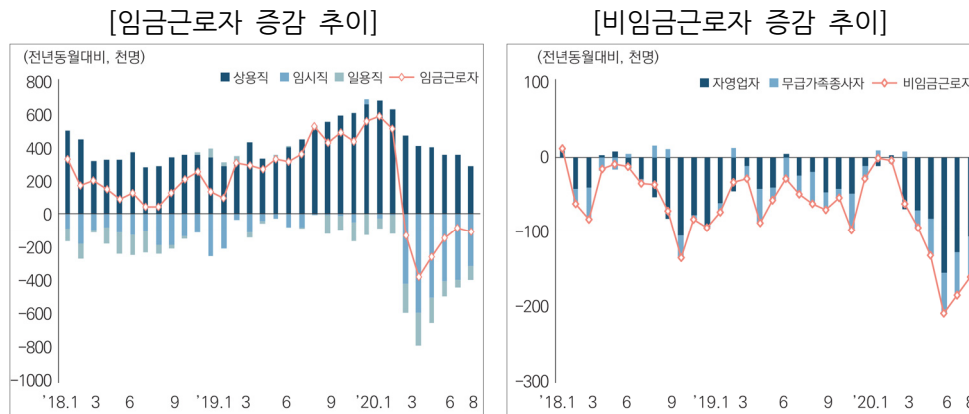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4) 방한 외국인 감소가 국내 서비스업의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NABO 경제동향 & 이슈 5월호 이슈분석 “코로나19 이후 방한 외국인 감소가 국내 서비스업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참조

- 종사상지위별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임금근로자는 임시직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고용여건이 악화
 - 3~8월 중 임금근로자수 증감(전년동기대비, 만명): 전체 임금근로자 -18.8, 상용직 37.2, 임시직 -43.8, 일용직 -12.1
 - 3~8월 중 비임금근로자수 증감(전년동기대비, 만명): 전체 비임금근로자 -14.0, 자영업자 -10.2(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8.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0), 무급가족종사자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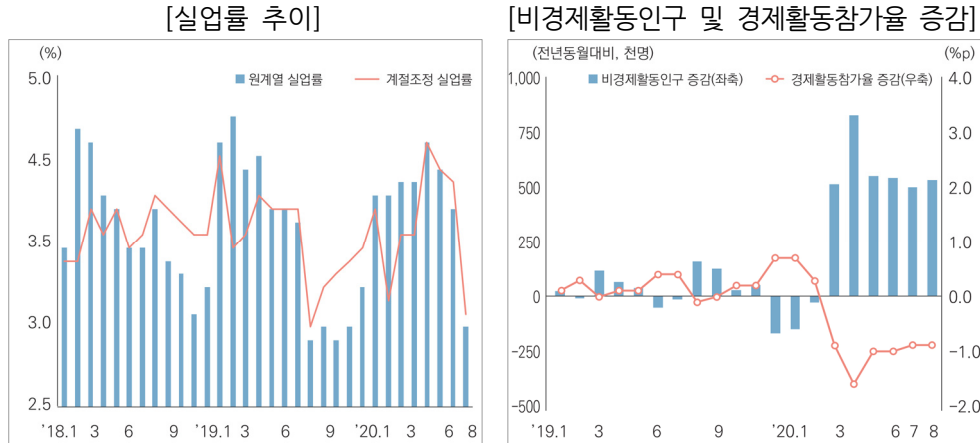
[그림 82]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취업자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0년 노동시장은 9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상존한 가운데 제한적인 경제활동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
 - 9월 이후에도 전면적인 경제활동재개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며 일정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가운데 2020년 전체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16.8만여명 감소할 전망
 - 경제활동참가율은 고용여건이 악화되며 가사, 취업준비, 구직단념자 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 전년(63.3%)보다 0.6p 하락하여 62.7% 예상
 - 고용률(15세이상인구 중 취업자 비율)과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60.2%, 4.1%로 고용률은 전년보다 0.7%p 하락하고 실업률은 0.3%p 상승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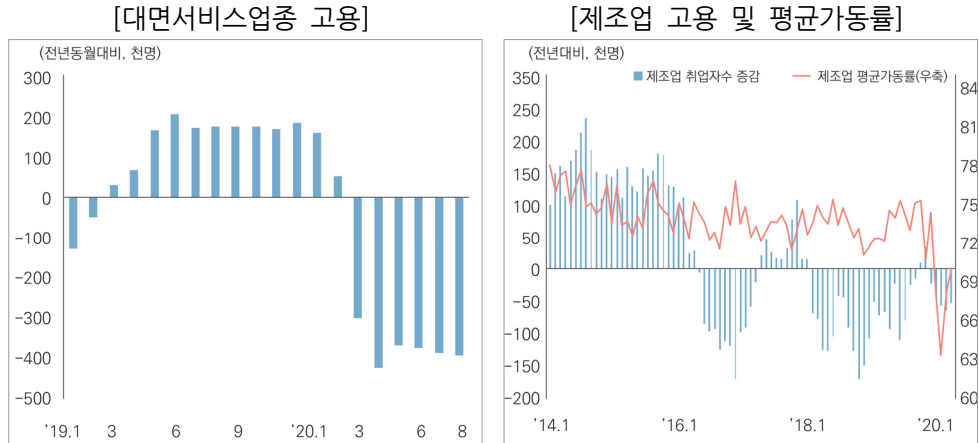
[그림 83] 실업률 및 경제활동인구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전체 취업자수는 불안정한 경기회복과 주요 대면서비스 업종의 완만한 업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8여만 명 증가하여 2020년의 감소폭을 회복
- 경기여건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이 늘며 실업률은 빠르게 하락하지 않고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
 - － 실업률은 2020년 4.1%에서 소폭 하락하여 2021년 4.0%를 기록할 전망
 - 서비스업 고용은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상존한 상황에서 주요 대면서비스 업종은 안전한 소비활동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업황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업종의 고용여건도 더딘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제조업은 반도체 등 IT업종 중심으로 업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주요 업종의 가동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고용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그림 84] 대면서비스업종 및 제조업 고용 증감 추이



주: 대면서비스 업종 고용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창고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을 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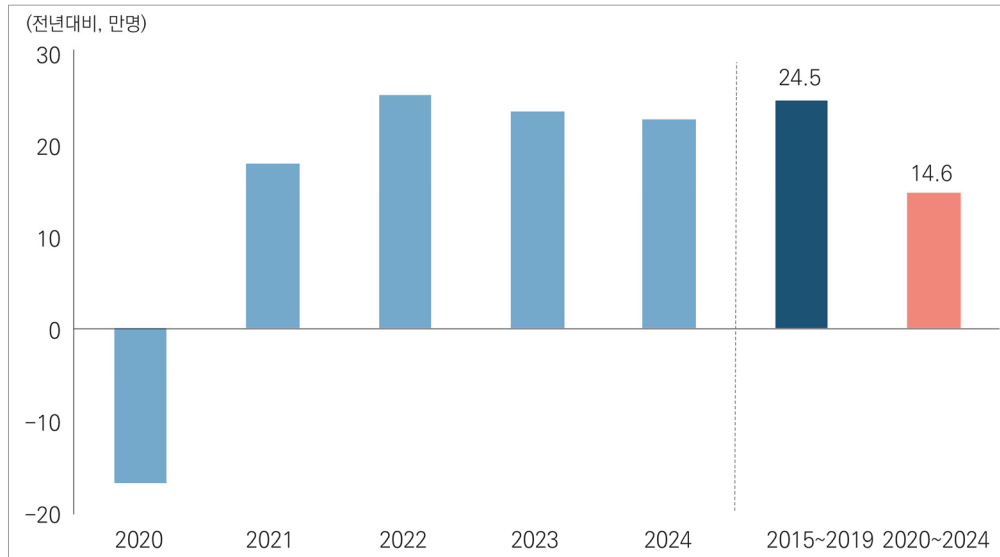
-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R&D 예산 확대 등은 공공행정, 보건복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고용 부진을 완화할 전망
 - 보건·복지·고용 예산(조원): ('19년)161.0 → ('20년)180.5 → ('21년)199.9
(「2020~2024년국가재정운용 계획」 기준)
 - 재정지원일자리 예산(조원): ('18년)19.2 → ('19년)22.9 → ('20년)31.0²⁵⁾
 - R&D 예산(조원): ('19년)20.5 → ('20년)24.2 → ('21년) 27.2
- 2021년 중 전체 취업자수는 전년의 감소폭(-16.8만명)을 회복하며 17.8만명 증가할 전망

나. 중기 전망

- 2020~2024년 기간 중 취업자수 증가폭은 연평균 14.6만여명(0.5%)에 달할 전망
 - 2020~2024년 중 전체 취업자수는 연평균 14.6만명(0.5%) 증가하여 지난 5년(2015~2019년) 기간(24.5만명, 0.9%)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될 전망

25) 2019년은 집행액 기준, 2020년은 제3회 추경 확정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II」(2020.8월)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석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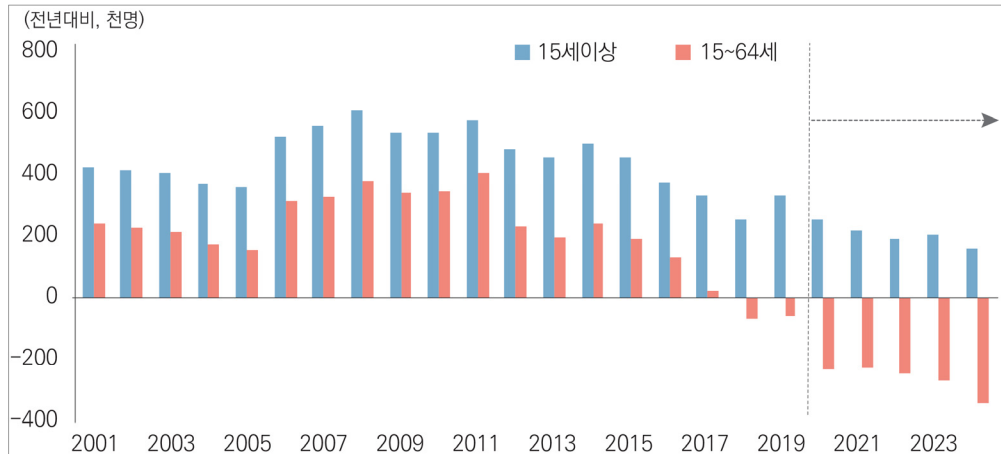
[그림 85] 중기 취업자수 증감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노동인구의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실업률은 상승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될 전망
 -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베이비붐세대(1955~63년생)가 늘어나며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증가세도 둔화되는 노동공급 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
 - 15세이상 인구(전년대비, 연평균, 만명): (‘15~’19년)34.2(0.8%) → (‘20~’24년) 20.2(0.4%)
 - 15~64세 인구(전년대비, 연평균, 만명): (‘15~’19년)6.7(0.2%) → (‘20~’24년) -26.2(-0.7%)
 - 경제활동인구(전년대비, 연평균, 만명): (‘15~’19년)27.0(1.0%) → (‘20~’24년) 16.2(0.6%)
 - 실업률(전년대비, 연평균, %): (‘15~’19년)3.7 → (‘20~’24년)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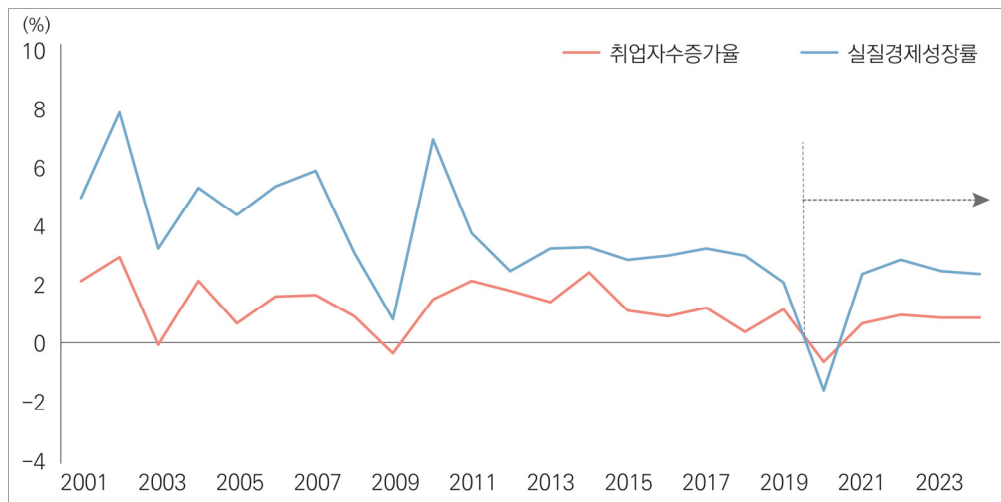
[그림 86] 인구구조 변화 전망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침체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향후 5년 기간 중
연평균 1.6%로 하락하며 노동수요 측면에서 둔화 요인으로 작용
 - － 경제성장률(연평균, %): ('15~'19년)2.8 → ('20~'24년)1.6
 - － 성장을 견인하는 IT제조업 등의 고용창출력 약화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일부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증가의 한계 등이 양적 고용증가세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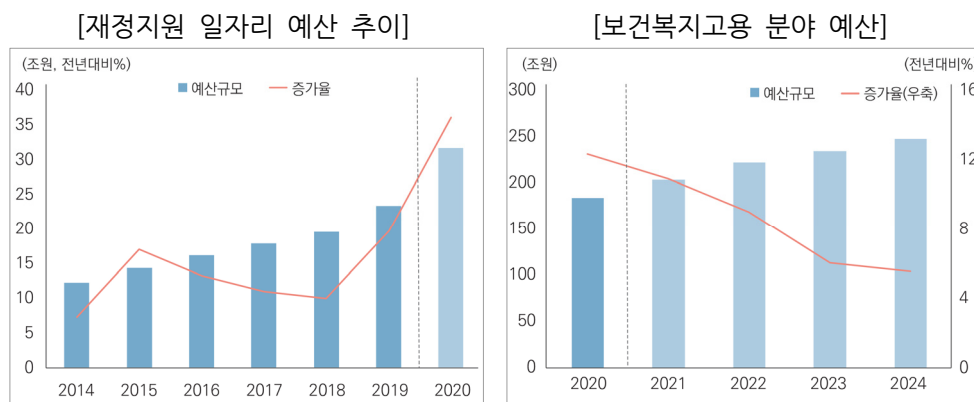
[그림 87]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수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 보건복지고용 부문 및 재정지원 일자리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공 행정,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확대 등을 중심으로 여성 및 고령층의 고용증가에 기여할 전망
 -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조원): (‘20년)180.5(12.1%) → (‘21년)199.9(10.7%) → (‘22년)217.4(8.8%) → (‘23년)230.2(5.9%) → (‘24년)242.7(5.4%) 연평균 8.6% 증가

[그림 88] 재정지원 일자리 및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배분



주: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 규모: 2019년은 집행액 기준, 2020년은 제3회 추경 확정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향후 5년간 실업률은 이전 기간(연평균 3.7%)보다 소폭 상승하여 연평균 3.9% 수준이 될 전망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과 고령층에서 상승
 - 실업률은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4.1%로 상승한 이후 완만한 경기회복으로 소폭 하락하겠지만 성장률 하락과 대면서비스업 업종의 업황 부진 등으로 이전 5년 기간에 비해 연평균 0.2%p 상승할 전망
 -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주요 대면서비스 업종과 제조업 등에서 온라인 소비활동 및 자동화 등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관련 일자리를 구축할 가능성
 - 실업률(연평균, %): (‘15~’19년)3.7 → (‘20~’24년)3.9
 -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와 은퇴 베이비붐세대의 노동시장 재진입등으로 여성과 고령층에서 완만히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2024년 63.7%에 이를 전망

-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2021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여
전망기간 중 연평균은 63.1%로 이전 기간과 동일한 수준이 될 전망
- 경제활동참가율(연평균, %): ('15~'19년)63.1 → ('20~'24년)63.1
- 고용률은 2020년 60.2%로 전년에 비해 0.7%p 큰 폭으로 하락하겠지만, 이
후 여성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2021년에는 60.3%,
2023년 60.9%, 2024년 61.2%에 이르고 2020~2024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60.7%를 기록할 전망
- 노동인구의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15세 이상 인구 기준의 고용
률이 상대적으로 정체되며 OECD비교 기준(15~64세) 고용률과의 격차가
확대될 전망
-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연평균, %): ('15~'19년)60.7 → ('20~'24년)60.7
- 15~64세 고용률(OECD비교 기준)과 15세 이상 인구 기준 고용률의 갭(%p):
('15년)5.4 → ('17년)5.8 → ('19년)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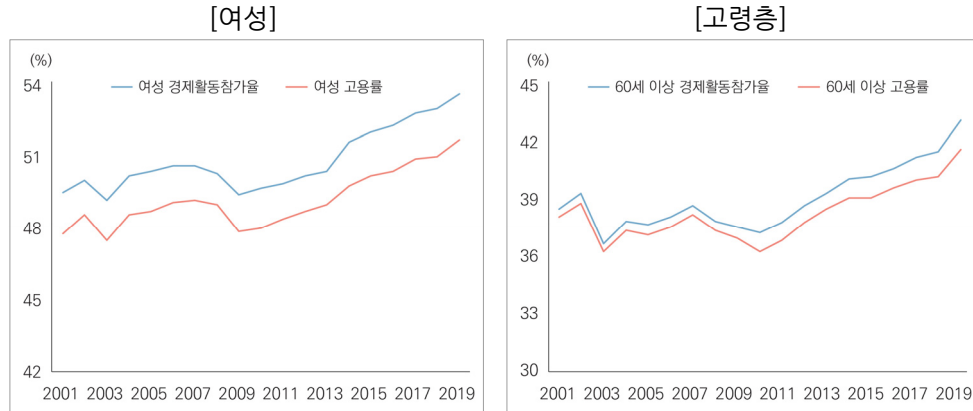
[표 15] 주요 고용변수 중기 전망

(단위: %)

기간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2020	4.1	62.7	60.2
2021	4.0	62.9	60.3
2022	3.8	63.1	60.6
2023	3.9	63.3	60.9
2024	3.9	63.7	61.2
2015~2019 평균	3.7	63.1	60.7
2020~2024 평균	3.9	63.1	6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89] 여성 및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추이



자료: 통계청

8.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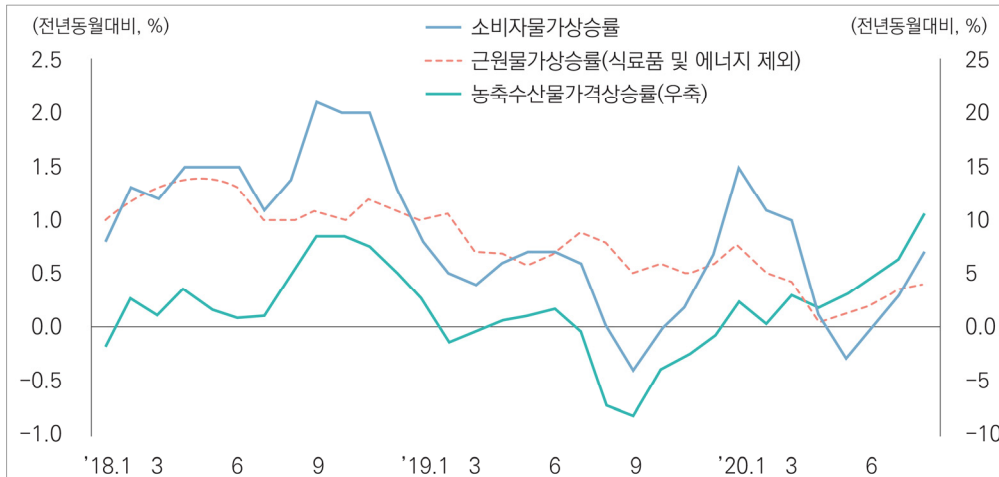
가. 2021년 전망

- 2020년 1~8월 중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가급락에 따른 석유류 가격 하락, 서비스물가 상승세 둔화 등으로 0.6% 상승에 그침
 -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난해 작황호조 등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데 따른 기저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7~8월 중 장마가 이어지면서 채소류 물가가 큰 폭 상승하고 재난지원금의 영향 등으로 축산물 소비가 늘면서 상승폭 확대
 - 농산물 가격은 역대 최장기간 장마(54일)와 집중호우 등으로 채소류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7월과 8월 각각 전년동월대비 4.9%, 12.1% 상승
 - 축산물 가격은 돼지, 닭, 오리의 사육마릿수²⁶⁾가 감소한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²⁷⁾으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며 5~8월 중 9.4% 상승

26) 가축 사육마릿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2020년 2/4분기 기준): 한·육우(2.7), 돼지(-2.0), 닭(-3.8), 오리(-8.9)

27) 농촌진흥청(2020.6월)에 따르면 5월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한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패널 8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돼지고기 구입이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44.6%로 가장 많았으며, 한우 구입이 늘었다는 응답은 34.4%, 닭고기 구입이 늘었다는 응답은 26.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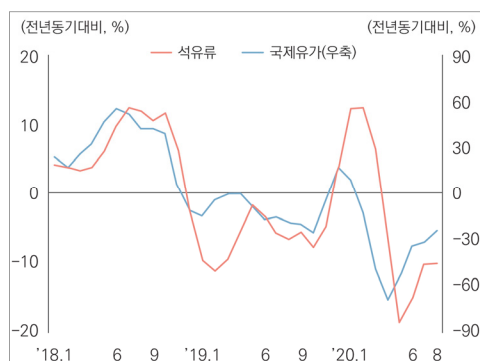
[그림 90]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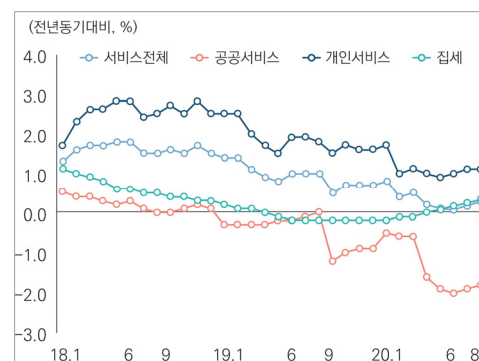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공업제품 물가는 상반기 중 코로나19에 따른 석유수요 둔화 우려 확대, OPEC+의 감산합의 결렬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
 - 국제유가는 1/4분기와 2/4분기 각각 전년동기대비 19.2%, 53.4% 하락²⁸⁾
 - 석유류 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 ('20.4월) -6.7 → (5월) -18.7 → (6월) -15.4 → (7월) -10.2 → (8월) -10.0

[그림 91] 국제유가 및 석유류 가격 추이 [그림 92] 품목별 서비스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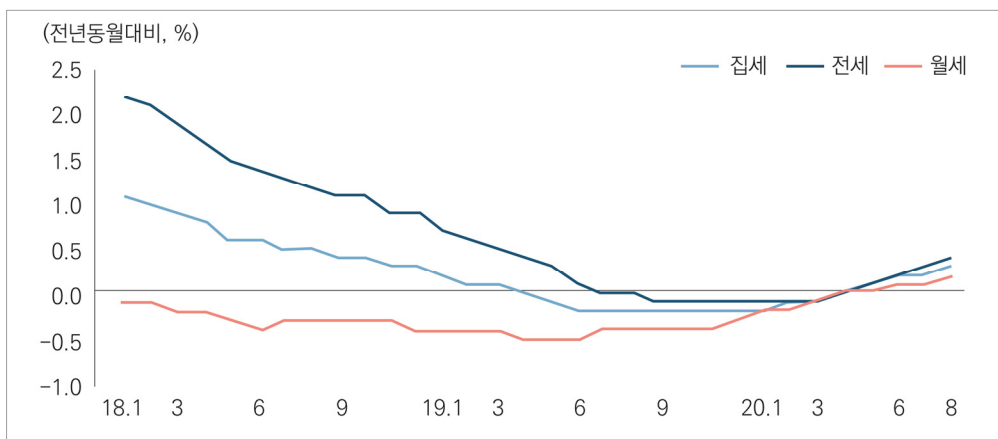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8) 브렌트, 두바이, WTI 3개 유종 평균(Bloomberg)

- 서비스는 집세 물가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공공서비스 물가의 하락세 및 개인 서비스 물가의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상승폭이 축소
 - 신규 입주물량 공급 축소 등으로 전세와 월세 등 집세 가격은 11개월 연속 하락세에서 4월부터 상승세로 전환
 - 공공서비스 가격은 무상교육 확대로 고등학교 납입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²⁹⁾하면서 내림폭 확대
 - 개인서비스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활동을 자제하면서 외식물가가 둔화세³⁰⁾를 지속하였으며, 여행, 숙박 등³¹⁾ 코로나19의 충격을 크게 받는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둔화세 지속

[그림 93] 전월세가격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 2020년 하반기 중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서비스물가의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장마와 태풍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국제유가 회복세에 따른 석유류 가격 하락폭 축소, 지난해 하반기 저물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완만하게 상승할 전망

29) 고등학교 납입금 상승률(전년동기대비,%): ('20.4월)-64.0 → (5월)-66.2 → (6월)-68.0 → (7월)-67.9 → (8월)-67.9

30) 외식 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20.1월)0.9 → (4월)0.8 → (6월)0.6 → (8월)0.5

31) 해외단체여행비 상승률(전년동기대비,%): ('20.4월)-10.1 → (5월)-7.7 → (6월)-5.4 → (7월)-5.4 → (8월)-5.3

호텔 숙박료 상승률(전년동기대비,%): ('20.4월)-6.8 → (5월)-8.0 → (6월)-7.7 → (7월)-8.4 → (8월)-5.5

-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지속적으로 둔화되면서 4~5월 중 0.1%의 낮은 수준을 기록
 - 하반기 중에도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수요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21년 소비자물가는 2019~2020년 저물가에 따른 기저효과, 국제유가 상승, 수요측 하락압력 완화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1.0%를 기록할 전망
 - 소비자물가는 2019년 0.4% 상승하였고 2020년 중에도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1년 중에는 2년 동안 지속된 저물가의 기저효과가 나타날 전망
 - 공업제품 가격은 국제유가 회복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전환,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소멸에 따른 승용차 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세를 보일 전망
 - 2021년 국제유가는 원유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OPEC+의 감산, 미 셰일오일 업체들의 생산 감소 등으로 2020년에 비해 소폭 상승할 전망
 - 또한,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이 2020년말 종료되는 것도 물가의 상방요인
 - 2021년부터 음(-)의 실질GDP 갭이 완만하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점차 수요측 물가 하방압력이 완화될 전망
- 다만, 2021년 최저임금 소폭 인상과 기업수익 악화에 따른 임금상승폭 둔화, 무상교육 등 정부정책, 전년도 높은 농축수산물 물가의 기저효과, 기대인플레이션 둔화 등은 물가의 하방압력을 높일 전망
 - 2021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5% 인상된 8,720원으로 역대 최저수준의 인상폭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수출 부진,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기업수익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1년 중 임금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보일 전망
 - 2021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함에 따라 고등학교 납입금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물가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

-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된 2019년 9월부터 고등학교 납입금은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하락하였으며, 2학년까지 확대된 2020년 4월부터는 60% 이상 하락
- 이에 따라 고등학교 납입금은 매월 소비자물가를 0.2~0.3%p씩 낮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

[표 16]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품목별 기여도 추이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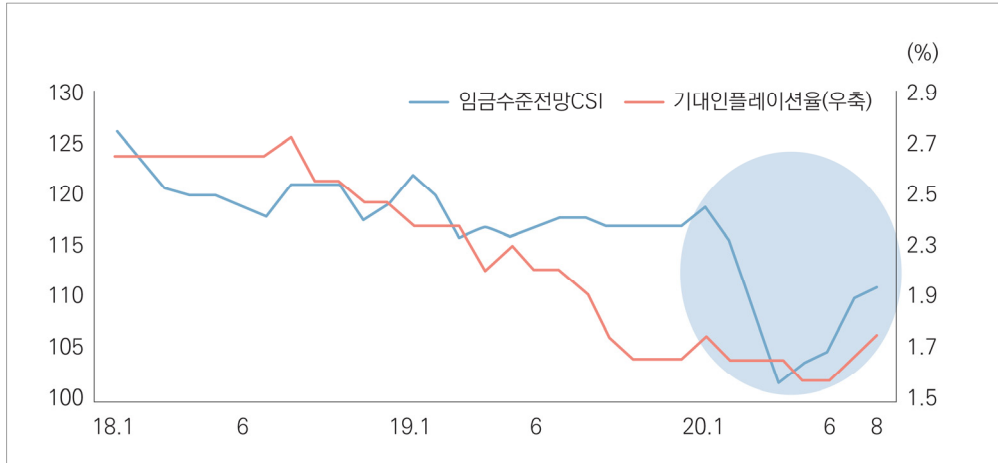
		소비자물가 상승률	농축 수산물	공업제품	공공 서비스	고등학교 납입금	개인 서비스
2019	1	0.8	0.2	-0.2	0.0	0.0	0.8
	2	0.5	-0.1	-0.2	0.0	0.0	0.8
	3	0.4	0.0	-0.2	0.0	0.0	0.6
	4	0.6	0.1	0.0	0.0	0.0	0.5
	5	0.7	0.1	0.1	0.0	0.0	0.5
	6	0.7	0.1	0.0	0.0	0.0	0.6
	7	0.6	0.0	0.0	0.0	0.0	0.6
	8	0.0	-0.6	-0.1	0.0	0.0	0.6
	9	-0.4	-0.7	-0.1	-0.2	-0.2	0.5
	10	0.0	-0.3	-0.1	-0.1	-0.2	0.5
	11	0.2	-0.2	-0.1	-0.1	-0.2	0.5
	12	0.7	-0.1	0.4	-0.1	-0.2	0.5
2020	1	1.5	0.2	0.7	-0.1	-0.2	0.6
	2	1.1	0.0	0.7	-0.1	-0.2	0.3
	3	1.0	0.3	0.4	-0.1	-0.2	0.4
	4	0.1	0.2	-0.2	-0.2	-0.3	0.3
	5	-0.3	0.3	-0.6	-0.3	-0.3	0.3
	6	0.0	0.4	-0.5	-0.3	-0.3	0.3
	7	0.3	0.5	-0.1	-0.3	-0.3	0.4
	8	0.7	0.9	-0.1	-0.3	-0.3	0.4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경제주체들의 가격결정 및 임금협상을 통해 실제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
는³²⁾ 기대인플레이션은 2002년 관련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6%(2020년 6월)를 기록하여 향후 경제주체들이 1년 후 물가수준에 대한
전망을 낮춘 것으로 보임

32)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의 특징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4

[그림 94] 기대인플레이션과 임금수준전망C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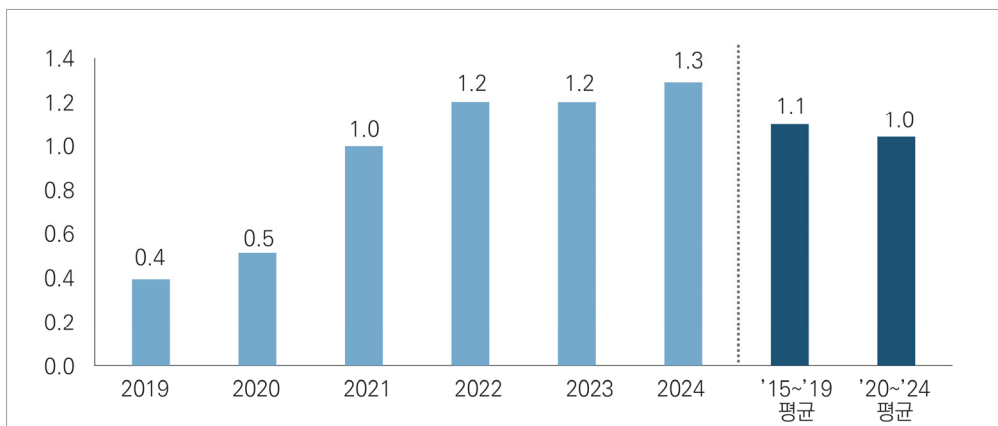


주: 임금수준전망은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임금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나. 중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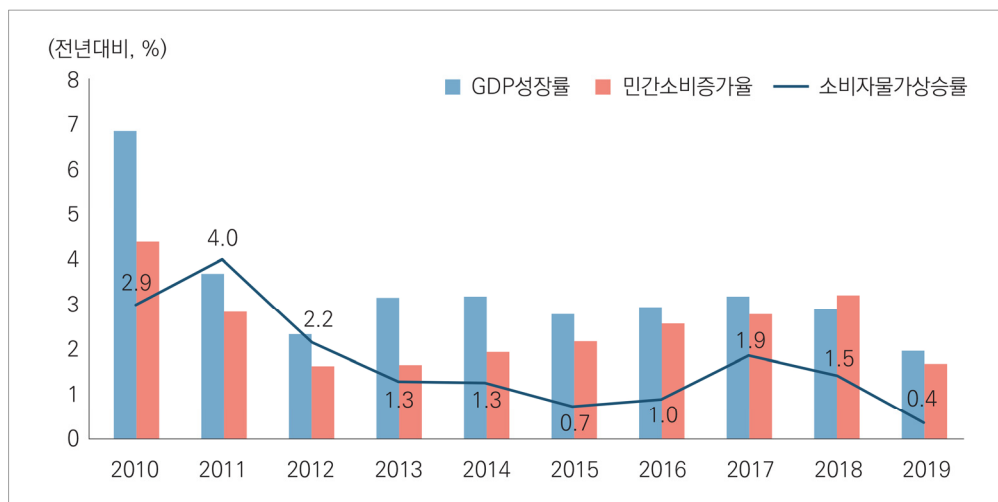
- 2020~2024년 소비자물가는 물가안정목표인 2%를 하회하는 저물가 상황이 지속될 전망
 - 연도별로 소비자물가는 2021년 1.0%로 상승한 후 2022~2023년에는 1.2%, 2024년 1.3% 수준을 나타낼 전망

[그림 95] 소비자물가 중기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96] GDP성장률, 민간소비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2019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농산물 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정책의 시행으로 0.4% 상승하는 데 그침
- 당초에는 2020년부터 이러한 요인들이 해소되며 하방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민간소비 감소,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 물가 하방압력이 지속되는 모습
- 중기적으로 소비자물가는 최근의 공급측 물가하락 요인들이 해소되고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수요부진이 회복되면서 0%대의 저물가상황은 벗어날 것으로 예상
 - － 2020년 중 유가급락, 공공서비스 요금 하락, 개별소비세 등 정부정책이 물가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 2021년부터는 이러한 요인들이 해소되면서 공급측 하방압력은 다소 낮아질 전망
- 다만, 지난 5년에 비해 낮은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 등으로 수요측면의 하방압력이 지속되면서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낼 전망
 - － 2020년 중에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며 실질 GDP갭이 금융위기 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

- 2021년 이후 완만한 경기회복 국면을 보이며 음(-)의 실질GDP 갭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겠지만, 음(-)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
- 중기적으로 환율이 완만하게 하락하고 국제유가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물가의 상승세는 다소 완만하게 진행될 전망
 - 중기적으로 환율이 완만하게 하락하고 국제유가가 40달러 중후반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물가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중기 환율전망(원/달러)³³⁾: ('20년)1,200 → ('21년)1,184 → ('22년)1,166 → ('23년)1,154 → ('24년)1,142
 - 중기 국제유가전망(달러/배럴)³⁴⁾: ('20년)35.0 → ('21년)42.0 → ('22년)44.5 → ('23년)47.0 → ('24년)49.8³⁵⁾

33)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전망수치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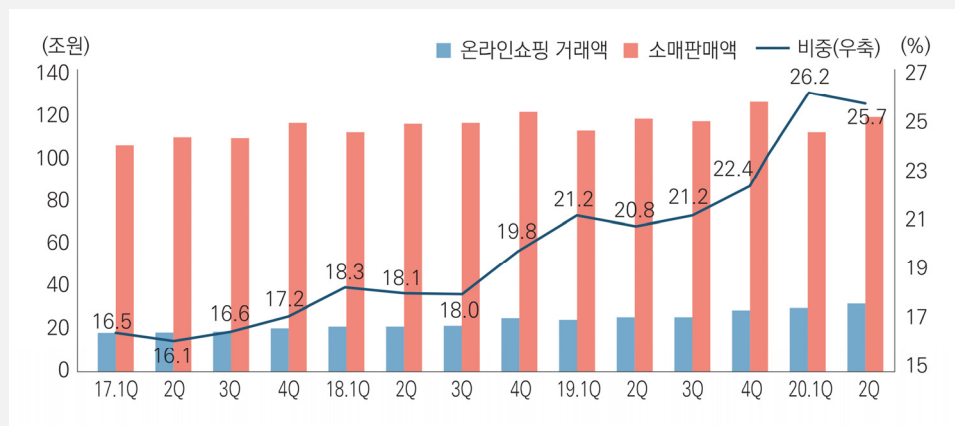
34) World Bank, “Commodity Market Outlook”, 2020.4.

35) 명목가격 기준

[BOX 6] 온라인쇼핑 증가와 소비자물가 관계 분석

- 온라인쇼핑은 IT 발달에 따른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이 대중화된 가운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온오프라인 물 등 플랫폼 다양화에 힘입어 증가세
- 전체 소매판매 중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4분기 16.5%에서 2020년 1/4분기 26.2%로 상승
 - 2018년과 2019년 전체 소매판매액은 각각 4.3%, 2.3%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온라인 쇼핑 판매액(서비스 제외)은 각각 18.0%, 17.4% 증가
 - 2020년 들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비대면 생활방식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구입은 더욱 확대되어 1/4분기와 2/4분기 각각 전년동기 대비 22.0%, 25.0% 증가

소매판매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



주: 여행 및 교통서비스, 문화 및 레저서비스, e쿠폰서비스,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제외
자료: 통계청

-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 확대는 유통단계상 비용절감과 업체간 경쟁심화를 통해 가격을 낮춤으로써 소비자물가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를 통해 도매 및 소매 시장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업체간 경쟁 심화로 가격을 낮추는 효과 발생
 - Goolsbee & Klenow(2018)은 미국의 2014~2017년 자료를 이용하여 온라인 물가와 CPI를 비교한 결과 온라인 물가가 1%p 더 낮다는 분석결과를 제시
 - Jo, Matsumura, & Weinstein(2019)은 일본의 가게 수입·지출 조사(NSFIE)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업체가 상품가격을 최대 0.9%까지 낮출 수 있으며, 고학력 인구비중이 높은 도시에서 물가가 더욱 하락하였다고 분석

- 우리나라의 품목별 온라인 판매와 소비자물가를 이용한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할수록 소비자물가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
- 통계청의 품목별 온라인 판매 증가율과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패널 회귀모형을 추정

$$\Delta CPI_{i,t} = \alpha + \beta_1 \Delta CPI_{i,t-1} + \beta_2 \Delta Online_{i,t} + \beta_3 \Delta Exchange_t + \beta_4 \Delta Product_t + \epsilon$$

- $CPI_{i,t}$ 와 $Online_{i,t}$ 는 각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온라인판매 증가율, $Exchange$ 와 $Product$ 는 원/달러 환율과 산업생산지수
- 분석에 포함된 품목은 컴퓨터, 가전 및 휴대전화, 서적, 의복, 신발, 가방, 스포츠 레저용품, 화장품,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가구, 애완용품 등 13가지
- 분석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월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품목별로 물가상승률 수준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개체특성을 고려한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
 - 하우스만 검정 결과 독립변수와 시간에 관계없이 그룹에 의해서만 변하는 요인의 공분산이 0 ($H_0: cov(x_{it}, u_i) = 0$)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됨에 따라 고정효과 모형이 적합
- 분석결과 온라인판매 증가율이 1%p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0.02%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추정결과

	추정계수	표준오차
$\Delta CPI(-1)$	0.599 ^{***}	0.044
$\Delta Online$	-0.021 ^{**}	0.008
$\Delta Exchange$	0.048	0.034
$\Delta Product$	-0.027	0.039
상수항	0.843 ^{***}	0.207

주: *** p<0.01, ** p<0.05, * p<0.1

[참고문헌]

Austan D. Goolsbee & Peter J. Klenow(2018), Internet rising, prices falling: Measuring inflation in a world of e-commerc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Yoon J. Jo, Misaki Matsumura, David E. Weinstein(2019), NBER Working Paper No. 26506

9. 금리·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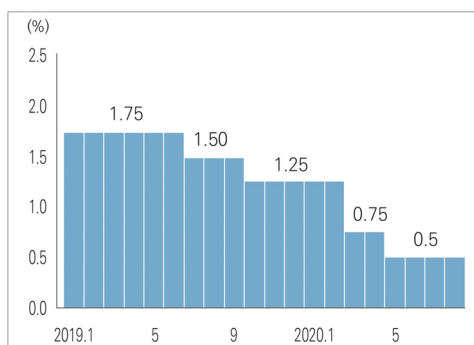
가. 2021년 전망

(1) 국고채 금리

□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영향으로 국고채금리는 전년 1.5%보다 낮은 연평균 1.0%를 나타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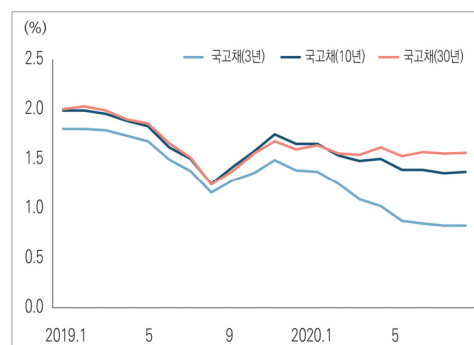
- 국고채금리는 2020년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침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되면서 하락세
- 경기침체를 완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은 2020년 들어 기준금리를 2차례에 걸쳐 1.25%p 인하
 - － 그 외에도 금융불안 완화와 기업신용경색 대응을 위하여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참여,³⁶⁾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10조원),³⁷⁾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지원제도(RP제도) 도입³⁸⁾ 등을 조치
 - － 3년 만기 국고채금리와 10년 만기 국고채금리가 1월 평균 각각 1.37%, 1.66%에서 8월 각각 0.83%와 1.37%로 하락

[그림 97]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98] 국고채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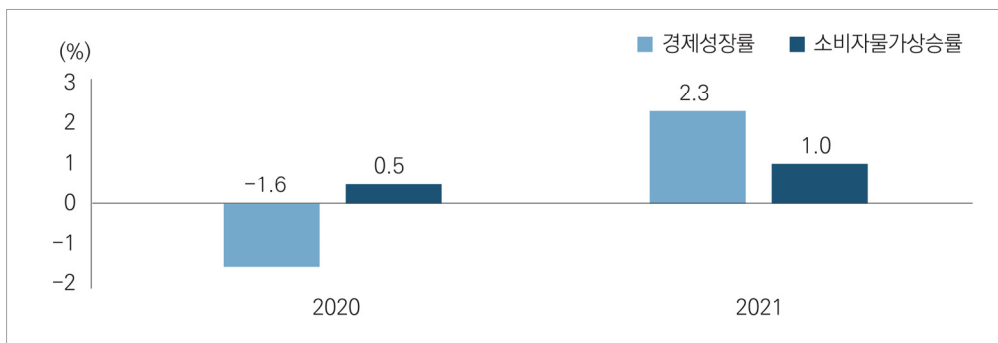
주: 월평균

자료: 한국은행

- 36) 정부·한국은행·산은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를 매입하는 기구로 초기 10조원 재원(필요 시 20조원까지 확대) 중 한국은행이 8조원 선순위대출로 참여. 동 기구는 우량 및 A등급을 주로 매입하되, 당초 투자등급이었으나 투기등급(BBB등급 이하)으로 하락한 채권도 매입
- 37)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
- 38) 매주 1회 정례 RP매입(91일 만기)을 통해 일정 금리수준 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배정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해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함

- 2021년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국내외 실물경제의 완만한 회복으로 올해 보다 소폭 상승한 1.3%를 나타낼 전망
 - 2021년 국내경제성장률은 올해 -1.6%의 역성장에서 플러스성장(2.3%)으로 돌아설 전망
 - 다만 실질GDP 금액기준으로는 2019년 대비 0.7% 증가한 데 그쳐 금리 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팬데믹이 통제되면서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면 국내 수출도 증가세로 돌아서 성장의 동력이 될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도 0.1%로 올해 0.5%보다 소폭 상승
 -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2%를 현저히 하회하여 물가압력은 미약

[그림 99] 국내 실물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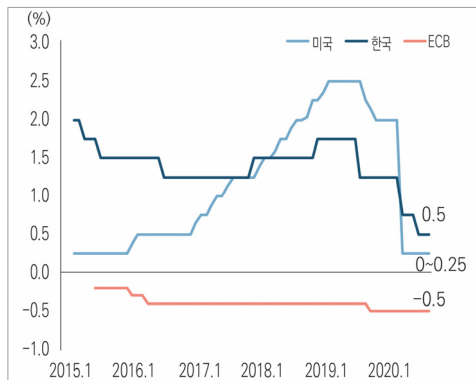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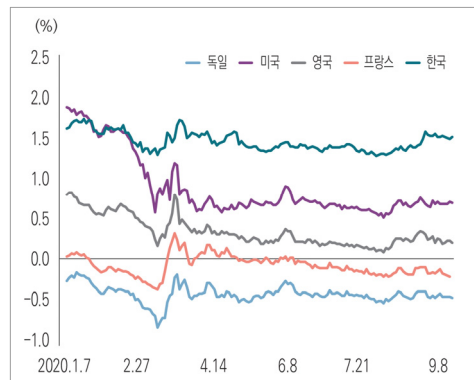
-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
 - 2021년에 백신이 개발되어도 생산·보급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완만할 전망
 - 또한 미·중 갈등도 좀처럼 해소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코로나19와 함께 불확실성으로 세계경제에 부담이 될 것
 -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OECD(9월 발표) (2020년)-4.5 → (2021년)5.0, IMF(6월 발표) (2020년)-4.9 → (2021년)5.4
- 금융측면에서도 경기침체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국제금리 안정이 2021년까지 이어져 국내금리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21년에도 GDP갭률이 마이너스로 추정되어 국내 총수요의 부족은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의 근거가 될 것임
- 또한 미국은 비롯하여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제로금리 및 양적완화정책)이 지속될 전망
- 이로 인해 마이너스영역에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의 국채금리는 해외자본의 국내 증권투자를 자극함으로써 국고채금리의 상승압력을 완화시킬 것임

[그림 100] 한국, 미국, ECB 정책금리 추이 [그림 101] 한국 및 주요국 국채금리 추이



주: ECB는 일반은행의 중앙은행(ECB포함) 예치금 금리
자료: 한국은행, 인포맥스



주: 10년 만기
자료: 인포맥스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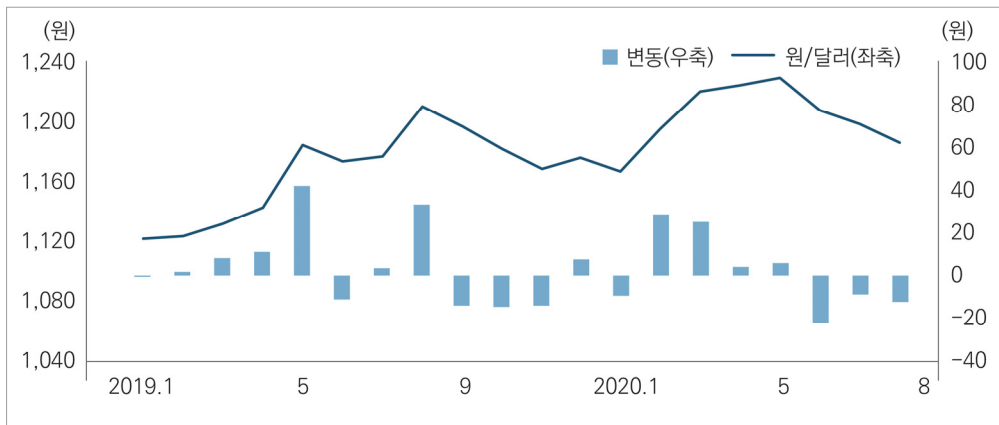
2021년
경기
전망
및

(2) 원/달러 환율

- 2020년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으로 상승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하락하여 연평균 1,200원을 나타낼 전망
 - 코로나19가 국내외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자 1월 하순부터 원/달러 환율이 급등
 - 원/달러 환율(원, 월평균): ('20.1월)1,167 → (5월)1,230
 -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규모 제한 철폐(3.23일)를 비롯하여 주요 선진국에서 저금리정책과 양적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한국은행과 연준 간에 통화스왑(3.19일 600억 달러)이 체결되면서 외환시장이 안정을 회복

- 하반기 들어 미국의 통화공급이 확대되자 미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데 따른 원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미달러화 약세는 완만히 지속될 전망
 - 원/달러 환율(원, 월평균): (20.6월)1,208 → (8월)1,186

[그림 102]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월평균
자료: 인포맥스

- 2021년 원/달러 환율은 세계경제의 완전한 회복, 미달러화 약세 및 풍부한 국제유동성에 따라 연평균 1,184원으로 전년에 비해 하락할 전망
 - 주요 국제기구는 2021년 세계경제가 완전한 회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2021년 세계경제성장률이 5.0%(OECD)~5.4%(IMF)로 예상되고 있어 올해 -4%대의 역성장을 고려할 때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보임
 - 세계경제의 회복은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하면서 미국 중심의 달러화 집중을 완화하는 요인
 - 세계경제 회복 시 한국경제의 안정성이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외국인투자자들의 한국증권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전망
 -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무디스, S&P, 피치)는 한국경제를 3번째 등급(무디스 Aa2, S&P AA, 피치 AA-)을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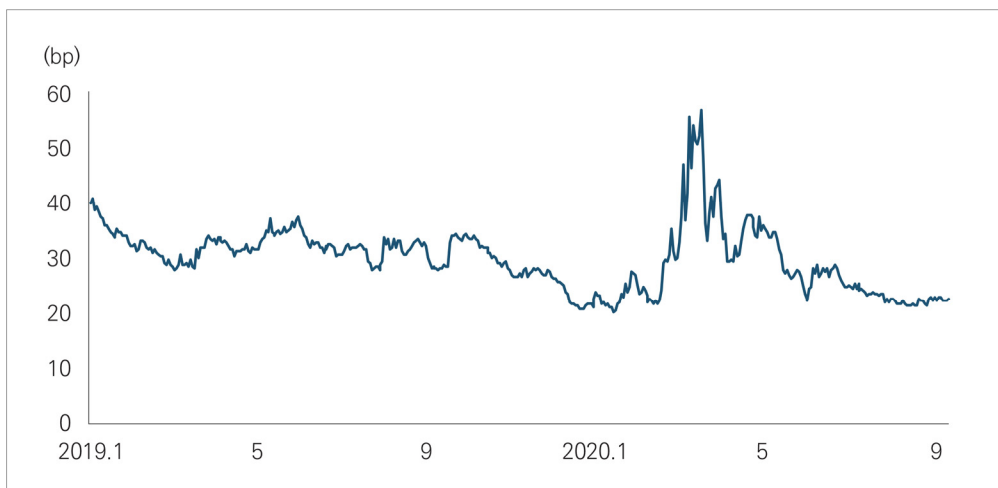
[표 17] S&P 기준 국가신용등급(장기외화채 등급)과 주요 등급별 국가

등급	주요 해당국
1 AAA	싱가폴, 호주, 캐나다, 독일, 스위스
2 AA+	홍콩, 미국, 핀란드, 오스트리아
3 AA	한국,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벨기에
4 AA-	대만, 이스라엘, 스페인
5 A+	중국, 일본

자료: 국제금융센터

- 또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전년대비 -4%대)에 비해 뚜렷하게 양호한 한국경제성장률(전년대비 -1.6% 예상)은 한국경제의 안정성을 재확인
- 3월 중 큰 폭으로 상승했던 외평채 CDS프리미엄이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9월 들어서는 2019년보다 낮은 수준
- 이에 힘입어 9월 중 외평채(6.25억달러, 7억 유로)와 수출입은행 외화채(9억 달러, 5억 유로)가 한국물 역대 최저금리로 발행됨

[그림 103] 외평채(5년 만기) CDS프리미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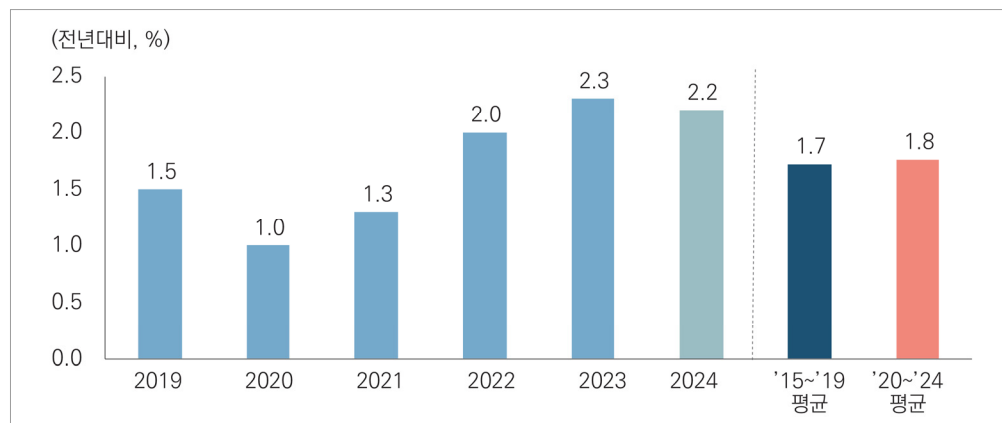


자료: 국제금융센터

나. 중기 전망

- 2020~2024년 중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2021년 이후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가 점차 코로나19의 충격을 극복하면서 성장세를 지속함에 따라 연평균 1.8% 수준을 나타낼 전망
- 주요 선진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진다면 2021년부터는 세계경제가 플러스 성장세를 보일 전망
 - 세계경제의 성장에 힘입어 국내 경제성장률도 2021년부터 2%대를 유지하고, 물가는 1%대 중반을 나타내어 시장금리의 상승세가 예상됨

[그림 104] 중기 국고채금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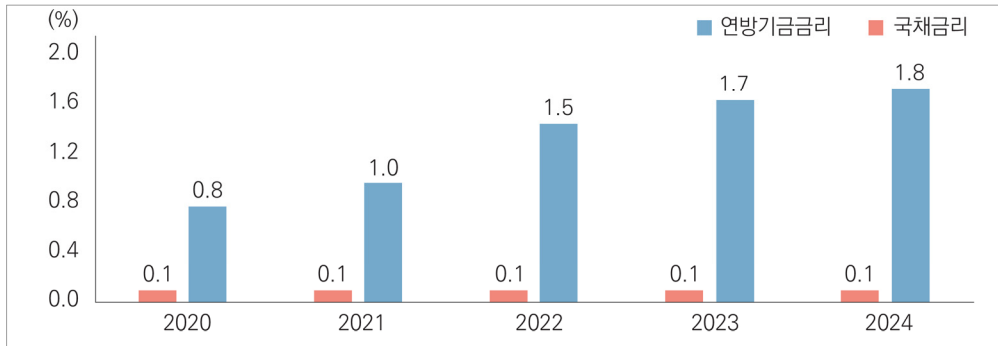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국제금리는 중기적으로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되어 국내금리에 상승요인으로 작용
 - － 국제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연준이 중기적으로 금리안정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 IMF³⁹⁾는 미연준이 중기적으로 정책금리(연방기금목표금리)를 현 수준(0~0.2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 그렇지만 시장금리는 세계경제 및 미국경제 회복세의 영향으로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보임

39)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0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ug.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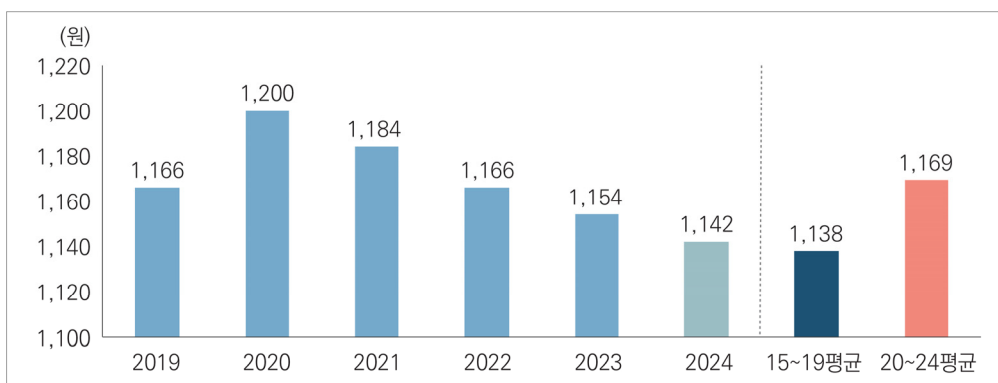
[그림 105] IMF의 중기 미국금리 전망



자료: IMF

- 2020~2024년 중 원/달러 환율은 완만한 달러화 약세와 무역수지 흑자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져 연평균 1,169원을 나타낼 전망
- 세계경제가 안정적 성장세로 복귀하게 되면 미국 달러화의 강세국면이 종료되고 약세국면으로 진입하여 향후 원/달러 환율에는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지난 5월에는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1973년 이후 3번째⁴⁰⁾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
 - 그러나 코로나19의 충격에 따른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에 대처하기 위해 미연준이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를 재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어 향후에는 달러화가 중기적인 약세 추세가 예상됨

[그림 106] 원/달러 환율 중기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0) 앞선 2차례는 1985년 플라자합의와 2002년 IT버블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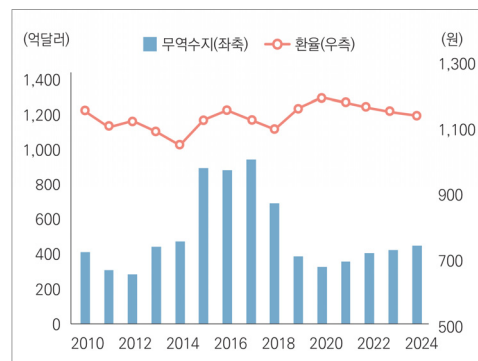
- 국내적으로는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어 국내 외환시장 내 외환유동성이 양호하여 원/달러 환율의 하락요인으로 작용
 - 2020~2024년 중 연평균 394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됨

[그림 107] 달러인덱스 추이



주: 상품무역가중평균:1997.1=100, 상품및서비스
무역가중평균:2006.1=100
자료: St. Louis Fed

[그림 108] 원/달러 환율과 무역수지 추이와 전망



주: 2020년부터는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II

잠재성장률

Ⅲ. 잠재성장률

- 잠재성장률은 실질GDP, 자본, 노동변수에 대한 과거 시계열자료와 향후 5년 간의 전망치를 이용하여 생산요소로 분해한 후 추정하고 전망
 - 생산함수접근법을 적용하여 실질생산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등의 투입요소로 분해하고 투입요소별 잠재수준을 추정
 - 1970년부터 2019년까지는 실질GDP, 생산자본스톡, 노동투입 등 변수에 대한 과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였고, 2020~2024년 중에는 관련 변수에 대한 전망치를 기초로 추정
 - 투입요소별로 실질경제성장 및 잠재경제성장기여도를 추정하여 과거와 향후 5년 기간 중의 주요 성장요인을 분석

- 2020~2024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0%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 2020~2024년 기간 중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투자가 위축되어 총요소생산성과 자본의 기여도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연평균 2.0% 수준을 기록할 전망
 - 2020~2024년 기간 중 생산요소별 잠재성장기여도(연평균, %p): 노동 0.0, 자본 1.1, 총요소생산성 0.9
 -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1.1%p)는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총고정투자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이전 5년(1.5%p) 기간에 비해 0.4%p 하락하여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총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기여도(0.9%p)는 이전 5년(1.1%p) 기간에 비해 0.2%p 하락할 전망
 - 노동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생산인구와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되며 이전 5년 기간(0.0%p)과 동일한 수준에서 정체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이후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하락 추세가 더욱 가팔라진 것으로 추정됨
- 기간별 잠재성장률 추정치(연평균, %): ('01~'05년)5.1 → ('06~'10년)4.3 → ('11~'15년)3.1 → ('15~'19년)2.6
 - 세계금융위기 이전 해인 2007년 4.5% 수준이었으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08년 4.0%로 하락하였고, 이후 상승 반전되지 못하고 투자가 위축되고 노동공급의 증가세가 둔화되며 3%대로 급격하게 하락
 - 2013년 이후 3%를 하회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5년 기간(2015~2019년) 중에는 연평균 2.6% 수준으로 하락
 - 2000년 들어 노동인구의 고령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노동투입이 정체된 가운데 기업투자가 부진하고 총요소생산성이 저하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기간별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연평균, %p): ('01~'05년)2.3 → ('06~'10년)1.9 → ('11~'15년)1.4 → ('15~'19년)1.5
 - 금융위기 이후 지난 2012년(-0.1%), 2018년(-2.2%), 2019년(-2.8%)에는 총고정자본투자가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감소하며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도 큰 폭으로 하락
 -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잠재성장기여도(연평균, %p): ('01~'05년)2.8 → ('06~'10년) 2.4 → ('11~'15년)1.5 → ('15~'19년)1.1
 - 금융위기 이후 경제구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급격하게 하락하였을 가능성
 - 최근 5년 기간(2015~2019년) 중 생산요소별 잠재성장기여도(연평균, %p): 노동 0.0, 자본 1.5, 총요소생산성 1.1
 - 2016~2017년 기간 중에는 건설경기 및 반도체경기 호황 등에 기인하여 기업투자가 호조를 보이며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동기간 15세이상 인구증가 둔화, 실업률 상승 등으로 노동투입이 둔화되며 노동의 기여도는 하락
 - 2018~2019년 기간 중에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모두 2년 연속 감소하며 부진하였고, 노동투입도 인구증가세 둔화 지속,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되며 자본과 노동의 잠재성장기여도가 하락

[표 18] 투입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단위: 기간평균,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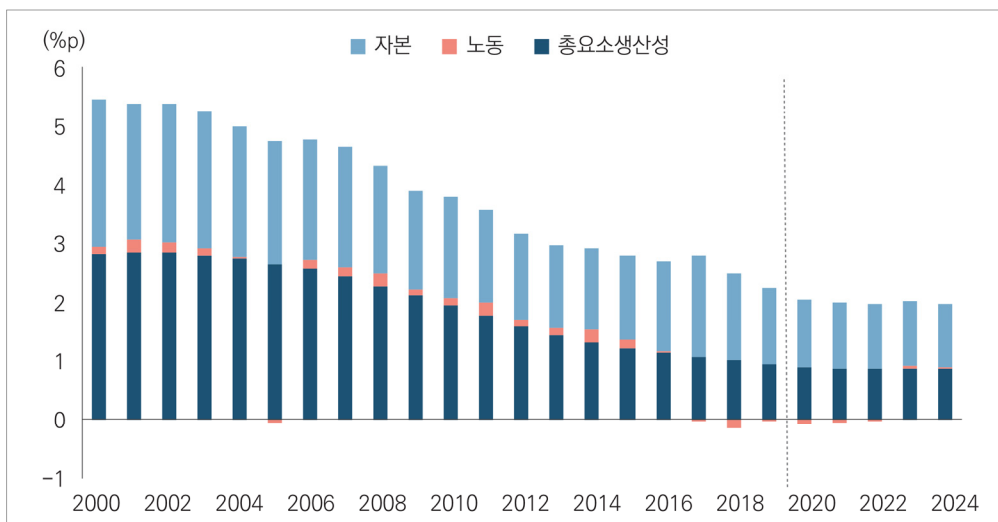
기간	잠재실질GDP 성장률	투입요소별 잠재성장 기여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2001~2005	5.1	0.3	2.3	2.8
2006~2010	4.3	0.2	1.9	2.4
2011~2015	3.1	0.2	1.4	1.5
2015~2019 (최근 5년)	2.6	0.0	1.5	1.1
2020~2024 (향후 5년)	2.0	0.0	1.1	0.9

주: 1. 해당 기간별 평균치

2. 2019년까지는 실적치, 이후는 전망에 기초한 추정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109] 투입요소별 잠재실질GDP성장률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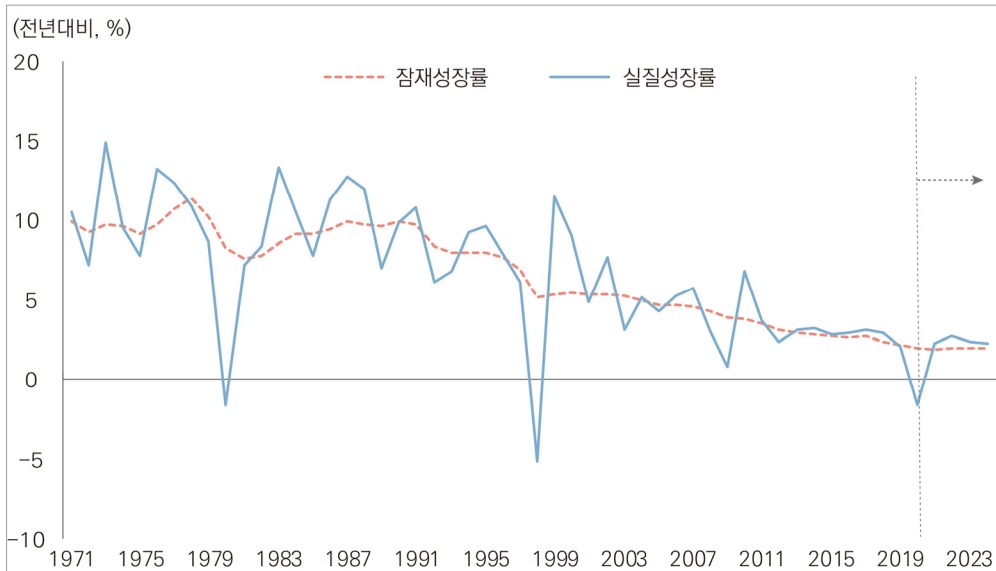


주: 1. 해당 기간별 평균

2. 2019년까지는 실적치, 이후는 전망에 기초한 추정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110] 실질GDP성장률과 잠재GDP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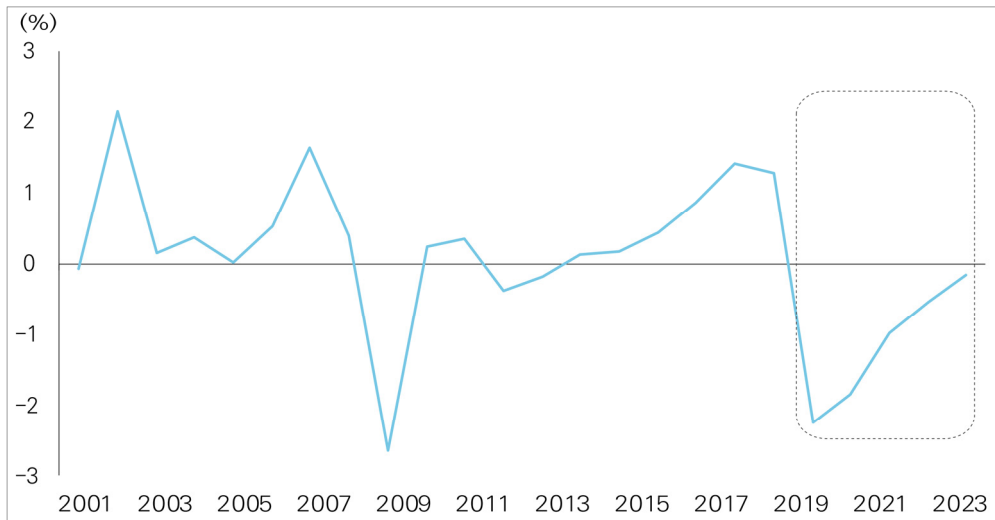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경기 국면을 보여주는 실질GDP갭⁴¹⁾은 2020~2024년 기간 중 음(-)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어 상당 기간 총수요 부진에 따른 물가하방압력이 존재할 가능성
 - 지난 2015~2019년 기간 중에는 2014년 양(+)으로 전환된 이후 2019년까지 양(+)의 수준을 유지하며 완만하게 확대
 - 통계청의 경기순환기준일로 보면 2013년 1/4분기를 저점으로 경기확장기에 진입하였고, 2017년 3/4분기를 정점으로 경기수축기에 진입
 - 향후 5년 전망 기간 중 실질GDP갭은 2020년을 저점으로 음(-)의 갭이 완만하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미미할 가능성
 - 2020년 중에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민간소비부진, 수출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며 실질GDP갭이 금융위기 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

41) 실질GDP과 잠재GDP 추정치 간의 퍼센티지갭으로 정의되며, 실질GDP갭 = (실질GDP - 잠재GDP) / 잠재GDP × 100으로 계산되며, 실질GDP갭이 양(+)이면 초과 총수요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이, 반대로 음(-)이면 총수요 부족에 의한 물가하락압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2021년 이후에는 완만한 경기회복 국면을 보이며 음(-)의 실질GDP갭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겠지만 2024년까지 음(-)의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됨
- 민간소비(연평균, %): ('15~'19년)2.5 → ('20~'24년)1.1
- 총고정투자(연평균, %): ('15~'19년)3.3 → ('20~'24년)1.9
- 소비자물가(연평균, %): ('15~'19년)1.1 → ('20~'24년)1.0

[그림 111] 실질GDP갭 추이 및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치

- 2020~2024년 기간 중 총노동투입은 취업자수 증가세 둔화, 실업률 상승 등의 영향으로 낮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총노동투입은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주당근로시간 등의 변수들을 이용해 추정된 총노동투입시간⁴²⁾으로 측정
 - 2020~2024년 기간 중 총노동투입은 연평균 0.2% 증가하여 이전 5년 기간 (연평균 -0.5%)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2020년을 저점으로 증가 전환
 - 지난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던 총노동투입은 2020년을 저점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0.2% 증가하여 2024년에는 2018년 수준을 회복

42) 총노동투입시간 = 취업자수 × 주당근로시간 × (365/7)이고, 취업자수 =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참가율 × (1 - 실업률)로 계산

- 이전 5년과 비교하여 15세이상 인구증가세 둔화(0.8% → 0.5%), 실업률 상승(3.7% → 3.9%), 주당근로시간 감소(연평균 -0.3%) 등이 총노동투입 증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여성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은 감소세를 완화
- 주요 기간별 총노동투입(연평균, %): ('01~'05년)0.5 → ('06~'10년)-0.2 → ('11~'15년)1.1 → ('15~'19년)-0.5
- 지난 5년 기간(2015~2019년) 중에는 2016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감소하며 연평균 0.5% 감소하였으며, 이는 15세이상 인구증가율 하락, 주당근로시간 감소, 실업률 상승 등에 기인
 - 특히 2018년 노동투입은 15세이상 인구증가율 둔화(0.6%로 전년대비 -0.1%p)와 주당평균근로시간 단축(41.5시간으로 전년대비 -3.0%)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2.7%)하였고, 2019년에는 감소폭은 -0.8%로 둔화되었지만 전년에 이어 감소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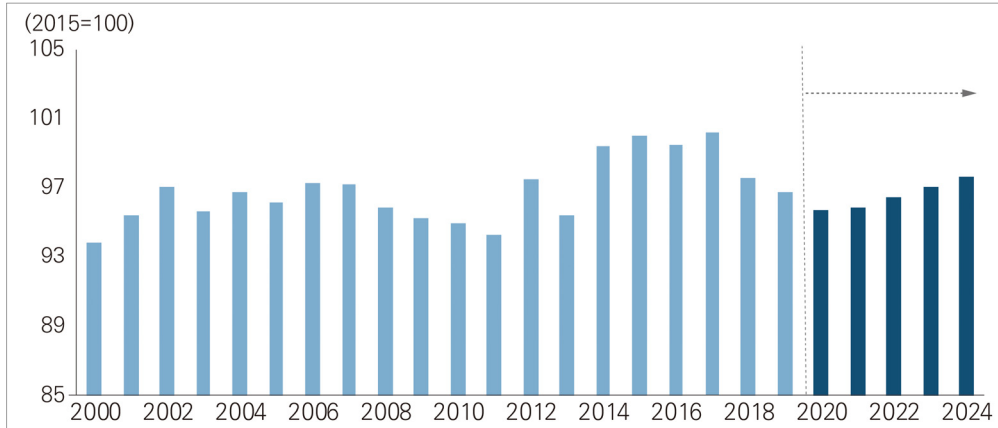
[표 19] 노동투입 결정 변수 추이 및 전망

(단위: 연평균 %, 전년대비%)

기간	총노동투입 증가율	결정요인 추이 및 전망				
		취업자수	주당근로 시간	생산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
2001~2005	0.5	1.5	-1.0	1.0	61.9	3.7
2006~2010	-0.2	1.0	-1.3	1.4	61.6	3.4
2011~2015	1.1	1.7	-0.8	1.2	62.0	3.4
2015~2019 (최근 5년)	-0.5	0.9	-1.5	0.8	63.1	3.7
2020~2024 (향후 5년)	0.2	0.5	-0.3	0.5	63.1	3.9

주: 1. 해당 기간별 평균치
 2. 2019년까지는 실적치, 이후는 전망치
 3. 주당근로시간은 전체 취업자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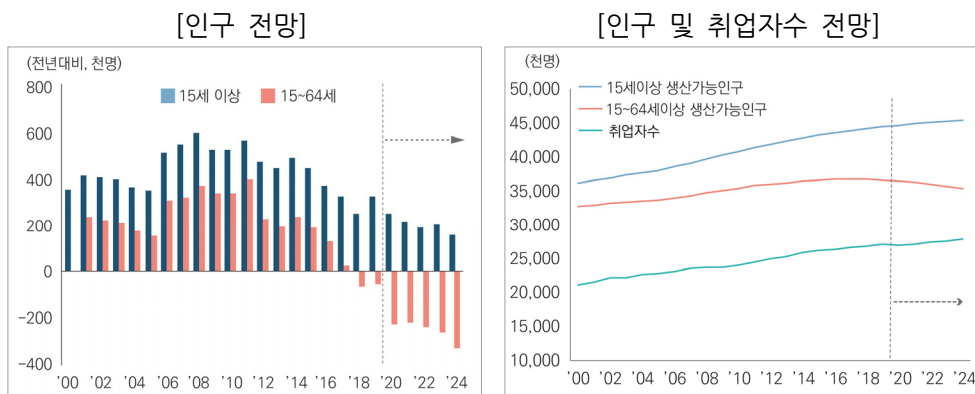
[그림 112] 총노동투입 추이 및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계산

- 15세이상 생산인구증가율은 2020~2024년 중 연평균 0.5%로 둔화되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
 - 향후 5년 기간 중 15세이상 인구는 연평균 0.5% 증가하여 이전 5년 기간 (연평균 0.8%)에 비해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
 - 생산인구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어 65세이상 인구가 15세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7.4%에서 2023년 21.0%로 늘어날 전망
 - 65세이상 고령자 생산인구 비중(%): (‘01년)10.1 → (‘06년)11.7 → (‘11년) 13.4 → (‘16년)15.5 → (‘19년)17.3 → (‘24년)22.1

[그림 113] 생산인구 및 취업자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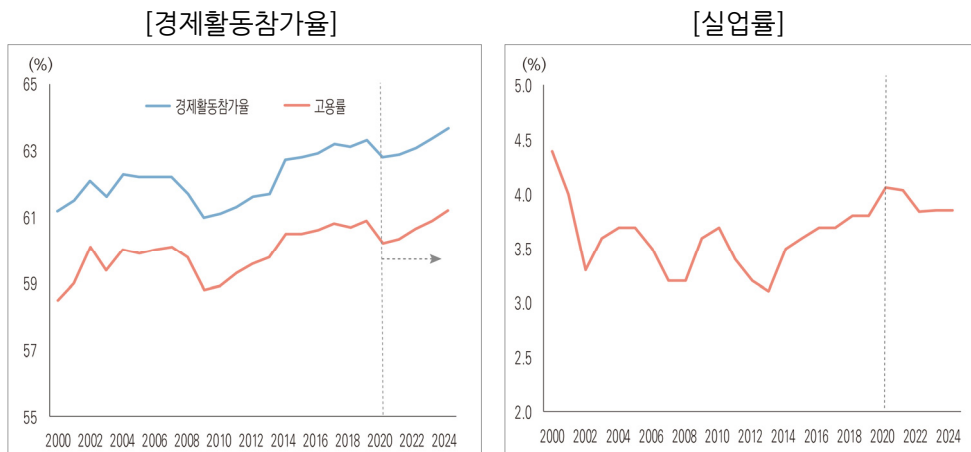


주: 2019년까지는 실적치, 이후는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늘며 2020년 큰 폭으로 하락하겠지만, 경기회복 국면에서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3년 중에는 2019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
 - 경제활동참가율(%): ('19년) 63.3 → ('20년)62.7 → ('23년)63.3 → ('24년) 63.7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1년)49.6 → ('16년)51.9 → ('19년)53.5
 -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 ('11년)66.2 → ('16년)68.7 → ('19년)69.5
 - 60세이상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11년)37.7 → ('16년)40.5 → ('19년)43.0
- 경제성장률 둔화로 실업률은 소폭 상승하고 주52시간 근무제 정착에 따른 주당근로시간 감소 추세도 지속될 전망
 -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서비스 업종과 제조업 등에서 온라인 경제활동 및 자동화 등의 추세가 급속하게 진전될 경우 관련 일자리를 구축하여 실업률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실업률(연평균, %): ('15~'19년)3.7 → ('20~'24년)3.9
 - 주당근로시간(전년대비, 연평균, %): ('15~'19년)-1.5 → ('20~'24년)-0.3
- 전체 취업자수는 연평균 0.5%(14.7여만명) 증가하여 지난 2015~2019년(24.5만명, 0.9%) 기간에 비해 증가세가 연평균 0.4%p둔화

[그림 114]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추이 및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 2020~2024년 기간 중 생산자본스톡은 건설투자 둔화 등으로 인한 고정 투자 부진으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
- 생산자본스톡은 총고정자본형성(설비투자+건설투자+지식재산생산물투자)에 대한 전망과 자본효율함수상의 감가상각률(생산효율저하율)에 의해 결정
 - － 감가상각률(연평균, %): ('01~'05년)3.9 → ('06~'10년)4.0 → ('11~'15년)4.2 → ('16~'19년)4.3로 추정되었으며, 향후 5년간 4.4%에 달할 것으로 전제
 - 2020~2024년 기간 중 생산자본스톡은 연평균 2.8% 증가하여 지난 5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 3.7%에 비해 0.9%p 하락할 전망
 - － 기간별 생산자본스톡(연평균, %): ('01~'05년)5.7 → ('06~'10년)4.6 → ('11~'15년)3.6 → ('15~'19년)3.7
 - － 2000년대 초반(2001~2005년 중) 연평균 5.7%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2011~2015년 중)에는 장기간의 투자 부진으로 3.6%로 둔화되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3.7%로 소폭 상승

[표 20] 자본투입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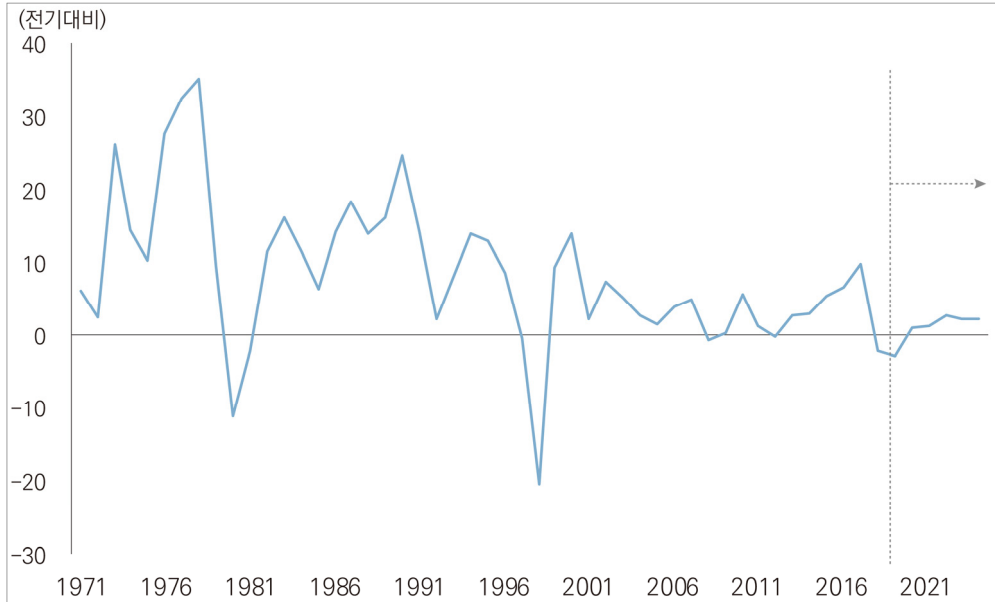
(단위: 연평균, 전년대비 %)

기간	생산자본스톡	자본재 형태별			
		총고정 자본투자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2001~2005	5.7	3.8	1.6	4.6	7.6
2006~2010	4.6	2.9	6.8	-0.1	6.2
2011~2015	3.6	2.5	2.6	1.7	4.8
2015~2019 (최근 5년)	3.7	3.3	2.9	3.4	4.0
2020~2024 (향후 5년)	2.8	1.9	3.0	0.5	3.6

주: 1. 해당 기간별 평균치
 2. 2019년까지는 실적치, 이후는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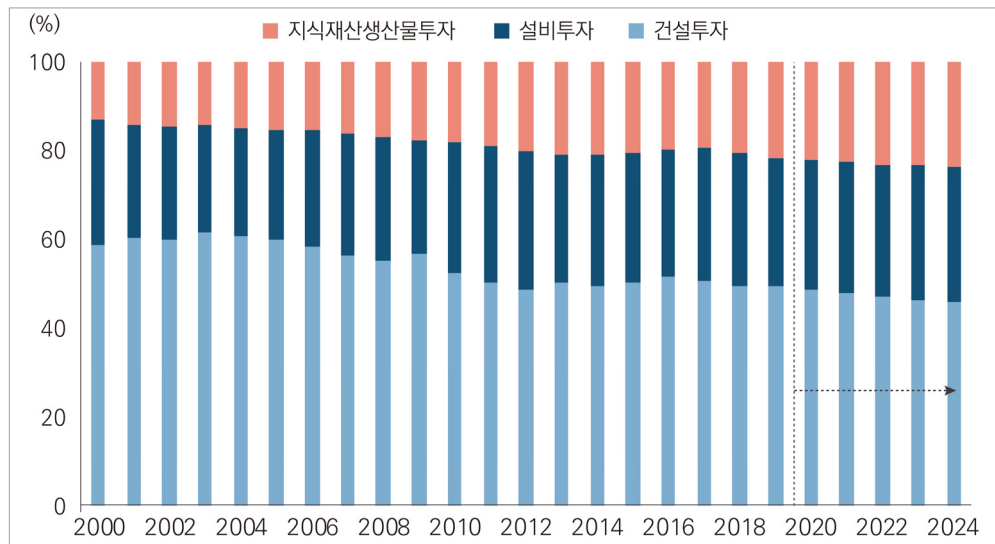
- 총고정자본투자증가율 2001~2019년 중 연평균 3.0%로 동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3.9% 하회하는 낮은 증가세를 보이며 추세적으로 하락
 - 총고정자본형성(연평균, %): ('01~'05년)3.8 → ('06~'10년)2.9 → ('11~'15년)2.5 → ('15~'19년)3.3
 - 실질GDP성장률(연평균, %): ('01~'05년)5.0 → ('06~'10년)4.3 → ('11~'15년)3.1 → ('15~'19년)2.8
 - 장기간의 건설경기 침체로 지난 2004~2012년 중 건설투자가 연평균 -0.6%로 부진하였고, 2018~2019년 중에는 건설투자(연평균 -3.6%)와 설비투자(-4.9%)가 모두 2년 연속 감소하며 부진
 - 최근 5년 기간 중에는 2016년에는 건설투자가 건설경기 회복으로 10.0% 증가하고, 2017년에는 설비투자가 반도체 경기호황에 힘입어 16.5% 증가하며 총고정투자증가율이 연평균 3.3%로 지난 2011~2015년 기간 2.5%에 비해 0.8%p 상승
- 2020~2024년 기간 중 총고정자본투자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설비투자 회복세 둔화,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1.9% 증가에 머물 전망
 - 설비투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코로나19 이전에 예상되었던 증가세(연평균 3.3%)보다 둔화되어 연평균 3.0% 증가할 전망
 - 건설투자는 2020~2012년 중에도 감소세가 지속되며 연평균 0.5% 증가할 전망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및 소프트웨어 지출이 늘며 연평균 3.6%로 견실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자본재 형태별 총고정투자 비중(평균, %): ('15~'19년)건설투자 50.0, 설비투자 29.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0.5 → ('20~'24년) 건설투자 46.9, 설비투자 29.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3.2

[그림 115] 총고정투자 증가율 추이 및 전망



주: 2019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

[그림 116] 자본재 형태별 고정투자 비중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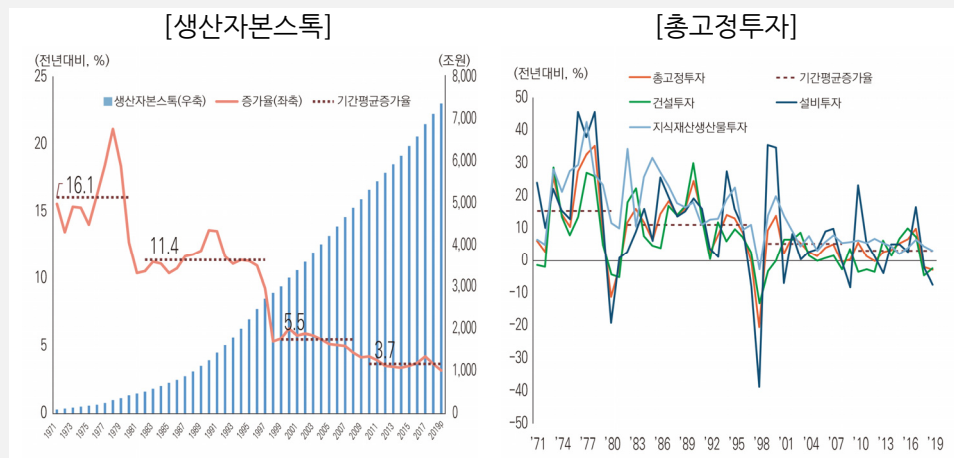


주: 2019년 이후는 자체 전망치를 기초로 한 추정치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

[BOX 7] 우리나라 생산자본스톡의 장기 추이의 특징

- 우리나라 생산자본스톡의 증가세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근 10년간 고정투자가 위축되며 큰 폭으로 둔화
 - 1970년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 생산자본스톡 증가세의 장기 추이는 1970년대 고도성장기, 1980년대와 1998년 외환위기 이전 기간, 외환위기 이후와 세계금융위기 이전, 세계금융위기 이후로 구분 가능
 - 1970년대에는 정부의 강력한 수출지향정책 및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등으로 연평균 16.1% 증가
 - 제2차 석유파동, 10.26, 5.18 등 정치적 격변기를 지나 1980년 이후 1998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연평균 11.4% 증가
 - 외환위기 이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전까지 기간에는 IT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연평균 5.5%하며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었고,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근 10년간 연평균 3.7%로 동기간 연평균 실질GDP성장률(3.3%)를 소폭 상회하는 데 그침

생산자본스톡과 총고정투자 장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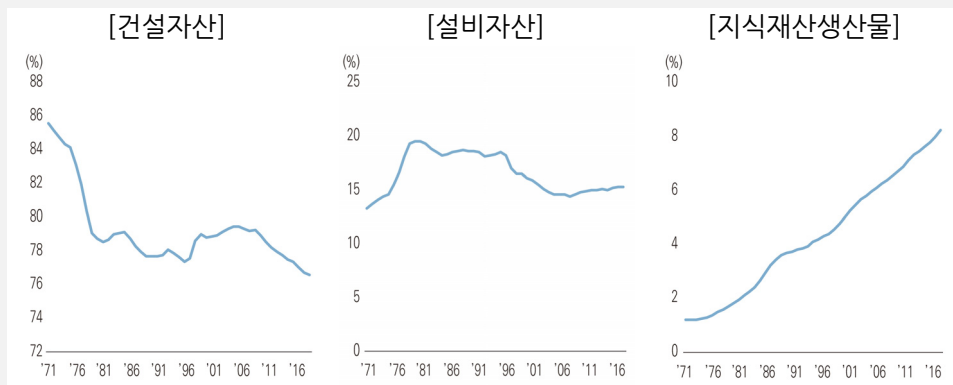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1970년 생산자본스톡의 자산형태별 비중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건설자산의 비중은 줄고 설비자산은 정체되어 있으며 지식재산생산물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건설자산의 비중은 초기 공업화 단계인 1970년대 후반까지 80%를 상회하였고, 세계금융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78.5% 수준에서 변동하였으나 2006년 79.4%를 정점으로 축소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76.5%까지 하락

- 설비자산의 비중은 1970년대 중반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18%를 상회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으나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5.0% 수준에서 횡보
- 반면 지식재산생산물의 비중은 1970년대 초에는 1.2%에 불과하였으나 R&D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00년대 들어 5.0%를 상회하기 시작해 2019년 8.2%까지 확대

생산자본스톡의 자산형태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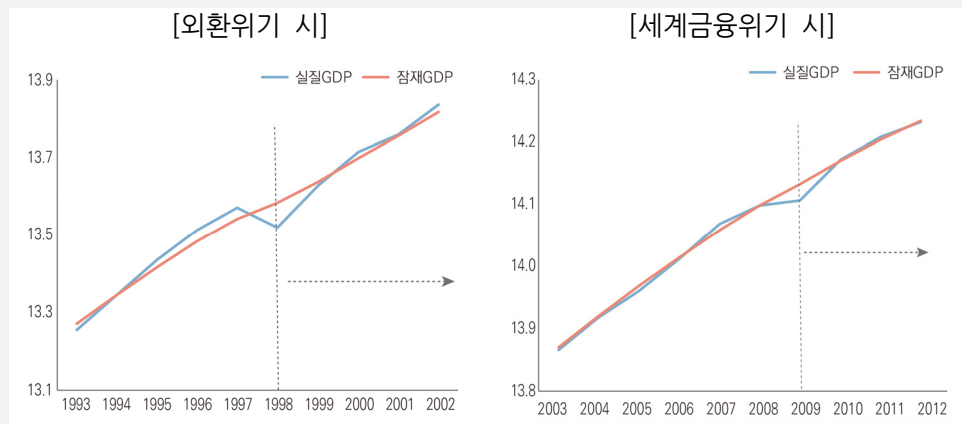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정투자 위축에 따른 생산자본스톡 증가세 둔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 추세를 가속화시킬 가능성
 -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노동인구 고령화로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 5년(2015~2019년) 중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0.3%
 - 자본의 경제성장기여도는 1990년 3.9%p에서 2000년대 2.1%p, 최근 10년 기간 중에는 1.5%p로 하락
 - 외생성이 강한 노동투입과 달리 자본스톡은 성장에 따른 총투자율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므로 성장률 하락이 투자를 위축시키고 투자부진이 다시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성장률 하락 추세를 가속화시킬 위험

[BOX 8] 과거 경제충격 시 회복국면의 특징과 시사점

- 과거 우리 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회복 국면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여 주고 있음
- 1998년 외환위기 시에는 빠르게 충격에서 회복되어 이후 실질GDP가 정상 수준을 상회하여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하는 ‘Z-자형’ 경로를 보임
 - 실질GDP갭(%): (‘97년)3.1 → (‘98년)-6.5 → (‘99년)-1.0 → (‘00년)1.6 → (‘01년)0.4 → (‘02년)2.0
 - 구조조정으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빠르게 회복되었고, 투자는 IT부문을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 지속하며 하락하였던 잠재성장률도 상승 전환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시에는 비교적 빠르게 충격에서 회복되어 정상 수준에 도달하는 ‘V-자형’ 회복 경로를 보임
 - 실질GDP갭(%): (‘08년)0.0 → (‘09년)-2.7 → (‘10년)0.2 → (‘11년)0.3 → (‘12년)-0.4
 -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빠르게 회복되고 노동시장도 정상화되었지만 이후 경제전체의 활력이 저하되며 잠재성장률 하락 가속화

과거 경제충격과 회복국면의 실질GDP와 잠재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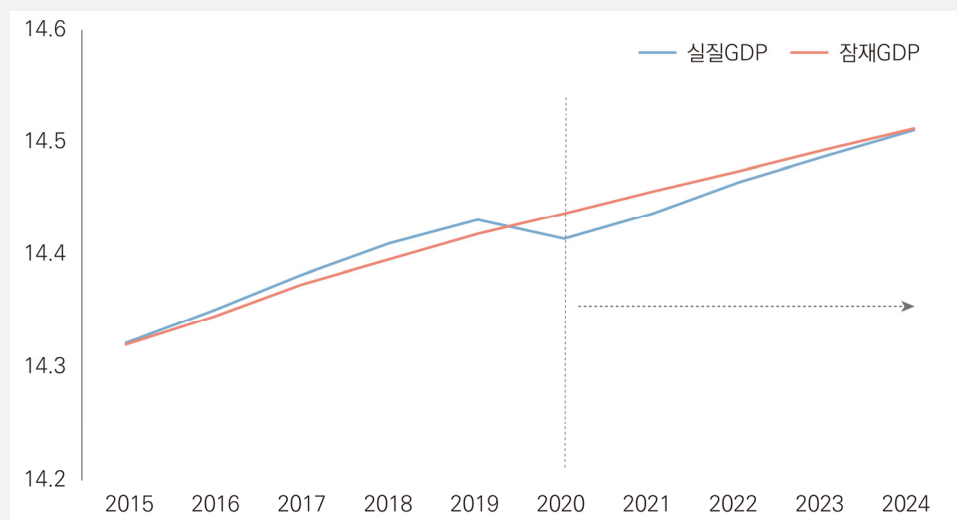


- 주: 1. 실질GDP와 잠재GDP는 모두 자연대수를 취한 값임
 2. 잠재GDP는 생산함수접근법을 이용하여 자체 추정된 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

□ 향후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서 완만하게 회복되는 성장 경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현재의 실질GDP 성장률 전망 하에서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
 - 즉 실질GDP가 잠재GDP 수준을 도달하기까지 보여주는 경로가 이른바 ‘Nike Woosh-형’(‘U-자형’과 ‘L-자형’의 중간 형태) 경로가 될 가능성
 - 실질GDP갭 전망(%): (‘19년)1.3 → (‘20년)-2.7 → (‘21년)-1.8 → (‘22년)-1.0 → (‘23년)-0.5 → (‘24년)-0.2
- 빠른 경기회복과 잠재성장률 제고의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체된 노동시장과 경제전체의 효율성, 미·중 갈등 장기화와 대내외 불확실성에 확대 따른 기업투자 위축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대응이 긴요할 전망

코로나19 충격과 회복국면의 실질GDP와 잠재GDP 전망



주: 1. 실질GDP와 잠재GDP는 모두 자연대수를 취한 값임
 2. 잠재GDP는 생산함수접근법을 이용하여 자체 추정한 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1. 미국
2. 중국
3. 유로지역
4. 일본
5. 브라질·러시아·인도

IV

주요국 경제동향 및 전망

IV. 주요국 경제동향 및 전망

1. 미국

가. 최근 경제동향

- 최근 미국 경제는 소비 및 생산 등 실물지표의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되는 상황
 - 2020년 2/4분기 실질GDP 성장률(잠정치)은 코로나19 충격으로 1/4분기(-5.0%)보다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4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실질GDP성장률(전기비 연율, %): (‘19.4/4분기)2.4 → (‘20.1/4분기)-5.0 → (2/4분기)-31.7
 - 개인소비는 외출자제령 시행 등으로 1/4분기 -6.9%에서 2/4분기 -34.6%로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민간투자는 비주택투자(-27.0%), 주택투자(-38.7%) 등에서 모두 감소하며 부진
 - 정부지출은 코로나19 대응관련 연방정부지출이 큰 폭(1/4분기 1.6% → 2/4분기 17.4%)으로 확대되며 2.7% 증가
 - 소비관련 지표는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과 서비스영업제한 조치 등의 완화로 실질개인소비지출이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습
 - 실질개인소비지출(전기비, 연율)은 7월 중에는 20.9% 늘었으나 전월(93.6%)에 비해 증가폭은 크게 축소
 - 선행지표인 소비자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 기준)는 8월 중 84.8로 전월(91.7)에 이어 하락하며 소비심리가 빠르게 침체되는 양상
 - 산업생산은 7월 중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 축소
 - 전산업생산(전월비,%): (‘20.5월)0.9 → (6월)5.7 → (7월)3.0

- 제조업생산(전월비,%): (20.5월)3.8 → (6월)7.4 → (7월)3.4
- 산업생산의 선행지표인 ISM 제조업지수는 8월 중 56.0으로 전월(54.2)에 비해 예상치(54.4)를 상회하는 증가폭을 기록하였으나 ISM 비제조업지수는 57.2로 예상치(56.9)를 하회

[표 21]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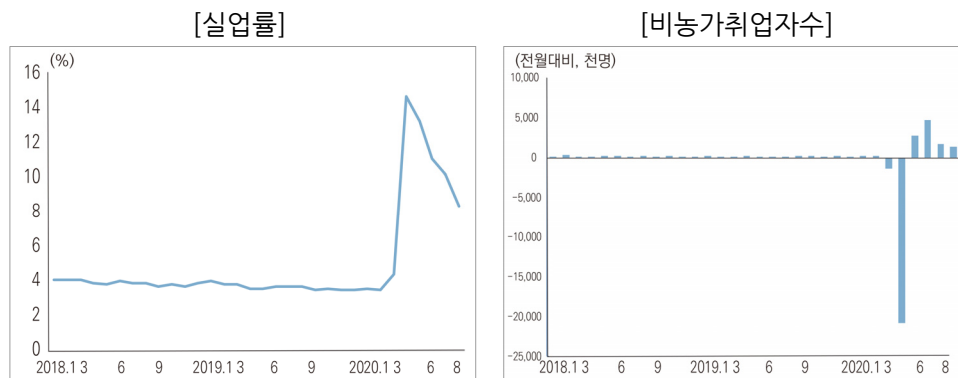
	2018	2019				2020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7월
실질GDP성장률 ¹⁾	2.9	2.2	1.5	2.6	2.4	-5.0	-31.7	-
개인소비지출(실질) ¹⁾	3.0	2.6	4.0	3.5	1.8	-6.9	-34.1	20.9
산업생산 ²⁾	3.9	0.9	-0.6	0.3	0.1	-1.7	-13.2	3.0
주택착공호수 ²⁾	3.9	3.2	4.4	2.5	11.3	3.6	-28.3	22.6
실업률	3.9	3.7	3.6	3.6	3.5	3.9	13.0	10.2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³⁾	2,314	2,133	477	609	630	-908	-4,427	1,734
소비자물가 ⁴⁾	2.4	1.8	1.8	1.8	2.0	2.1	0.4	1.0

주: 1)전기대비 연율(%), 2) 전기대비(%), 3) 전기대비 증감(천명), 4) 전년동기대비(%)

자료: 미국 FRB, BEA, BLS, 컨퍼런스보드, ISM

- 노동시장은 4월 이후 비농가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8월 중 실업률은 4월 이후 처음 한 자릿수로 하락하는 등 회복세를 지속
 - 실업률(%): (20.4월)14.7 → (6월)11.1 → (7월)10.2 → (8월)8.4
 -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만명): (20.4월)-2,078.7 → (6월)478.1 → (7월)173.4 → (8월)1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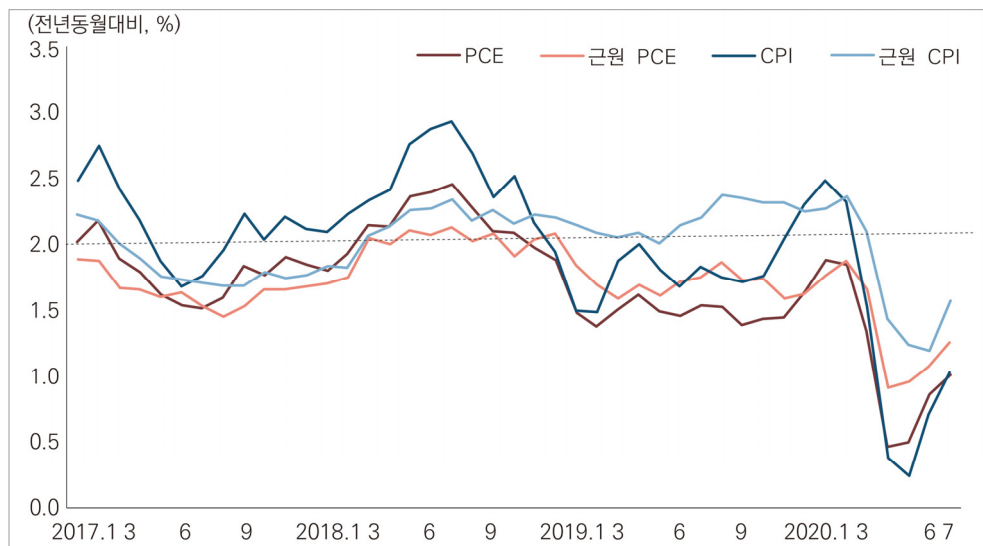
[그림 117] 미국 실업률과 비농가취업자수 추이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물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월 중 0.2%, PCE물가상승률이 4월 중 0.5%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가 7월 중 모두 전년동월대비 1.0%를 기록하여 수요 부진 등에 따른 물가하방 압력이 완화되는 모습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월 중 주로 휘발유(5.6%) 등 에너지가격(2.5%) 상승에 기인하여 전월(0.7)에 비해 0.3%p 상승
 - 근원물가는 7월 중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로 전월(1.2%)에 비해 0.4%p 상승하였고, 근원PCE물가 상승률은 1.3%로 전월(1.1%)보다 0.2%p 상승

[그림 118]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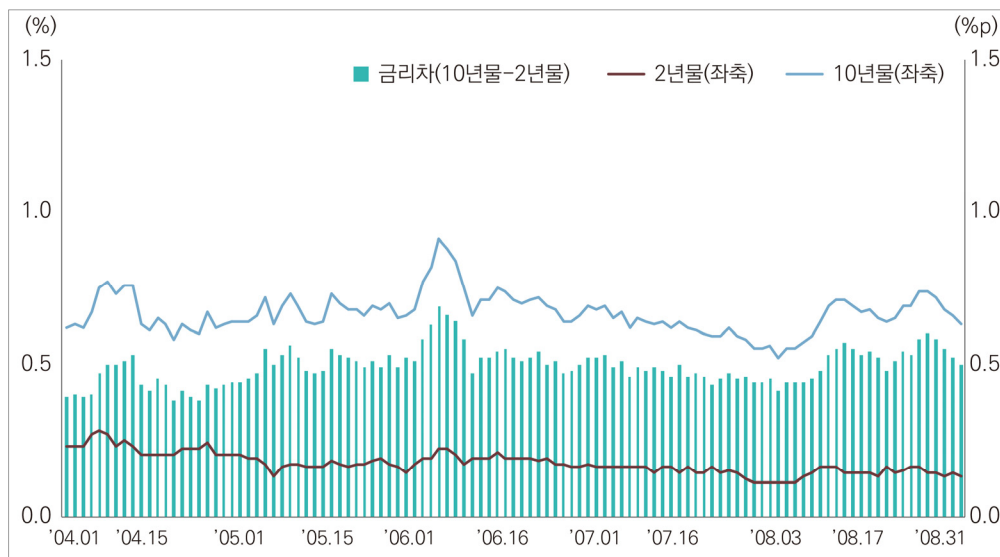
주: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 개인이 미국에서 소비한 모든 품목의 평균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금리는 지난 3월 코로나19 충격 이후 정책금리가 0.00~0.25%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8월 중 10년물 국채금리가 연준의 국채발행 지속, 경기지표 개선 등으로 상승하며 2년물과의 기간금리차가 소폭 확대
 - 시장금리는 8월 들어 10년물 금리가 경기지표 개선과 예상을 상회하는 국채발행 물량 증가* 등으로 상승하며 일평균 0.65%를 기록하여 전월(0.62%)대비 0.03%p 상승한 가운데 2년물 금리는 0.14%로 전월(0.15%) 대비 0.01%p 하락하며 기간금리차는 소폭 확대

- * 미 재무부는 8월 5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3/4분기 국채 발행 규모를 장기물 중심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고, 발행규모는 5월 발표 전망치 (6,770억 달러)보다 확대된 9,470억 달러에 달함
- 기간금리차(국채10년물-2년물,%p): ('20.6월)0.54 → ('20.7월)0.48 → ('20.8월)0.51

[그림 119] 미국채금리 및 기간금리차 일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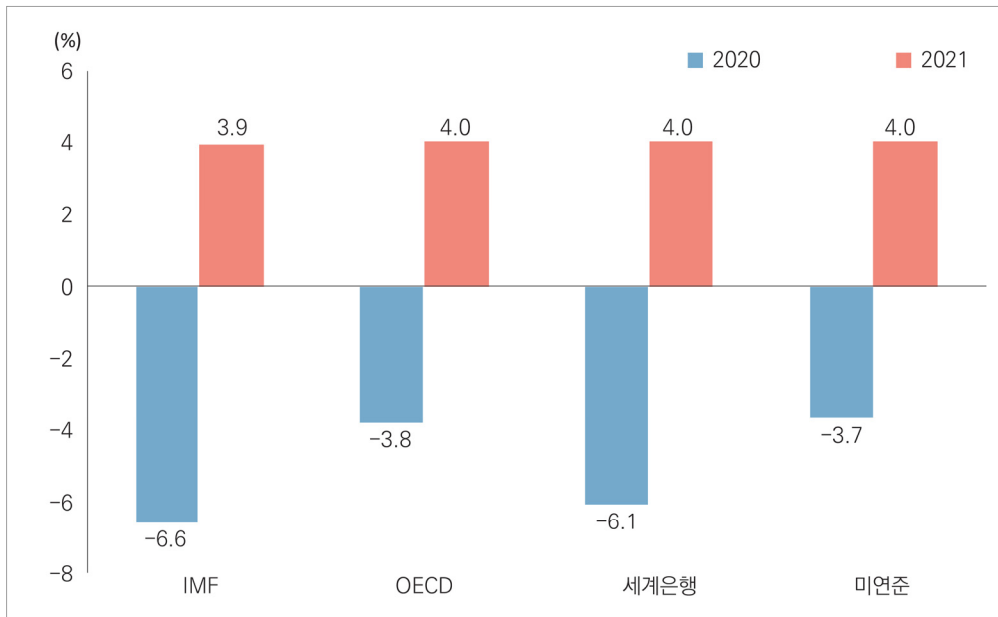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나. 미국 경제전망

- 주요 전망기관은 미국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충격으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며 2020년 $-3.8\sim-6.1\%$ 로 하락하고 2021년에는 $3.9\sim4.0\%$ 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미연준, IMF 등 주요 전망기관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하반기 중에는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 및 신용공급 정책 등을 힘입어 완만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향후 미 경제의 회복경로는 코로나19의 진행 경로와 이에 대한 정책대응에 의존할 것이며, 미 대선과 미·중 갈등 전면화 등은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

- 미연준은 9월 FOMC회의에서 현재의 정책금리수준(0.00~0.25%)을 연준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목표치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까지 유지할 것임을 시사

[그림 120] 주요 전망기관의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주: OECD(코로나19의 Single-hit 시나리오 기준), 미 연준(전망치 중간값)은 2020년 9월, 세계은행은 6월, IMF는 8월 전망치 기준

자료: IMF, OECD, 세계은행, 미연준

- 미행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 2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2020~2021년 중 실질GDP성장률이 각각 3.1%,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⁴³⁾
 - 2020~2021년 중 실질GDP성장률이 잠재성장률(1.8%, CBO 추정치 기준)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동기간 실업률도 자연실업률 4.3~4.6%(미연준 추정치)을 하회하여 3.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치인 2.0%를 상회하여 2021년 2.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43) 미국 행정부의 공식전망치는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ors),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등 3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실시하고 통상 매년 11월에 확정되어 당해연도 2월에 발표되는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의 전망치 기준

- 향후 5년 기간 중 성장률은 2021년 이후 3.0%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 금리(10년만기 국채)는 2019년 2.1%에서 2020년부터 2.0%로 하락한 후, 중기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여 2024년에는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미 의회예산처(CBO)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미국의 잠재성장률(2020년 8월 기준)이 2020년 2/4분기(전기비, 연율) 1.8%에서 하반기 중에는 1.3%까지 하락하고 이후 8분기 만에 회복되어 2022년 3/4분기 중에는 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3/4분기 이후 2024년까지 1.8%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

[표 22] 미국 행정부의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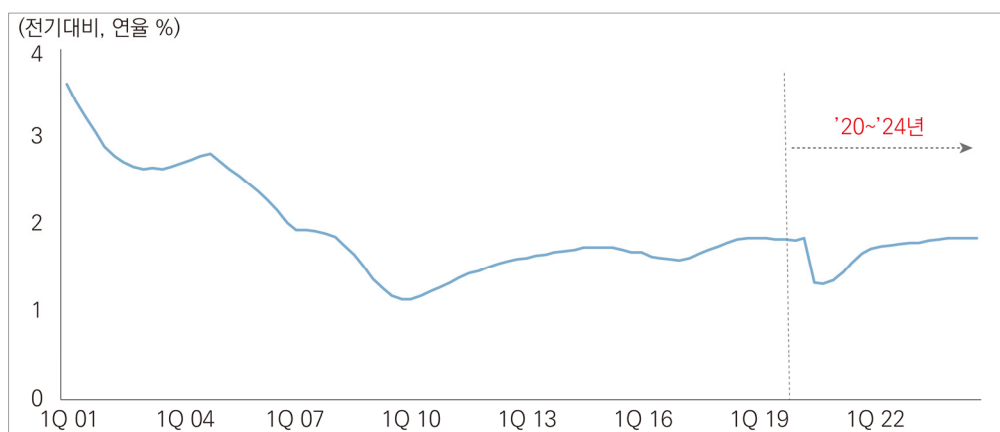
(단위: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실질GDP성장률	2.2	3.1	3.0	3.0	3.0	3.0
소비자물가상승률	1.8	2.3	2.3	2.3	2.3	2.3
실업률	3.7	3.5	3.6	3.8	4.0	4.0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2.1	2.0	2.2	2.5	2.7	3.0

주: 2019년은 실적치

자료: 미국 경제자문위원회(CEA),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2020, Table 9-1(p. 299) 재구성

[그림 121] 미국의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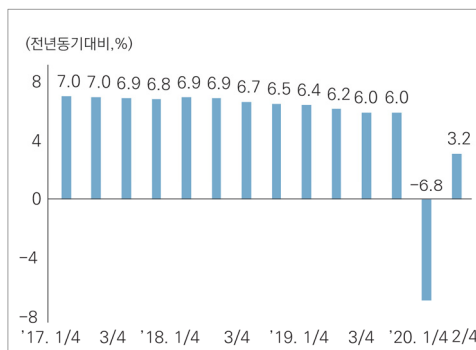
자료: 미 의회예산처(CBO, 2020. 8월 전망치)

2. 중국

가. 최근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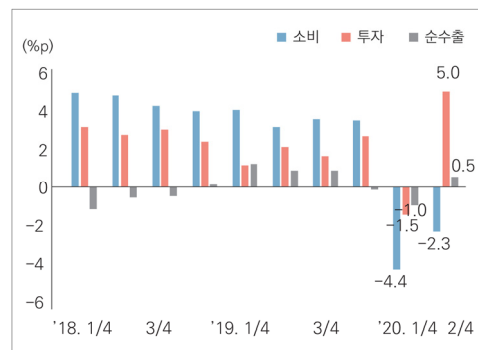
- 2020년 들어 코로나19가 중국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으나, 적극적 방역과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4분기 중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
 - 중국경제가 2020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6.8% 감소했으나, 2/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2% 성장
 - 적극적인 방역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수출 유통체계의 악화를 최소화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중국GDP성장률(전년동분기대비,%): ('19.4/4분기)6.0 → ('20.1/4분기)-6.8 → (2/4분기)3.2

[그림 122] 중국 GDP증가율 추이



자료: CEIC

[그림 123] 경제성장의 지출부문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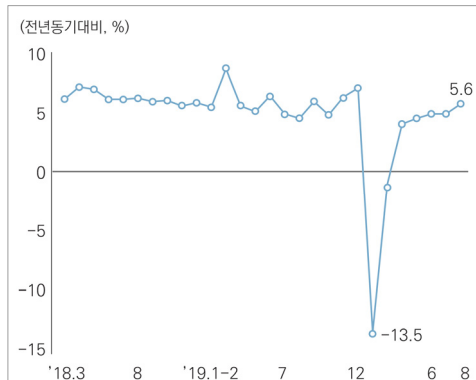


자료: CEIC

- 지출부문별로 볼 때 중국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공공투자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투자의 기여도가 5.0%p로 경제회복을 주도
 - 소비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2.3%p와 0.5%p로 부문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와 수출의 회복이 긴급
 - 소비성장기여도(%p): ('19.4/4분기)3.5 → ('20.1/4분기)-4.4 → (2/4분기)-2.3
 - 투자성장기여도(%p): ('19.4/4분기)2.7 → ('20.1/4분기)-1.5 → (2/4분기)5.0
 - 순수출성장기여도(%p): ('19.4/4분기)-0.1 → ('20.1/4분기)-1.0 → (2/4분기)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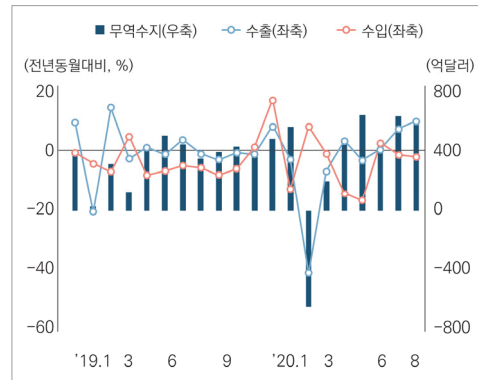
- 경기회복세는 최근까지도 이어져 8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6%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9년 월평균 산업생산증가율 5.7%에 근접한 수준
 - 산업생산의 회복세는 주로 수출이 주도하고 있는데, 8월 수출증가율이 9.5%에 이르고 있으며, 2019년 연간 수출증가율 0.5%와 비교 시 뚜렷이 높은 수준
 - 이는 코로나19로 경색된 모습을 보였던 중국의 수출유통망이 복구되고, 중국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수출을 독려했기 때문으로 보임
 - 생산(전년동월대비,%): ('20.6월)4.8 → (7월)4.8 → (8월)5.6
 - 수출(전년동월대비,%): ('20.6월)0.5 → (7월)7.2 → (8월)9.5
 - 수입(전년동월대비,%): ('20.6월)2.7 → (7월)-1.4 → (8월)-2.1

[그림 124] 중국 산업생산 추이



자료: CEIC

[그림 125] 수출입, 무역수지 추이



자료: CEIC

- 실업률과 소비는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저조
 - 경기회복세에 따라 실업률 상승세가 6월부터 멈춘 모습이나 신규고용까지는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하고 있음
 - 고용의 부진은 식료품 가격 급등, 중국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홍수와 함께 소비회복을 어렵게 하여 8월 소매판매증가율이 전년동월대비 0.5%에 그침
 - 실업률(31개 도시 서베이,%): ('20.6월)5.8 → (7월)5.8 → (8월)5.7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20.6월)-1.8 → (7월)-1.1 → (8월)0.5

[표 23]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 기간 평균)

	2018	2019					202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8월
실질GDP성장률	6.7	6.1	6.4	6.2	6.0	6.0	-6.8	3.2	-
산업생산	6.2	5.7	6.4	5.6	5.7	5.9	-9.4	4.4	5.6
고정투자	5.9	5.4	6.3	5.8	5.4	5.4	-16.1	-3.1	-0.3
소매판매	9.0	8.0	8.3	8.5	7.6	7.7	-19.0	-4.0	0.5
수출	9.9	0.5	0.9	-1.0	-0.2	2.0	-16.6	0.2	9.5
수입	15.8	-2.7	-4.1	-3.5	-6.2	3.9	-2.0	-9.4	-2.1
실업률	4.7	5.2	5.1	5.0	5.2	5.2	5.7	5.8	5.7
소비자물가	2.1	2.9	1.8	1.6	1.5	1.4	1.2	1.0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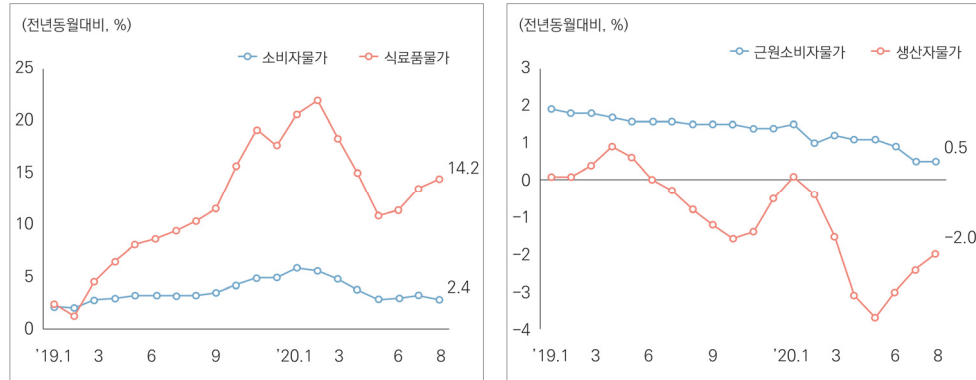
주: 고정투자는 연초부터 기간말까지 포함, 실업률은 13개 도시 서베이

자료: CEIC, Bloomberg

-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의 둔화세와 생산자물가의 마이너스상승률은 디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
 - 남부지역의 홍수로 식료품의 생산·유통에 어려움이 커지며 식료품물가(전년동월대비 14.2%)가 3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나 여타 물가의 안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대체로 둔화세
 - 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은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8월에는 전월과 같은 전년동월대비 0.5%를 기록
 -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0% 하락하여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상승률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음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20.6월)2.5 → (7월)2.7 → (8월)2.4
 - 식료품물가(전년동월대비,%): (20.6월)11.1 → (7월)13.2 → (8월)14.2
 - 근원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20.6월)0.9 → (7월)0.5 → (8월)0.5
 - 생산자물가(전년동월대비,%): (20.6월)-3.0 → (7월)-2.4 → (8월)-2.0

IV

[그림 126] 소비자물가 및 식료품물가 추이 [그림 127] 근원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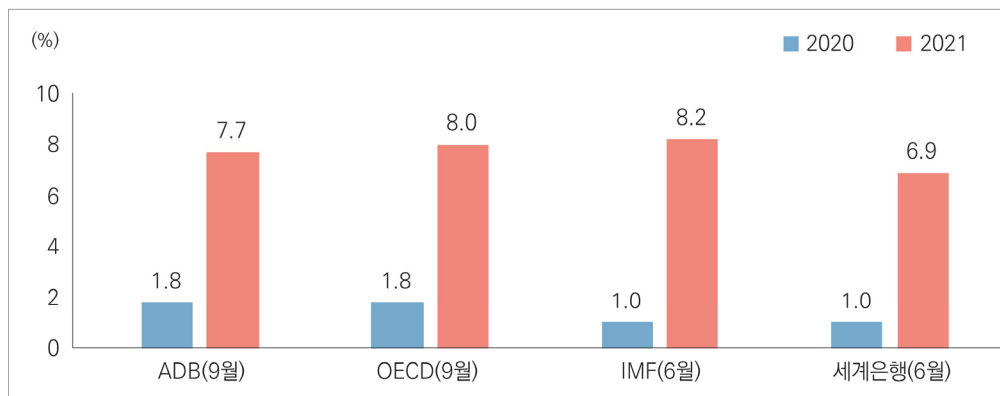
자료: CEIC

나. 중국 경제전망

□ 주요 국제기구는 중국경제의 빠른 회복세를 전망

- IMF 등은 2020년 중국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전년대비 1.0~1.8% 성장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6.9~8.2%로 빠른 회복세를 전망

[그림 128] 주요 국제기구의 중국경제 전망



주: 괄호는 전망시점

자료: ADB, OECD, IMF, 세계은행

- 2021년 중국경제의 빠른 회복세가 예상되는 이유는 팬데믹의 방역에 큰 성과를 보이면서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

- 적극적인 방역을 통해 생산·유통체제가 복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과 수출증대가 예상됨
 -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수출을 제약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의료용품 등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
 - 2021년에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 여타국들의 수입수요가 증가하여 수출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이 백신의 충분한 보급 전까지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적자재정지출, 공공투자 확대 등 재정지출확장 기조가 세계경제가 안정되기까지 지속될 전망
 -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올해 정부적자를 GDP 3.6%로 정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2.8%를 상회
 - 2020년 2/4분기 인프라투자가 2019년 4.1%보다 높은 전년동기대비 5.8% 증가
 - 7.13일 중국 국가발전개발위원회는 올해 여름 대규모 홍수피해 복구 및 신규 치수시설 투자를 위해 1.29조 위안의 지출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향후 3년에 걸쳐 집행될 예정
- 현재 회복세가 부진한 소비도 2021년에는 고용증가 시 회복될 전망
 - 기업의 생산과 수출증가 시 고용사정도 개선될 것이며, 소비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는 감염 위험이 하락하면 올해 지연된 소비가 내년에 집중되어 나타날 가능성
 - 특히 대면소비업종의 회복이 기대
- 중국이 국내 금융시장을 개방하여 해외자본이 유입될 가능성
 - 미·중 1단계 무역협정(1.15일)에서 중국이 금융시장 추가 개방에 동의하면서 1월 외국인투자 은행, 보험사, 선물회사에 이어, 4월부터는 외국인 투자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에 대해서도 외국인 지분한도가 폐지되어 증권시장이 완전 개방
 - 이에 따라 팬데믹이 안정 시 외국 금융기관과 해외자본의 중국 금융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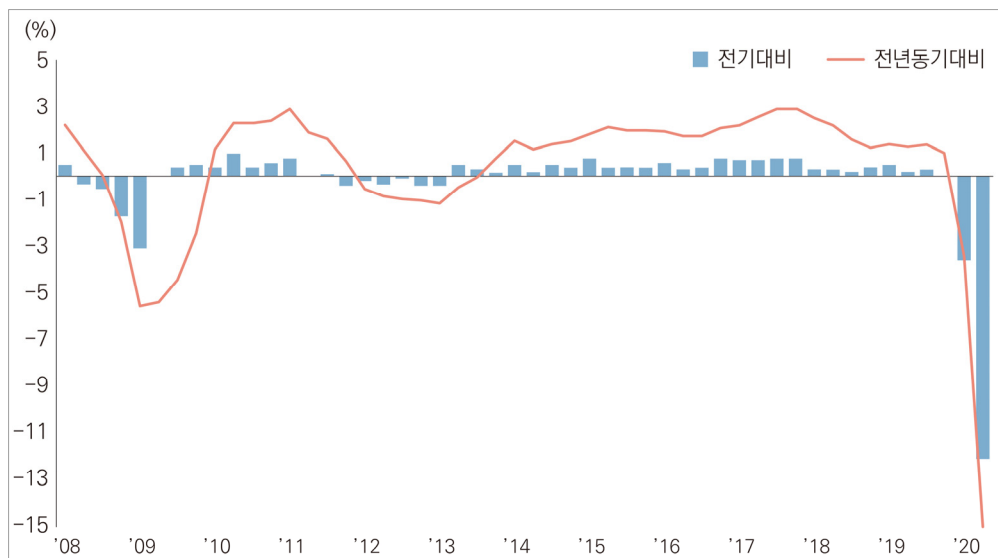
3. 유로지역

가. 최근 경제동향

□ 유로지역 경제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이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이동제한 조치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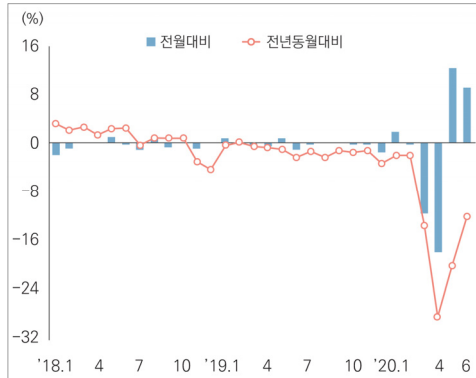
- 유로지역의 2020년 2/4분기 GDP는 전기대비 11.8%, 전년동기대비 14.7% 감소하여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로 실물경제가 큰 폭으로 둔화되며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위축
 - 산업생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3월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여 4월과 5월 각각 전년동월대비 -28.6%, -20.4% 기록
 - 소매판매는 3월부터 이동제한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3월과 4월 전년동월 대비 각각 8.2%, 19.4% 감소하여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

[그림 129] 유로지역 GDP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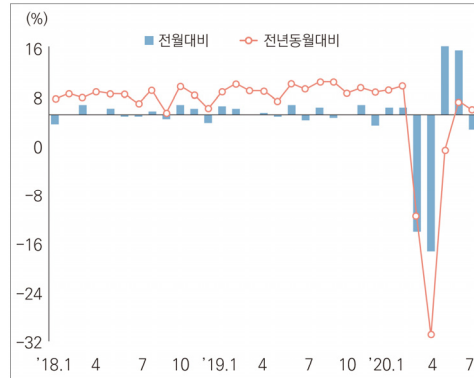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그림 130] 유로지역 산업생산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그림 131] 유로지역 소매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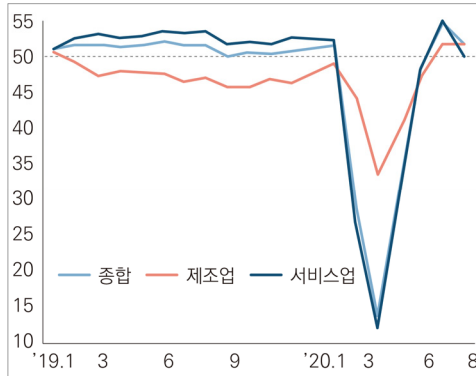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Eurostat

- 5월부터는 이동제한이 부분적으로 해제되기 시작하면서 PMI와 ESI 등 심리 지표가 개선되고 소매판매가 증가로 전환되는 모습
 - 유로지역 종합 PMI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과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4월 중 사상 최저치인 13.6을 기록하였으나 5월부터 상승세를 나타내며 7월 54.9까지 상승
 - 특히 회원국들의 봉쇄조치로 관광 및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극심한 침체를 보였던 서비스업 PMI는 4월 12.0에서 7월 54.7까지 상승
 - 소비자신뢰지수⁴⁴⁾는 여전히 기준선을 하회하고는 있으나 4월(-22.0)을 저점으로 오름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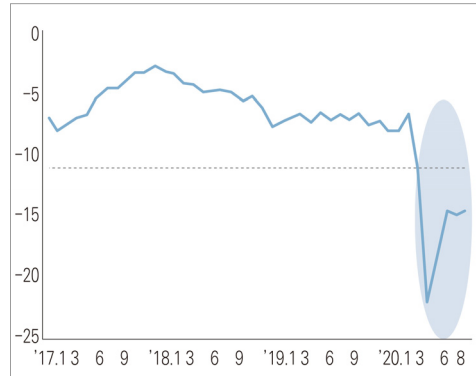
44)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으로 답변한 소비자의 비중 차이에 따라 산출됨.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등락폭이나 장기평균치와의 차이 등으로 판단

[그림 132] 유로지역 산업별 PMI 추이



자료: Bloomberg, Markit

[그림 133]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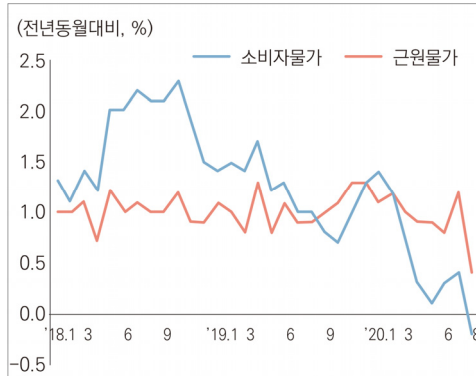


주: 점선은 장기평균치(-11.1)이며, 소비자심뢰 지수가 0보다 낮으면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

자료: EU 집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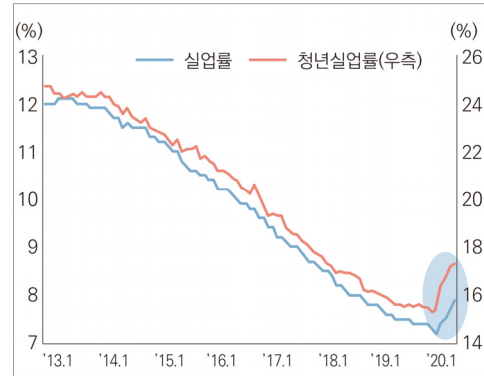
- 그러나 7월말부터 스페인,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각국의 제한조치가 강화되면서 PMI가 재차 하락하고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모습
 - 종합 PMI는 4월 중 사상 최저치(13.5)를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하며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8월 3.3p 하락한 51.6을 기록
 - 특히 스페인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나타내던 서비스업 PMI가 4.6p 하락
- 소비자물가는 2020년 중 경기둔화와 에너지가격 하락 지속으로 큰 폭으로 둔화되었으며 8월 중에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공산품 가격이 하락하고 서비스 물가가 둔화되면서 2016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20.5월)0.1 → (6월)0.3 → (7월)0.4 → (8월)-0.2
 - 에너지물가(전년동월대비,%): ('20.5월)-11.9 → (6월)-9.3 → (7월)-8.4 → (8월)-7.8

[그림 134]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Eurostat

[그림 135] 유로지역 실업률 추이



자료: Eurostat

-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2014년부터 하락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로 상승세를 지속
 - － 유로지역 국가별 실업률('20.7월 기준): 독일(4.4%), 프랑스(6.9%), 이탈리아(9.7%), 스페인(15.8%), 그리스(17.0%)
 - － 유로지역 국가별 실업률 증감('19.7월대비 '20.7월): 덴마크(1.3%p), 독일(1.4%p), 스페인(1.5%p), 포르투갈(1.6%p), 스웨덴(2.6%p)

[표 24] 유로지역 주요거시경제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8	2019					2019		
	연간	연간	Q1	Q2	Q3	Q4	Q1	Q2	8월
GDP성장률	1.8	1.3	1.5	1.2	1.4	1.0	-3.2	-14.7	
가계소비지출	1.5	1.3	1.3	1.3	1.5	1.2	-3.8	-15.9	
고정자본형성	3.1	5.7	4.5	9.9	3.3	5.0	1.2	-21.1	
수출	3.6	2.5	3.2	2.4	2.8	1.8	-3.1	-21.5	
산업생산	0.7	-1.3	-0.3	-1.3	-1.6	-2.1	-5.9	-20.4	
소매판매	1.6	2.3	2.5	2.1	2.7	2.1	-1.1	-6.9	
경상수지 (10억유로)	354.4	316.9	89.2	63.3	92.9	78.7	49.3	45.9	
소비자물가	1.8	1.2	1.4	1.4	0.9	1.0	1.1	0.2	-0.2
달러/유로 환율	1.181	1.119	1.134	1.123	1.112	1.107	1.103	1.101	1.183
실업률	8.2	7.6	7.8	7.6	7.5	7.4	7.3	7.6	7.9

주: 소비자물가는 종합소비자물가지수(HICP) 기준

자료: Bloomberg, ECB, Eurostat

나. 유로지역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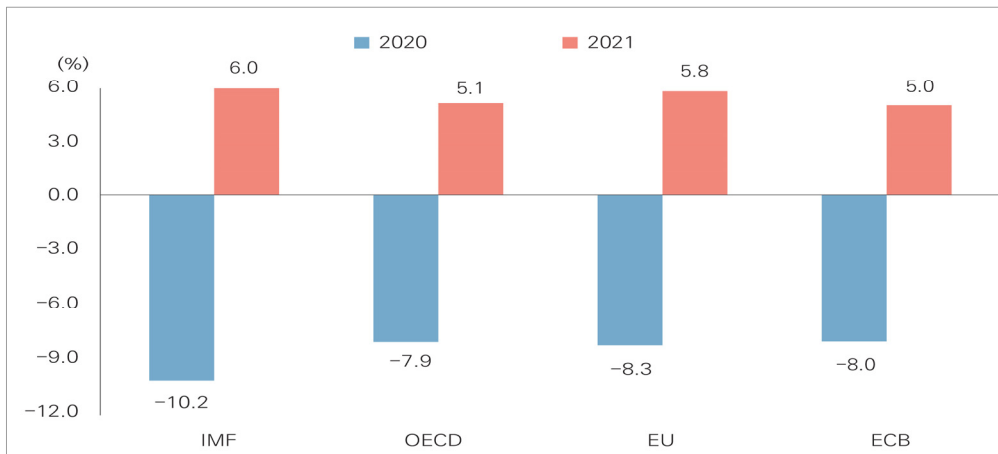
□ 유로지역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이동제한 조치 장기화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한 후 2021년 중 완만한 회복을 보일 전망

- EU는 7월 하계 경제전망을 통해 유로지역 GDP가 2020년 8.3% 감소한 후 2021년 5.8% 회복할 것으로 전망
 - 유로지역 회원국들의 이동제한 완화 조치가 당초 예상보다 천천히 진행됨에 따라 경제활동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5월 경제전망(2020년 -7.4%, 2021년 6.1%)시 보다 성장률을 하향 조정
 - 유로지역 경제가 2021년 회복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의 GDP 규모에 비해 약 2%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다만, EU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의 집행은 7월 전망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부양책이 시행될 경우 경제성장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IMF는 2020년 6월 수정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20년과 2021년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대비 각각 -2.1%p와 +1.3%p 조정한 -10.2%와 6.0%로 전망
- OECD는 2020년 9월 보고서에서 유로지역 성장률이 2020년과 2021년 각각 -7.9%, 5.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지난 6월 전망 대비 2020년 성장률은 소폭 상향(+1.2%p), 2021년 성장률은 소비부진 등을 반영하여 비교적 크게 하향조정(-1.4%p)한 모습
- ECB는 9월 전망을 통해 2020년과 2021년을 각각 -8.0%, 5.0%로 전망
 - ECB는 3/4분기의 반등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2020년 성장률을 0.7%p 상향 조정⁴⁵⁾
 - 2021년은 재정정책의 효과가 축소되는 점 등을 반영하여 0.2%p 하향 조정
- 한편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 중 유가하락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0.3%의 낮은 수준을 보일 전망

45) 2020년 6월 전망에서 2020년과 2021년을 각각 -8.7%, 5.2%로 전망

- 그러나 중기적으로 경기회복과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상승 압력이 강화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
- ECB는 2020년 9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1년 1.0%, 2022년 1.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그림 136] 주요기관의 유로지역 2020년 및 2021년 경제전망



주: IMF는 6월, EU는 7월, OECD와 ECB는 9월 전망치임

자료: OECD, ECB, EU, IMF

4.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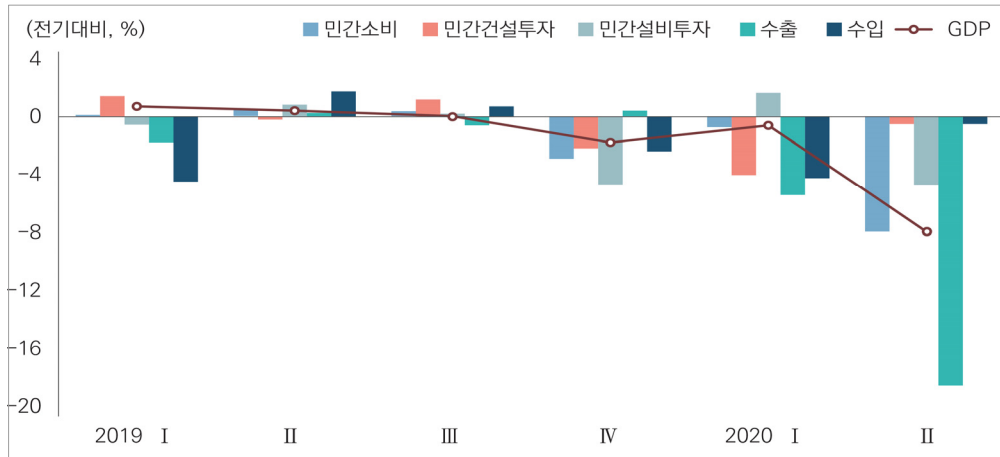
가. 최근 경제동향

□ 2020년 일본경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한 모습

- 일본 경제성장률은 2020년 1/4분기 중 전기대비 0.6%, 2/4분기 중 7.9% 감소하여 2009년 금융위기 당시(09.1/4분기 -4.8%)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
 - 대외 수출은 2019년부터 세계경기 둔화로 대외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음
 - 민간소비는 20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충격이 반영되어 큰 폭으로 감소
 - 수출(전기대비,%): (19.4/4분기)0.4 → (20.1/4분기)-5.4 → (2/4분기)-18.5
 - 민간소비(전기대비,%): (19.4/4분기)-2.9 → (20.1/4분기)-0.7 → (2/4분기)-7.9

IV

[그림 137] 일본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내각부

[표 25]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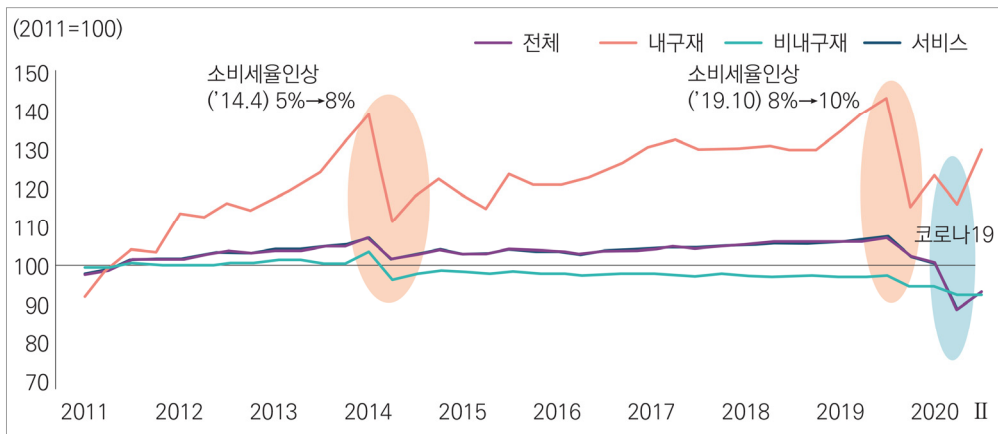
	2018	2019				2020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7월
GDP성장률 ¹⁾	0.3	0.7	0.4	0.0	-1.8	-0.6	-7.9	-
수출	5.7	-4.4	-6.2	-1.3	-4.3	-4.2	-23.8	-19.2
수입	11.4	-3.7	-0.9	-1.3	-8.5	-6.1	-14.2	-22.3
경상수지 ²⁾ (억엔)	192,221	200,391	45,676	57,705	37,468	56,999	16,070	14,683
광공업생산	0.3	-3.8	-2.2	-1.1	-6.8	-4.5	-19.8	-16.1
소매판매	1.6	-0.4	0.7	2.9	-3.8	-1.3	-9.3	-2.8
실업률 ³⁾	2.4	2.4	2.4	2.3	2.3	2.4	2.8	2.9
소비자물가	1.0	0.5	0.8	0.3	0.5	0.5	0.1	0.3
엔/달러 환율 ³⁾	-1.5	-1.3	0.9	-3.6	-3.6	-1.1	-2.2	-1.3

주: 1) 전기대비, 2) 기간 중 합, 3) 기간 평균

자료: 일본은행, 일본 내각부, 재무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는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소비세율 인상 등 잇따른 소비 제약은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
 - 20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8% → 10%)으로 내구재를 중심으로 가계실질 소비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의 충격이 더해져 소비부진이 심화
 - 가계실질소비지출(전월대비,%): ('19.10월) -11.9 → ('20.3월) -4.3
 - 실질소비활동지수(2011=100): ('19.4/4분기) 102.5 → ('20.1/4분기) 100.9 → (2/4분기) 8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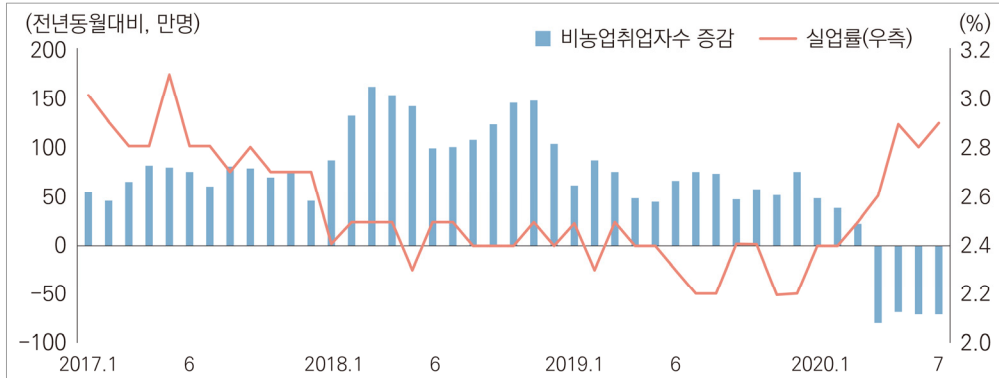
[그림 138] 일본 실질소비활동지수 추이



자료: 일본은행

-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던 고용지표도 취업자수 감소폭이 확대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악화
 - 비농업취업자 수는 2020년 4~7월 평균 72만명(전년동월대비) 감소
 - 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4~5월 중 외출 자제를 권고하고 서비스업종 영업제한 및 정지를 요청하는 ‘긴급사태’를 발령하여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 오락문화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큰 폭 감소한데 기인
 - 실업률은 연초 2.4% 수준에서 7월 중 2.9%까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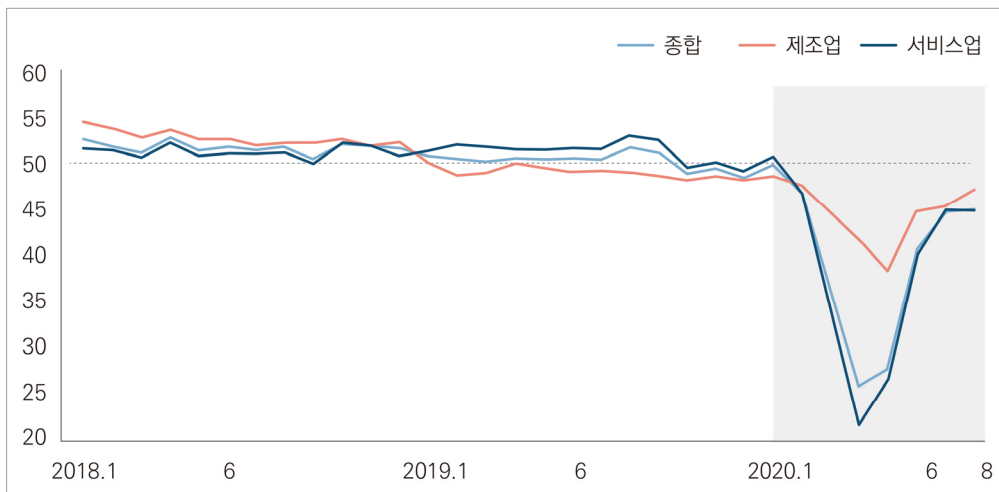
[그림 139] 일본 비농업취업자수와 실업률 추이



자료: 총무성

- 일본의 PMI 지수는 2020년 3~4월 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었으나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
 - 종합PMI는 소비 위축에 따른 서비스업중 판매 부진으로 2020년 4월 25.8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점차 상승하며 8월 45.2를 기록
 - 다만 기준선인 50은 여전히 하회하는 부진한 모습
 -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상승세에 불확실성이 존재

[그림 140] 일본 PM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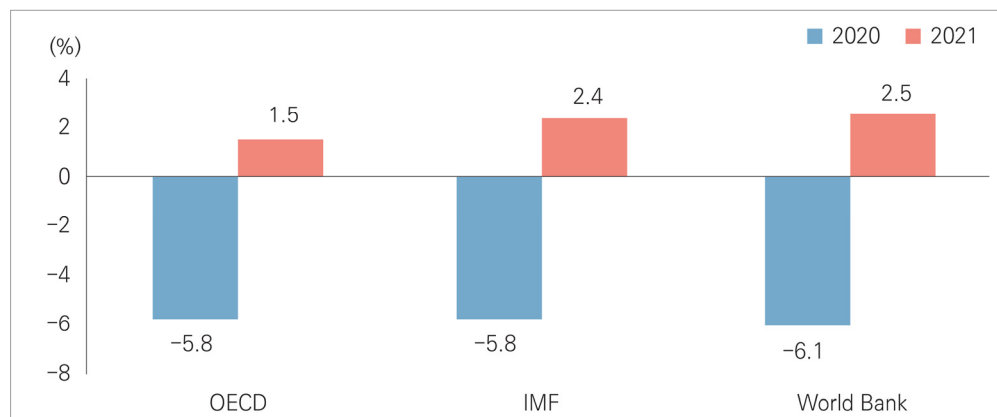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나. 일본 경제전망

- 주요 전망기관은 2021년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2.5% 범위로 예측
 - OECD(20.9월 전망)는 일본 경제가 2020년 -5.8%, 2021년은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종전(20.6월) 전망과 비교하여 2020년 경제성장률을 0.2%p 상향 조정하고 2021년은 0.6%p 하향 조정
 - 2020년 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향 조정한 근거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가 재정지출확대를 통해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경기부양노력을 반영
 - 그러나 글로벌 교역 부진은 향후에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 IMF(20.6월 전망)와 World Bank(20.6월 전망)는 2020년 일본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후 점차 회복하여 2021년에는 2.4~2.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그림 141] 주요 국제기구의 일본 경제전망



자료: OECD(20.9월 전망), IMF(20.6월 전망), World Bank(20.6월 전망)

- 일본 정부는 4월 8일 ‘긴급사태’를 발령 후 5월 27일 해제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7월 15일 최고경보수준으로 상향 발령
 - 일본은 4월 중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에 달했으나 5월에 100명 이하로 감소하였고 7월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재확산이 발생하여 총 환자 수 7만5천명을 돌파⁴⁶⁾
- 일본정부는 제로금리체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경주
 - 2020년 4월 ‘비상경제패키지’를 발표하고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30만엔(약 347만원)을 지급
 -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여 1~2차 총 사업비 233.9조엔(2019년 GDP의 약 42%) 규모의 재정·민간자본 투입
- 일본은행은 2020년 7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내수뿐만 아니라 대외수요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2020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2021년에는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일본 GDP 성장률(%): 2020년 -4.7, 2021년 3.3, 2022년 1.5

5. 브라질·러시아·인도

가. 최근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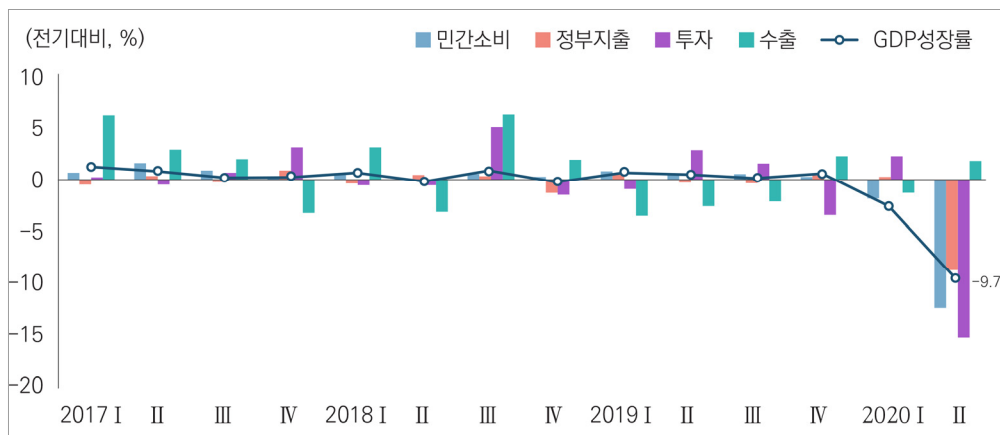
- 2020년 브라질 경제는 민간소비와 투자가 큰 폭으로 위축되는 등 경기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 2/4분기 내수 전반이 큰 폭으로 위축
 -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약 432만명⁴⁷⁾으로 미국(약 643만명), 인도(약 485만명)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준
 - 코로나19의 확산세 지속으로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내수 전반에서 부진
 - 민간소비(전기대비,%): (19.4/4분기)0.4 → (20.1/4분기)-1.9 → (2/4분기)-12.5

46) WHO(2020.9.13.) 기준

47) WHO(2020.9.14.) 기준

- 다만,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 하에서 대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나며 전기대비 1.8% 증가
 - 수출품목 1순위인 대두(콩) 수출이 2020년 1~6월 중 전년동월대비 32.5% 증가하는 등 대중국 수출이 동기간 13.2% 증가하였으나, 대미국 수출은 32.1% 감소
 - 브라질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9년 전체 수출액 대비 27.9%, 수입 비중은 20.3%를 차지하는 등 높은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나타냄
 - 수출(전기대비,%): (19.4/4분기)2.3 → (20.1/4분기)-1.3 → (2.4분기)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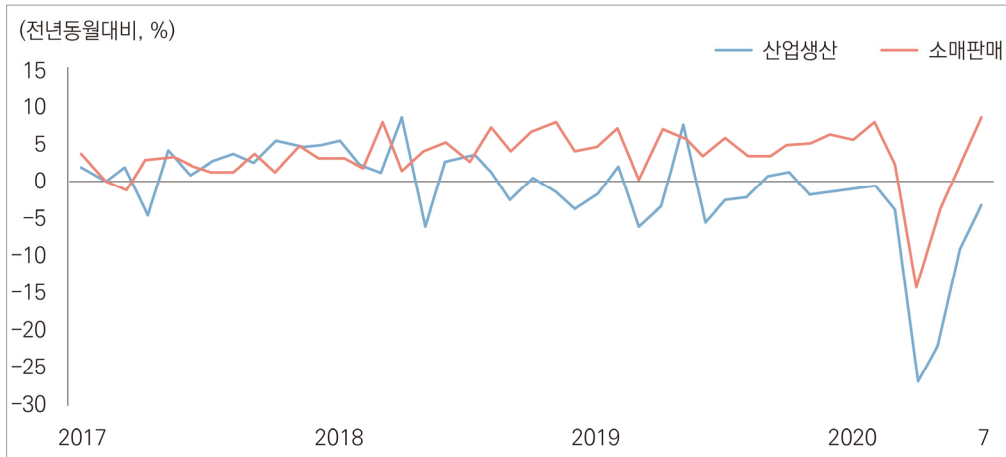
[그림 142] 브라질 부문별 성장률 추이



자료: Bloomberg

- 브라질의 산업생산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는 최근 반등하는 모습
 - 산업생산은 2019년부터 광공업 중심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4월 전년동월대비 27.5%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감소폭은 줄고 있으나 감소세는 지속
 - 소매판매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구·가사용품, 서적, 사무용품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반등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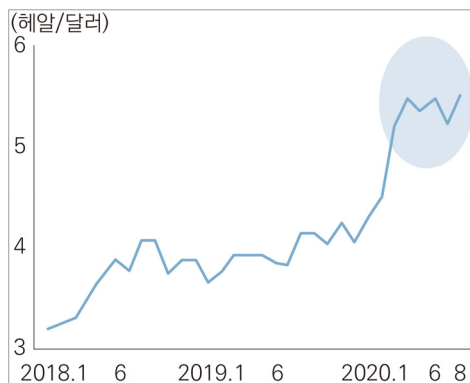
[그림 143] 브라질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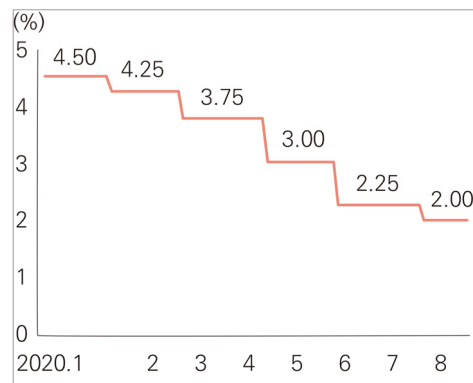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미 달러화 대비 헤알화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기준금리는 최저 수준으로 인하
 - － 브라질 헤알화 환율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020년 들어 급격히 상승해 2020년 5월 미 달러당 5.9헤알 수준을 기록
 - － 브라질 중앙은행은 2020년 들어 5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기준금리가 도입된 1996년 이래로 최저인 2.0%까지 하락
 - － 브라질 헤알화 환율(헤알/달러, 월평균): (‘19.1월)3.6 → (‘20.1월)4.3 → (‘20.8월)5.5
 - － 브라질 정책금리(%): (‘19.1월)6.5 → (‘20.1월)4.50 → (‘20.8월)2.00

[그림 144] 브라질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145] 브라질 정책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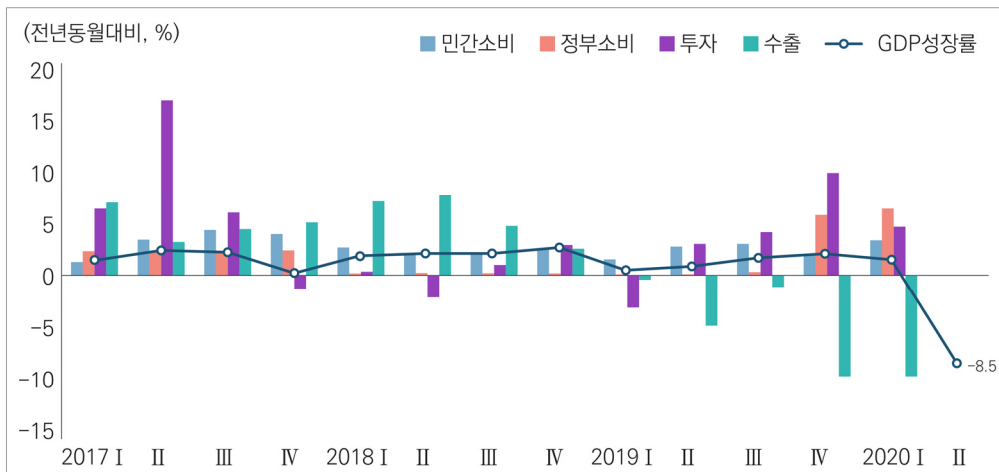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최근 러시아 경제는 유가하락 등에 따른 수출 감소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 내수 부진으로 위축되는 모습

- 2020년 러시아 경제는 유가 하락과 원자재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침체된 모습
 - 2020년 1/4분기 수출은 국제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천연가스 등 원자재의 전 세계 수요가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9.8% 감소
 -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생산활동과 소비 위축 등으로 2020년 2/4분기 GDP성장률은 -8.5%로 급락
 - 러시아 GDP성장률(전년동기대비,%): (‘19.4/4분기)2.1 → (‘20.1/4분기)1.6 → (2/4분기)-8.5

[그림 146] 러시아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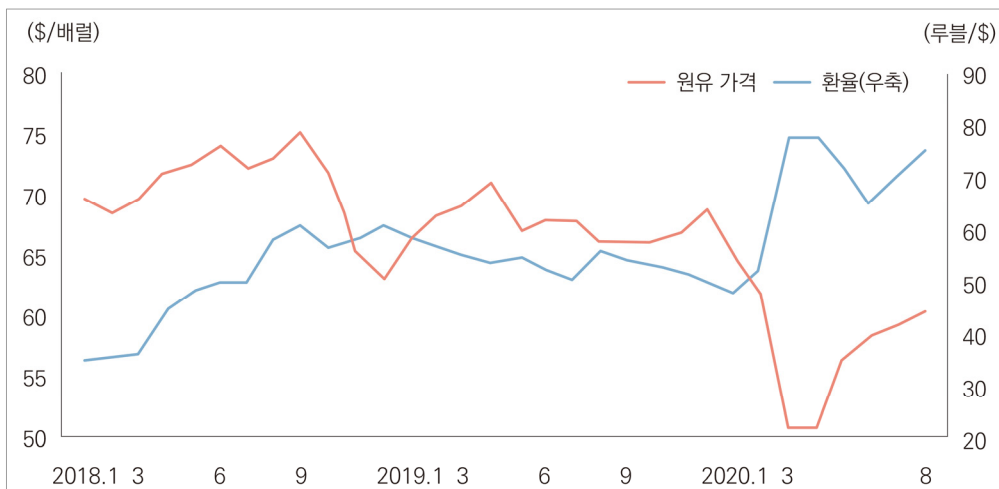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2020년 초 국제원유가격 하락으로 러시아 루블화 환율도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
 - 국제원유가격은 2020년 3월 OPEC+ 감산 합의가 결렬되면서 배럴 당 20달러 수준으로 하락
 - 이후 4월 OPEC+가 감산에 합의하면서 유가는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로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
 - 러시아는 원유 등 천연자원의 생산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변동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원자재 가격에 환율이 민감하게 반응

-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내 원료시장 상황 안정을 위해 2020년 10월 1일 까지 휘발유, 디젤 등 석유제품 수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정부시행령을 발표(2020.5.22.)
-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 세계경기 위축의 영향으로 저유가 상황이 지속 될 경우 러시아 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그림 147] 국제원유가격과 러시아 루블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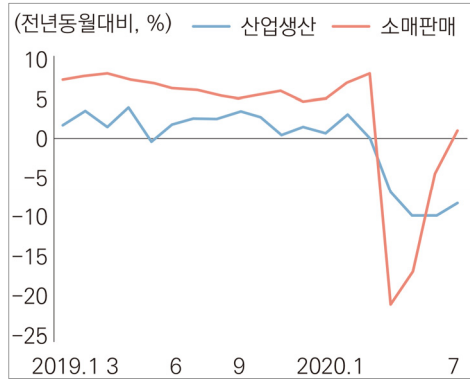


주: 국제원유가격은 WTI, 브렌트, 두바이유 가격의 평균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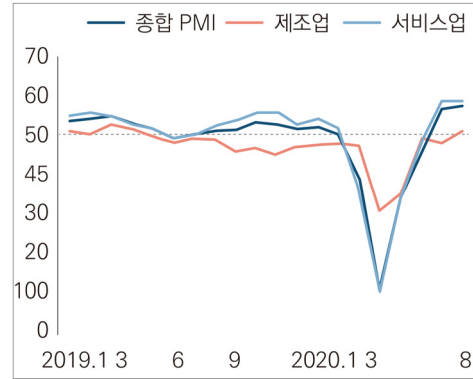
- 러시아의 산업생산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PMI 등 일부 지표는 개선되는 모습
 - 산업생산은 코로나19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2020년 4월부터 광공업과 제조업, 운송업을 중심으로 크게 위축
 - 소매판매는 음식료품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7월에는 소폭 증가
 - PMI지수는 2020년 8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기준선인 50을 상회

[그림 148] 러시아 생산과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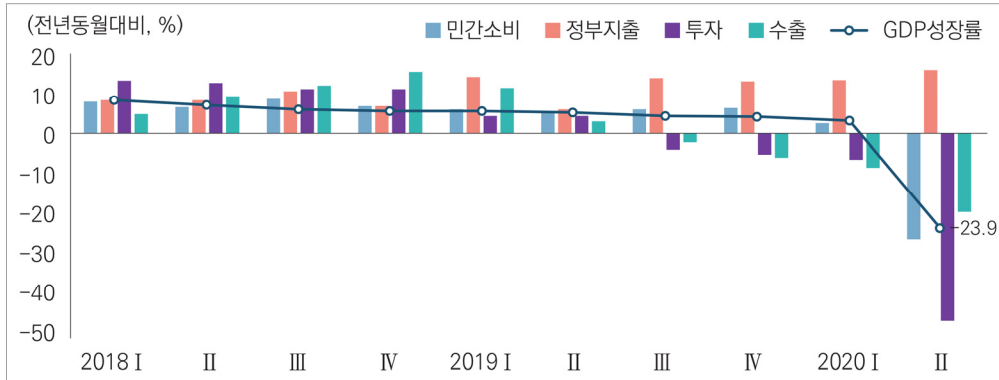
[그림 149] 러시아 PMI 추이



자료: Bloomberg

- 2020년 인도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투자, 수출 등 경제 전반이 부진한 모습
- 인도 경제는 2019년부터 투자와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며 부진한 가운데 2020년 2/4분기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세하며 크게 위축
 -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2020년 3월 25일부터 국가봉쇄 조치를 발동하여 생산과 소비 활동이 전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2020년 2/4분기 GDP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3.9% 감소
 - 인도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19.4/4분기)4.1 → (‘20.1/4분기)3.1 → (‘20.2/4분기)-23.9
 - 인도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명에 육박하여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가장 많은 미국(639만명, 일일 신규 약 4.5만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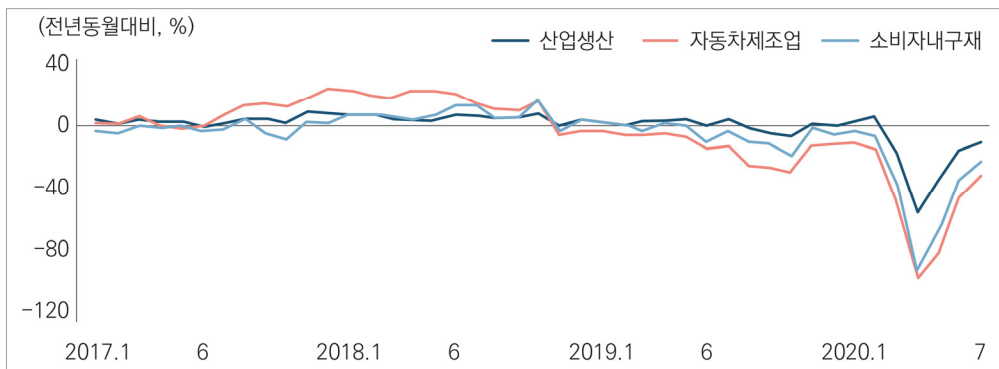
[그림 150] 인도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Bloomberg

- 인도의 산업생산은 2020년 들어 자동차와 내구재 생산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위축
 - 인도의 자동차생산은 세계경기둔화와 유럽의 배기가스 배출 규제 강화 등으로 2019년에 전년대비 10.9% 감소하여 부진한 상황에서 2020년 들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 운송 수요 감소와 인도 내 국가봉쇄 조치 등으로 2020년 4월 전년동기대비 99.4% 감소
 - 소비자 내구재도 2020년 4월 전년동기대비 95.7% 감소

[그림 151] 인도 산업생산 추이



자료: Bloomberg

[표 26] 주요 신흥국 경제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8	2019				2020		
		연간	2/4	3/4	4/4	1/4	2/4	7월
브라질	GDP 성장률(실질) ¹⁾	1.2	1.7	0.5	0.1	0.5	-2.5	-9.7
	산업생산	1.1	-1.0	-0.5	-1.1	-0.6	-1.7	-19.4
	소매판매	4.9	5.0	5.3	4.7	5.7	5.7	-5.2
	수출 ²⁾	9.9	-5.8	13.9	3.2	-1.2	-13.2	9.9
	소비자물가	3.7	3.7	4.3	3.2	3.4	3.8	2.1
	정책금리	6.50	4.50	6.50	5.50	4.50	3.75	2.25
	헤알/달러 환율 ³⁾	14.3	8.1	9.1	0.5	8.1	18.3	36.9
러시아	GDP 성장률(실질) ¹⁾	2.5	1.3	2.4	-0.9	-0.7	-0.9	-3.2
	산업생산	0.3	3.5	2.0	3.1	1.8	1.6	-8.5
	소매판매	6.1	6.6	7.1	5.6	5.6	6.9	-13.8
	수출(십억달러) ²⁾	2,815	2,710	522	826	1,157	180	410
	소비자물가	2.9	4.5	5.0	4.3	3.4	2.4	3.1
	정책금리	7.75	6.25	7.50	7.00	6.25	6.00	4.50
	루블/달러 환율 ³⁾	7.5	3.1	16.0	4.3	-1.4	-4.3	12.1
인도	GDP 성장률(실질)	6.8	4.9	-5.2	-4.4	-4.1	-3.1	-23.9
	산업생산	2.5	0.4	1.3	-4.6	0.4	-18.7	-15.8
	수출 ²⁾	8.3	0.0	-1.7	-3.6	-1.1	-12.8	-36.9
	소비자물가	4.9	7.7	8.5	6.4	8.6	6.6	5.2
	정책금리	6.5	5.2	5.8	5.4	5.2	4.4	4.0
	루피/달러 환율 ³⁾	5.0	2.9	9.4	3.9	0.6	-1.3	9.1

주: 1) 전기대비, 2) 기간 중 합, 3) 기간 평균, 4) 2020년 8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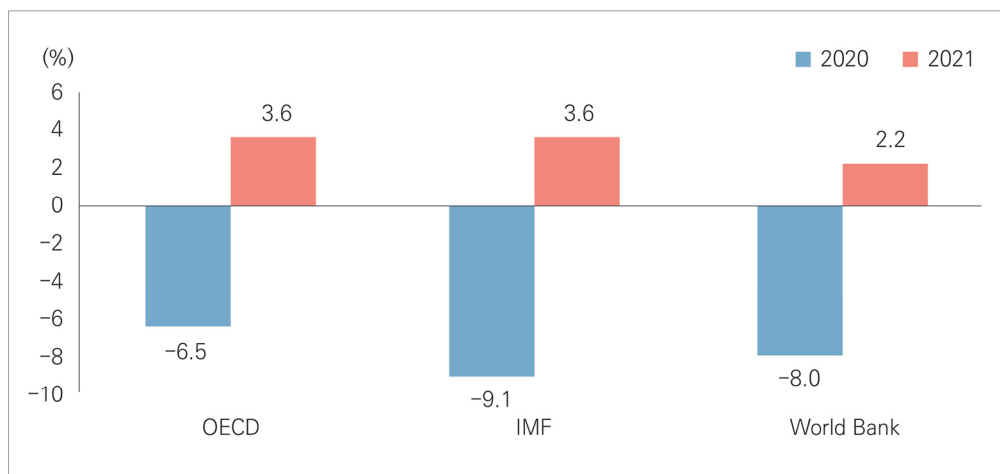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은행, CEIC

나. 브라질·러시아·인도 경제전망

- 2021년 브라질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브라질 정부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한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운용

- 브라질 정부는 약 1,200만명의 저소득층에 한달에 120달러를 지원하는 현금지원제도(Bolsa Familia)를 비롯하여 약 7,500억 헤알(약 165조원, 2019년 GDP의 6.8%)의 긴급지원패키지를 시행
- 브라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4.5%(20.1월)에서 2.0%(20.8)로 인하하고 530억달러(2,729억 헤알) 규모의 유동성 공급
- 브라질 중앙은행(20.8월 전망)은 2020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지만 2021년에 'V자형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2020년 브라질 경제성장률은 -5.6%, 2021년 3.5%, 2022~2023년 평균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OECD(20.9월 전망)는 브라질 경제가 2020년 -6.5%, 2021년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종전(20.6월 전망) 전망치(2020년 -7.4%, 2021년 4.2%)에서 브라질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대응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하며 2020년 경제성장률을 0.9%p 상향 조정하고 2021년은 0.6%p 하향 조정
- IMF(20.6월 전망)와 World Bank(20.6월 전망)는 브라질 경제가 2020년 경기 침체를 겪고 2021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각각 3.6%,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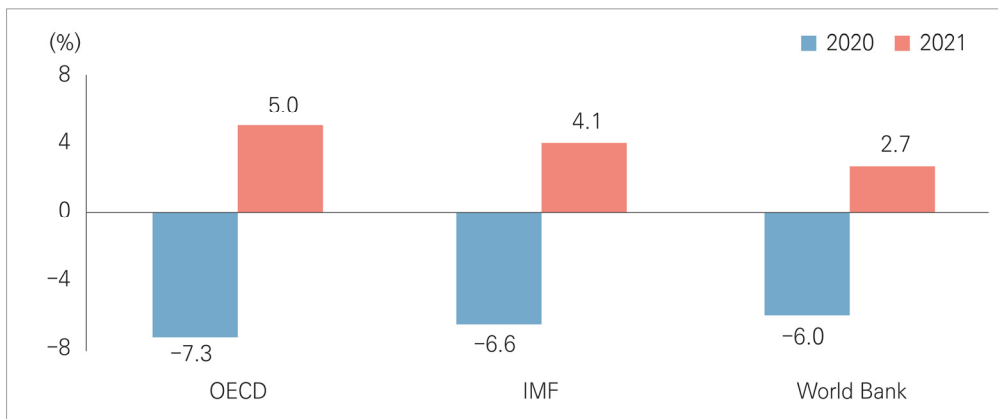
[그림 152] 주요 국제기구의 브라질 경제전망



자료: OECD(20.9월 전망), IMF(20.6월 전망), World Bank(20.6월 전망)

- 2021년 러시아 경제는 세계 원유수요의 증가와 러시아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할 전망
-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은 코로나19와 유가하락에 따른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정책을 발표
 - 취약계층과 피해기업 보호를 위하여 2.1조루블(약 280억 달러, 2019년 GDP의 1.7%) 규모의 재정지원패키지를 발표
 - 러시아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6.25%(20.1월)에서 4.25%(20.7)로 인하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 운용
 -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20~2023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
 - 러시아 GDP성장률 전망(2020.5.21.발표, %): 2020년 -5.0%, 2021년 2.8%, 2022년 3.0%, 2023년 3.1%
 - OECD(20.9월 전망)는 러시아 경제가 2020년 -7.3%, 2021년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준금리를 200bp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 운용으로 종전(20.6월 전망) 전망치(2020년 -8.0%, 2021년 6.0%)에 비해 2020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
 - IMF(20.6월 전망)와 World Bank(20.6월 전망)는 러시아 경제가 각각 4.1%,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

[그림 153] 주요 국제기구의 러시아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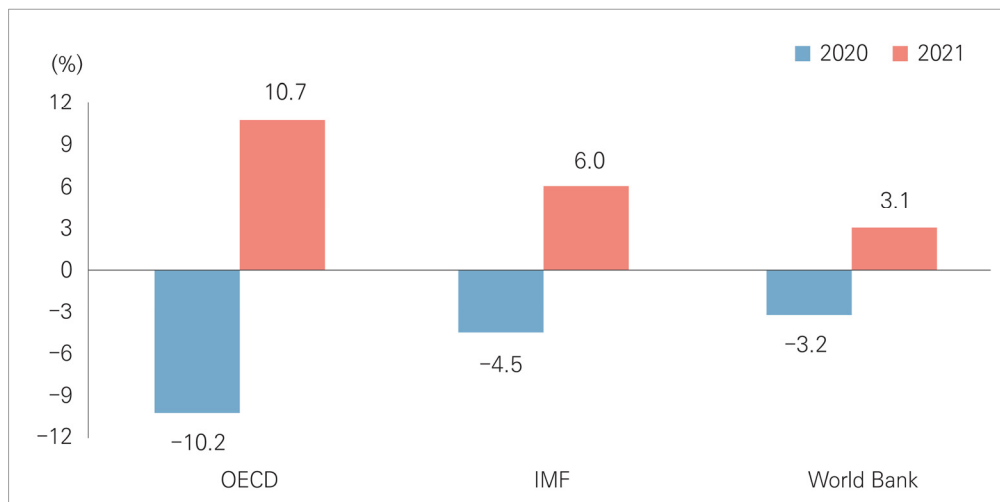
자료: OECD(20.9월 전망), IMF(20.6월 전망), World Bank(20.6월 전망)

- 주요 전망기관들은 2021년 인도경제가 3.1~10.7% 범위에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성장 경로에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인도는 지속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기가 위축되자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경제대응정책을 시행
 - 인도는 코로나19의 확산세 급증으로 국가보증조치 등을 시행했으나 이에 따른 경제 위축으로 민간은행인 예스뱅크(Yes Bank)가 2020년 5월 6일 모라토리엄을 선언
 - 은행권 경영 악화로 공영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2019년 말 9.1%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잠재적인' 부실채권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⁴⁸⁾
 - 인도 정부는 5월 12일 국영은행에 7천억루피(약 102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총 약 20조루피(약 326조원, 인도 2019년 GDP의 약 10%) 규모의 경제 대책을 발표
 - 인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5.15%(20.2월)에서 4.00%(2020.3월)로 인하
 -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는 인도의 국가신용등급을 Baa2에서 Baa3로 하향(2020.6.2.)하고 전망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향후 경제성장 경로에 불안 요인
 - 인도 재정 악화와 금융 부실 등 기존의 취약점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악화된 것이 주요 요인
 - S&P(Standard&Poor's)와 피치(Fitch Ratings)도 인도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마지막 등급인 BBB-로 유지하였고 피치는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2020.6.18.)
 - OECD(20.9월 전망)는 인도 경제가 2020년 -10.2%, 2021년 10.7%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지역봉쇄 등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중전(20.6월 전망) 전망치(2020년 -3.7%, 2021년 7.9%)에 비해 2020년 경제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

48) 우리나라의 부실채권 비율은 2020년 6월말 기준 0.71%(금융감독원 자료)

-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과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 상승 등으로 인한 금융안정성이 우려된다고 평가
- IMF(20.6월 전망)와 World Bank(20.6월 전망)는 2021년 인도 경제가 각각 6.0%,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

[그림 154] 주요 국제기구의 인도 경제전망



자료: OECD(20.9월 전망), IMF(20.6월 전망), World Bank(20.6월 전망)

2021년 및 중기 경제전망

발간일	2020년 9월 29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종후
편 집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유월애 (tel 02·859·2278)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788·3775)

ISBN 978-89-6073-330-5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0

